

건축사

1998 **10** vol. 354

칼럼 _____ 새로운 천년을 여는 희망의 불빛을 보며

작품리뷰 _____ P교수 주택

데미가획 _____ 지역건축탐방(Ⅱ) - 전주, 익산, 군산(하)

포커스 _____ 월드컵주경기장



'98 한국건축문화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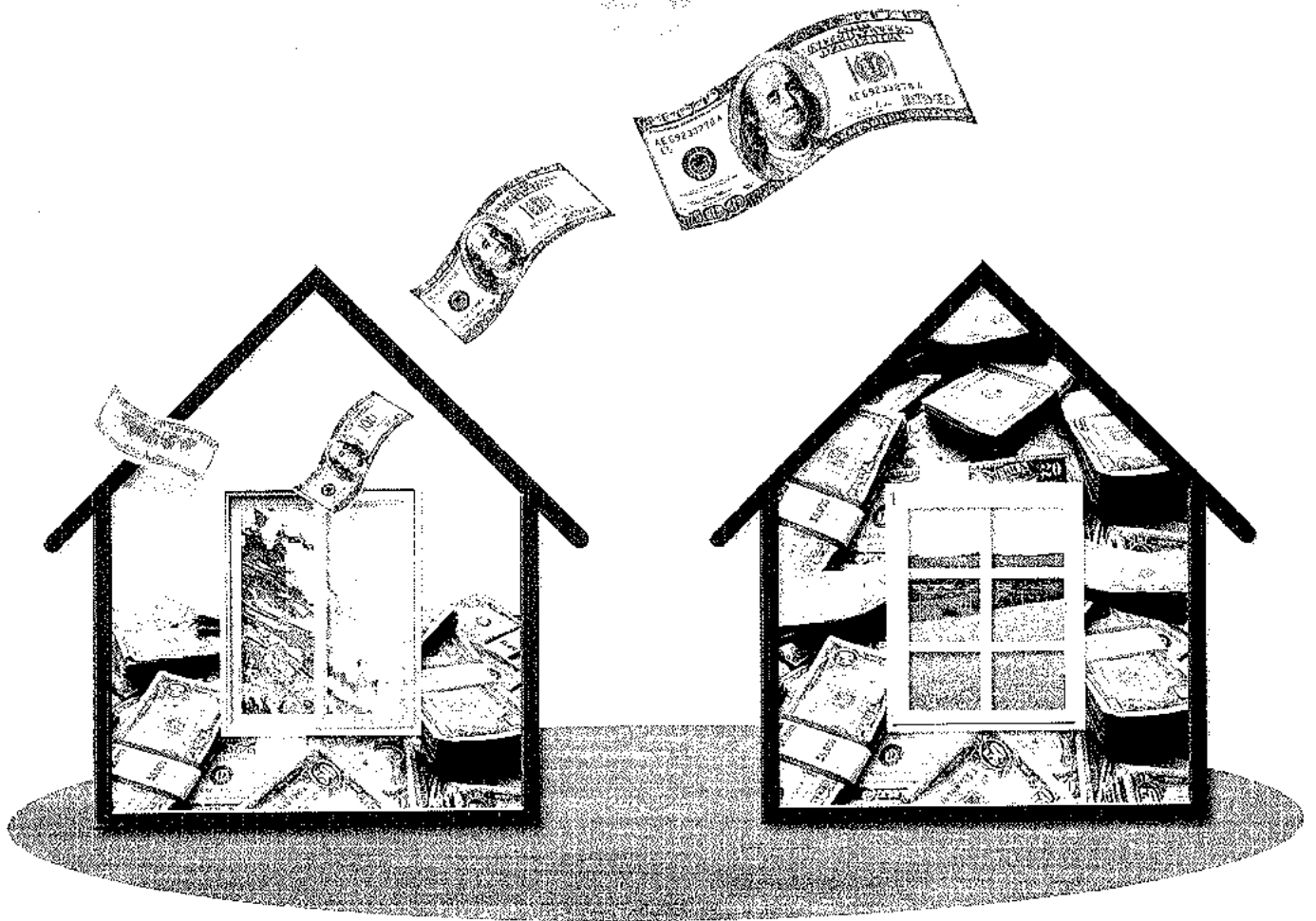
수상작전시회



Korean Architecture Award 1998

시상식/1998.10.27(화) 10시 30분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전시/1998.10.27(화)~11.2(월) 포스코센터 서관 2층 다목적홀
주최: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
후원: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주택공제조합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달러 해강 수퍼사시가 막아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해강 수퍼사시는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국내최초로 100% 국산화를 실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스템 창호를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다격실 구조와 밀폐성 높은 EPDM 가스켓,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해강 수퍼사시는 단열, 방음효과가 탁월하며 윗열기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공기의 자연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환기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해강 수퍼사시 구입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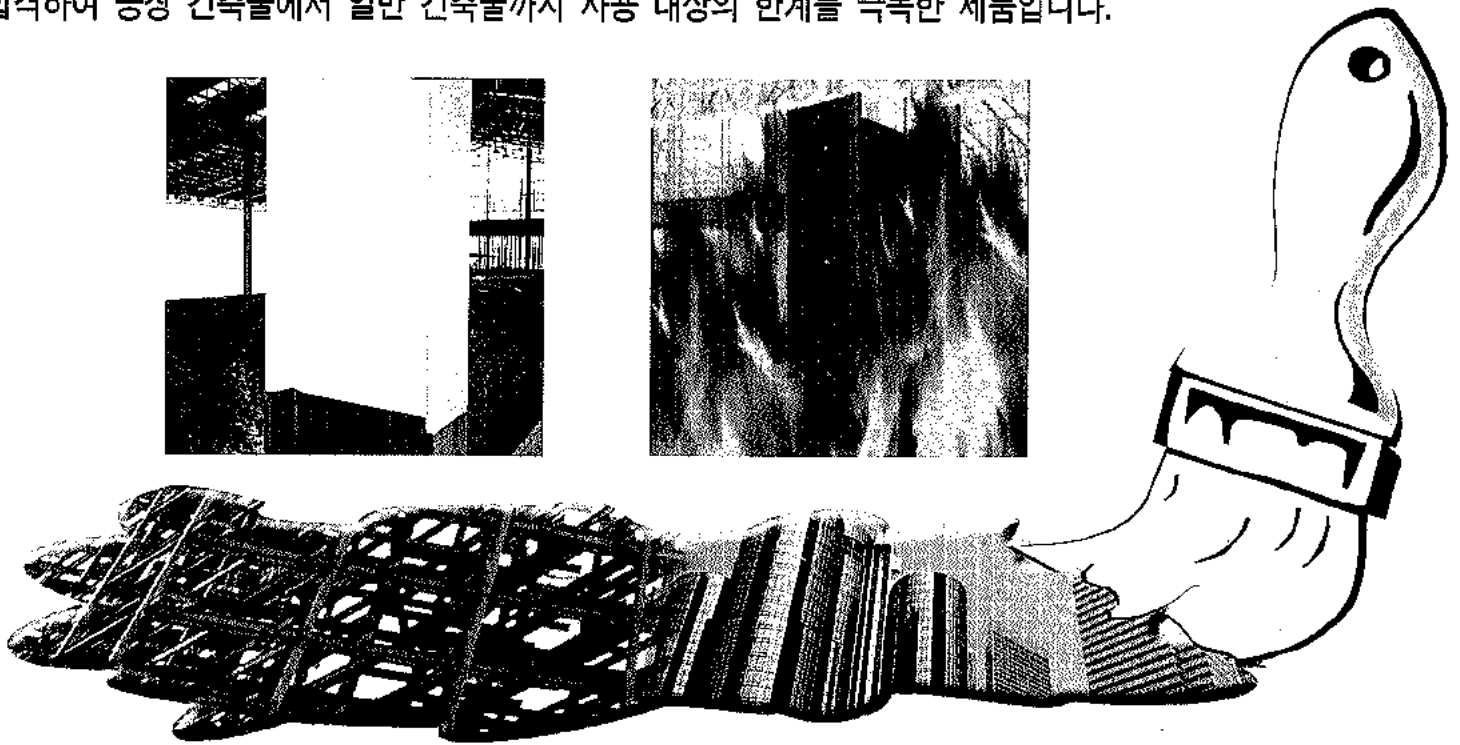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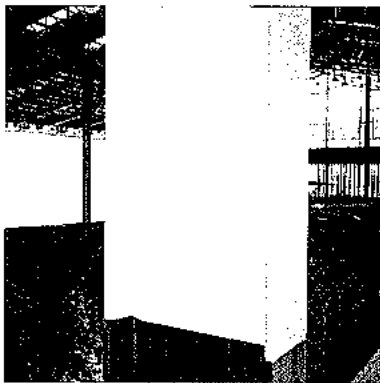
- 서울 사무소 및 전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빌딩 2층 TEL : (02)548-4041(대) · FAX : (02)543-3647
 ■본사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236번지 TEL : (0417)557-9687 · FAX : (0417)557-9689
 ■부산 : (051)501-9006 ■강남 : (02)3442-0657 ■강북 : (02)264-5400 ■대구 : (053)551-1770 ■송파 : (02)3401-8262
 ■인천 : (032)431-6732 ■의정부 : (0351)877-3808 ■안성 : (0333)656-7504 ■천안 : (0417)575-8196 ■대전 : (042)633-5591
 ■강릉 : (02)474-1661 ■라인 : (02)552-3530 ■마산 : (0551)232-2633 ■제주 : (064)748-4811 ■성북 : (02)914-3666
 ■울산 : (052)248-0900 ■안양 : (0343)471-7084

첨단 철골내화 페인트

FIRE CONTROL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6-33호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

취급, 보관, 시공, 화재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냄새, 분진, 가스등의 유해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청정내화재 FIRE CONTROL은 페인트 타입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반 건축물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사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용도

철골 구조의 건축물 / 철골 구조의 공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 물류센터 / 근린 생활시설 / 발전소 선박, 프랜차이즈, 산업시설

특성

- 자체 독성이 전혀 없는 무해 재료이다.
- 화재시 유독한 연기를 방출하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발포성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 불연재이다.
- 시공시 페인트 타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점이 전혀없다.
- 시공후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며 자체강도, 부착강도가 강하여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대 상	내화시간	사용부위	도막두께
내 화 구 조 지 정	일반건축물 공장(2층이상) 창고, 물류센터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2.95mm 상도:3.20mm
	공장(1층,중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1.95mm 상도:2.20mm

FIRE CONTROL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갖춘것"으로써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필수적인 내화성능도료입니다.

H 하이템주식회사
HITEM CO., LTD.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2-4
남성 B/D 4F
TEL:(02)535-7230(대) · FAX:(02)535-6503
공장: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861
TEL:(0335)33-6074~5

“에이디프로(ADPRO)에 가입하십시오.
또 하나의 설계실이 생깁니다.”



건축설계분야의 신 패러다임(Paradigm), ADPRO의 Total Service를 경험해 보십시오.

비대한 몸집에 거품을 빼고 경영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추구해야 하는 IMF시대입니다.

ADPRO는 건축설계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최정예요원으로 구성된 회원제 건축설계대행업체입니다.

이제, 건축설계 순수창작부분인 계획설계 이후의 모든 설계 업무는 ADPRO에게 맡기십시오.

획기적으로 빠른 건축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고품격 서비스로 귀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드립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ADPRO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곧 찾아 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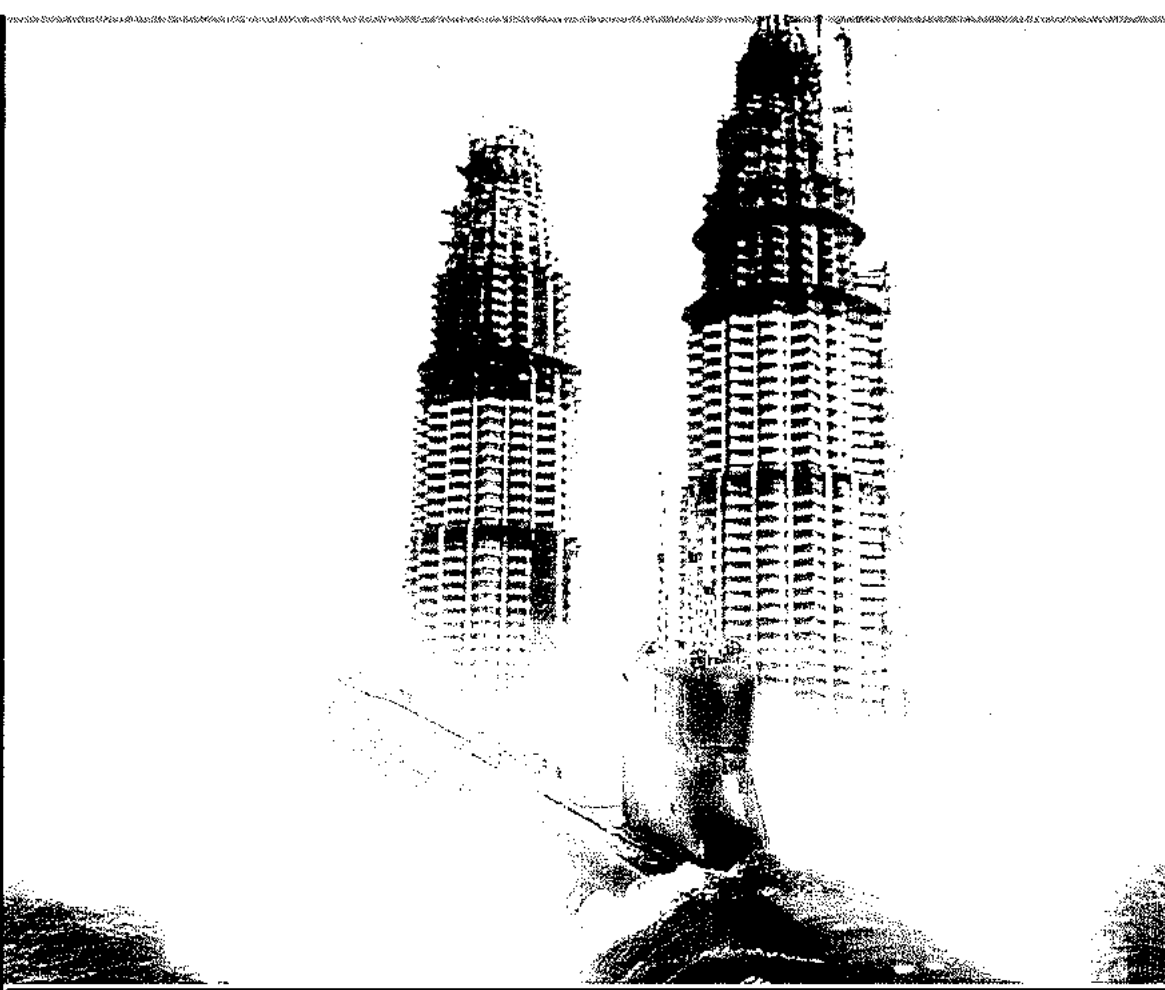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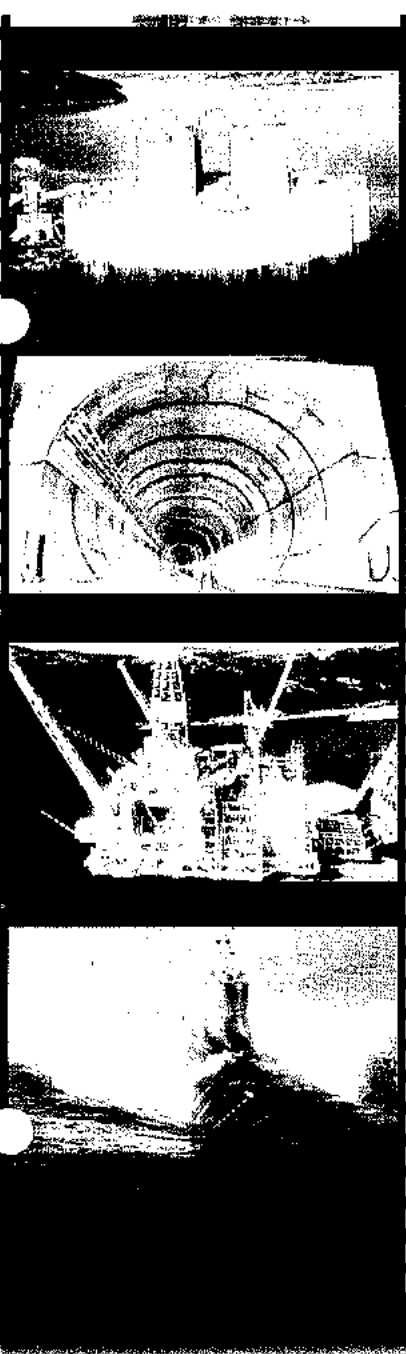


(주) 부림캐드네트워크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4-3 부림빌딩 2층
TEL: (02) 571-2638(대) FAX: (02) 573-7424

ADPRO 전국 네트워크

▣ 인천: (032) 471-2638 ▣ 부산: (051) 743-2637 ▣ 동두경기: (0337) 881-2638 ▣ 서부경기: (032) 698-2638 ▣ 대구: (053) 754-2635
▣ 울산: 98년 10월 예정 ▣ 서울: 98년 11월 예정 ▣ 마산, 창원: 98년 11월 예정 ▣ 광주: 98년 12월 예정



지금까지 기다렸다. KBS · EBS방영 최신작!

본 비디오 프로그램은 1998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방영한 프로그램입니다.

- 20세기의 위대한 건축물 (EBS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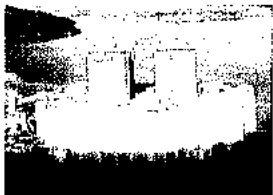
Super Structures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기술적 도전과 기념비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상상력과 스태미나를 시험하는 경이로운 노력인 것이다.

창의성을 개발시켜 인간의 장엄한 꿈을 실현시켜온 몽상가들과 개척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이러한 현대의 경이로운 작품들은 20세기 기술의 승리인 것이다.

■ 본편의 구성



• 그랜드 벅크의 해양 유전설비
(North Sea Oil Derri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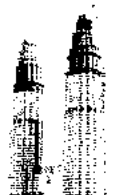
• 유로터널
(Eurotunnel)



• 파나마 운하
(Panama Canal)



• 핵잠수함 사울포호
(Nuclear Submarines)



• 고층빌딩
(Skyscrapers)

- 인간과 건축 (KBS 방영)

건축가들은 인류의 생활터전을 새로이 창조해내는 사람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이 이끌어온 건축의 세계와 그 세계적 변화의 흐름을 10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건축물은 근간 유례없이 변하고 있고 또 재평가되고 있다. 전세계의 모든 건축가들과 일반대중은 지난 30년간 지어진 건물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허무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신 그 곳을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재창조하려 하고있다.

미국과 유럽,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촬영한 이 필름은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조명해보고 있다.

■ 본편의 구성

- 20세기 건축의 재평가
- 현대건축의 신경향
- 현대시장의 광장
- 현대의 건축
- 인스턴트도시 텍사스
- 이슬람건축의 오늘
- 일본의 현대건축
- 파괴만이 능사인가?
- 인간의 도시 베를린
- 건축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자료명 : 「인간과 건축」 Video Tape / 40분×10개 • 「20세기의 위대한 건축물」 Video Tape / 52분×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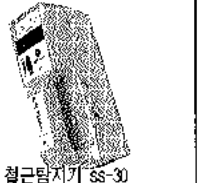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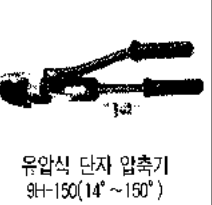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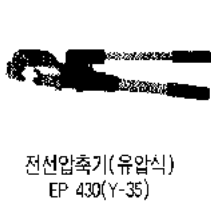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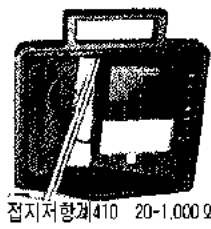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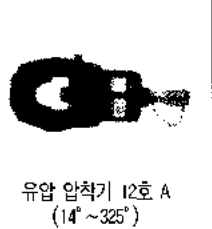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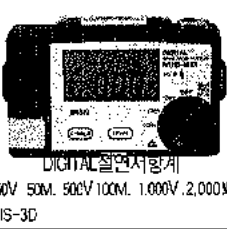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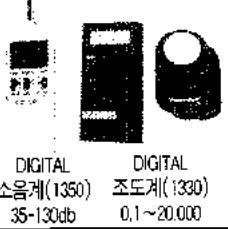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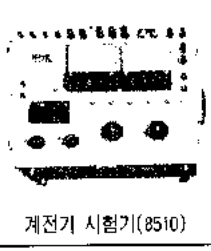
■ 보급가 : 「인간과 건축」 / 특별보급가 39만원 (정가 45만원) • 「20세기의 위대한 건축물」 / 특별보급가 19만원 (정가 24만원)

■ 제 작 : 영국 BBC ■ 문 의 : 함께하는 영상교육 - 영상사업부 TEL. (02)786-5692 ※ 연락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계측기 및 전설공구·법정장비

건축감리·전기감리·소방감리 장비 판매중

활선상태에서 절연저항을 누설전류계로 비교측정

 자동임분측정기(AG 100 0.001~1.5%)	 콘크리트테스터 합마 NSR가독식	 철근탐지기 SS-30	 도막두께 측정기 HSE-8601	 목재함수율측정기 M5700 5~36%	 진동계3140 KYORITSU 점지 저항계 디지털 4105 0~2000 Ω
 누설전류계 Multi120 40 m/m 0.01mA~300mA 누전사고예방	 유압식 단자 압착기 9H-150(14°~150°)	 전선압착기(유압식) EP 430(Y-35)	 유압식 철판천공기 SH-10(2" 3" 4")		 점지저항계 410 20~1,000 Ω
 누설전류계 MCL-8000 80 m/m 0.01mA~1,000A 누전사고예방	 유압 압착기 12호 A (14°~325°)	 유압 수동 펌프 HP 700A	 특고자압검전기		 점지저항계 2007 600A 750V 2002 1000A 750V
 DIGITAL 절연저항계 250V 50M 500V 100M 1,000V 2,000M MIS-3D	 DIGITAL 소음계(135) 35~130db DIGITAL 조도계(1330) 0.1~20,000	 비접촉식온도계 ST3150 -32~400°C ST6100 -32~500°C	 비접촉식온도계 -50~500°C UT-01		 절연저항계 3165 500V 1,000M 3166 1,000V~2,000M
 절연저항계 3213A 500V 1,000M 1,000V 2,000	 DIGITAL 록콘 메터 234301 650V 1,000A	 점지저항계 3235	 다기능계측기 MET500		 절연저항계(3123) 10,000V
 COS MOS 가스 측정기 LNG LPG X P 702SA	 절연장갑 장화	 50,000V 내전압시험기	 후크온식 점지저항계		 온도기록계 SR 1,000 UR 1,000 UR 1,800
 DC Hydrot tester 60kV 5mA	 절연유산가측정기(HD 101)	 절연유 시험기(HDSS)	 계전기 시험기(8510)	 접지공구	

취급회사제품



KYORITSU KIKUSUI 내전압 시험기
MULTI 누설전류계 MUSASH O.T 테스트
IZUMI 압착기 HIOKI 계측기



메가 흑크메타 아쓰테스타 소방장비 차압계

YOKOGAWA 기록계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주)현대전기 계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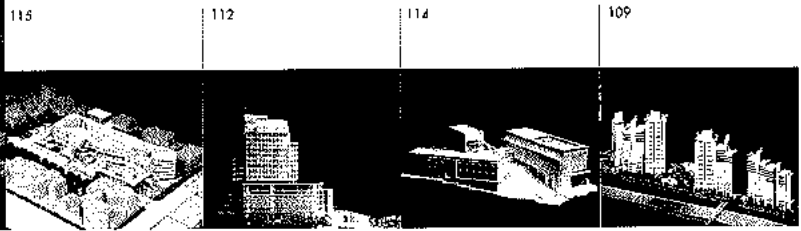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 (02)279-0427, 278-3944
FAX : (02)273-8758

FAX : 586-8823 / 585-4958

차례 1998 10 354호



월드컵 주경기장(류훈수작)



발행인: 김영수
 편집위원: 방철린(위원장), 송효상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ic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새로운 천년을 여는 희망의 불빛을 보며	오원근	12
작품리뷰 / P교수 주택		류훈수	14
	대담: 보관성과 향성의 건축	심영섭	21
	비평: 욕심없는 건축, 편안한 집	조용훈	29
회원작품	산성교회	김인철	34
	제자교회	함인선	36
	대한어린이집	김효만	38
	일산주택 1	임재용	40
	삼성자동차 성수 A/S 센터	한상목·김보희	42
	신곡 30	김상길	44
	과천 구세군 노인복지시설	김형준	46
	금강농협	한광호	48
	서은옥피부과의원	정동연·진 정	50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⑧: 전주·익산·군산(하)		편집디렉터/김병윤	53
	지역성의 표징: 건축과 장소성의 특성	진 정	54
	익산의 어제와 오늘	윤충열	58
	잠자는 도시에서 도약하는 도시로	최산호	62
	좌담: 전북지역 건축문화의 특성과 전망		71
기고	건축사와 보증제도 - 공제사업 하루가 급하다	여종정	84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을 위한 표준화(완)	박준영	87
건축마당	협회사식		95
	건축계소식		97
	포커스(월드컵 주경기장)		105
	현상설계		109
	통계(설계도신고현황)		116
	게시판		118

Column

Observing a Dim Light that will Open the Next Millenium	Oh Wan-Geun	12
Review / House of Professor P	Ryu Choon-Soo	14
Interview Architecture of Universal Value and Durability	Shim Young-Sub	21
Critique Not Greedy Architecture, Comfortable House	Cho Yong-Hoon	29

Works

Sansung Church	Kim In-Cheol	34
Jeja Church	Hahn In-Sun	36
Daehan Kindergarten	Kim Hyo-Man	38
Ilsan Residence I	Lim Jae-Young	40
Sungsu Afterservice Center, Samsung Motors	Han Sang-Mook & Kim Bo-Hoe	42
Singok 30	Kim Sang-Kil	44
Kwachon Salvation Welfare Center for the Aged	Kim Hyung-Joon	46
Keumgang Nonghyup	Han Kwang-Ho	48
Suh Eun-Ok Dermatologist Clinics	Jeong Dong-Eon & Jin Jeong	50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8): Cheonju · Iksan · Kusan (I)	Kim Byung-Yoon	53
Signs of Regionality: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and Place	Jin Jeong	54
Yesterday and Today of Iksan	Yoon Chung-Ryeol	58
The Awakening City	Choi San-Ho	62
Conversation: Features and Prospect of the Architectural Cultures Cheonbuk Province		71

Feature

Architects and Guarantee System-Urgent Tasks of Mutual Aid Activities	Lee Jong-Jeong	84
The Standardization for Open System Building(E)	Park Joon-Young	87

Architects' Plaza

KIRA News	95
Archi-net	97
Focus(Worldcup Main Stadium)	105
Competition	109
Statistics	116
Bulletin Board	11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성향탐색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성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9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8-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6902 · 고양건축사회/(02)684-53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3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인천건축사회/(0345)480-0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698 · 외청부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6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855-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6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32 · 세천지역건축사회/(0443)643-386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947-306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9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8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고신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3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02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9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신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8)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681)53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075 · 아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96)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미합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93)6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384-33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6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6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762-2233

새로운 천년을 여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Observing a Dim Light that will Open the Next Millenium

오원근 / (주)금오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Won-Geun

온 백성이 나라의 경제위기로 의기소침해 있고 특히 우리 건축쟁이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함 속에서 자신의 속수무책만을 책망하는 이 때 희미한 빛을 보았기에 나는 희망을 갖는다. 그 하나는 천년전에 만든 굿판에서 굿을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천년의 신새벽에 굿을 할 굿판을 만드는 일로 그 빛의 진원지다.

물론 전자는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문화 EXPO 이야기이다. 문화 EXPO가 무엇인가. 천년 고도 경주라는 무대 위에서 각국이 자신의 문화를 공연하고 전시하는 것으로 이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상품을 파는 일이다. 따라서 경주는 문화라는 상품을 파는 커다란 장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경주가 문화장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는 경주 천년 문화유산이 경주문화 EXPO라는 무대에 잘 어울리는 훌륭한 무대장치로 쓰여지면서 많은 이들의 발 걸음을 경주로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라는 무대에 어울리는 무대장치, 이는 천여년전 우리 선배쟁이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 놓은 보물로써 이는 이집트의 석수도, 중국의 목수도 아닌 우리의 선조가 우리 땅에 만든 것이다.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만든 문화유산이기에 천년이 지난 지금 남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모여들지 않는가.

천년후의 손님을 위해 무대준비는 우리 몫이다. 할 일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빛은 상암경기장 시공자 선정결과에서 보았다.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건설사팀이 소위 한국 건설업계 빅5의 공동 도급회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설계의 우수성이었고, 특히 그 설계자가 빅5로부터 사무실 규모가 작다고 퇴짜 맞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내 일처럼 흥분한 사람이 나 뿐이었을까. 오늘 아침 신문에 빅5의 간사회사 사장이 바뀌었는데 상암경기장 주주실태가 큰 원인으로 보도됐다. 나하고야 이유가 다르겠지만 회사 고위층이 꽤나 흥분한 모양이다. 나는 언론매체에 공개된 당선작의 투시도밖에 보지 않아 나름대로의 작품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없고 참여하였던 설계사무소들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 다만 내가 흥분하는 이유는 큰 것을 선호하고 모든 것을 양으로 판단하는 이 풍토에서 사무실이 작다고 홀대받았던 건축사가 해냈다는 사실이다. 사실 창작이란 수많은 인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우수한 천재가 만드는 것 아닌가?

요즈음 공공시설물 설계하나 수주하려면 설계입찰에 참여하거나, 설계경기, 아니면 PQ심사후 제한적 설계경기에 참

여하는 수밖에 없다.

굳이 한국의 건축문화를 걱정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이러한 건축계의 비극적 현실 속에 이런 물이해적 발상을 해낸 사람, 이런 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아들 앞에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라고 뭇뚱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나마 설계경기는 좋은 설계를 얻으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최근의 설계경기는 보통 50개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참가한다니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너무나 큰 출혈이다. PQ 심사라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봉어빵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고, 몇 년의 경력이 있느냐를 따지고 심지어 빵을 개수까지 따진다. 이는 건축설계과정을 봉어빵 제조과정 정도 수준이나 제품생산과정 정도로 이해하고 참작이란 설계본질은 외면된 처사다. 건축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설계사무소는 여러 개가 모여 몸집 부풀리기 경쟁을 하고 살릴커진 소장은 설계보다는 로비가 주업이 되어 로비 잘 하는 소장이 각광받는 세상이 됐다. 이런 때 상암경기장건은 우리에게 한줄기 빛이 아닌가 - 우수한 건축사 한 명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 - 그 이상은 사실상 어깨불리기하는 동물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명되었다.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낸다.

건축을 단순한 구조물로 치부하고 건축을 위한 행위를 금전적으로 단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진흥책을 쓰기 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환영받는 요즈음의 건축계 현상 -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값이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건축사의 선택이 더 우선함을 이야기해 주는 이 좋은 예를 계기로 천년 후에 또다른 문화 장터를 열어야 할 우리 후손을 위하여 이제 건축이 무엇이고, 문화장터가 생길 수 있는 근본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큰 소리로 다 외치며, 한편으로 우리는 천년 후의 아니 백년 후의 무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우리는 절망에서 구할 희미한 빛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문화장터를 위한 초석을 깔고 바람을 막자.

시월은 우리 건축사협회의 회장선거가 있는 달이다.

원래 선거란 '더 좋은 것보다는 덜 나쁜 것을 뽑는 것이다' 라는 속설이 있기는 하지만 제발 이번만은 공(功)도 세우지 않고 이름이나 내려고 근시안적이고 달콤한 공약(空約)이나 남발하는 후보보다는 우리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천년 후의 손님을 위하여 작더라도 실천가능한 문화적 공약(公約)을 제시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할 수 있는 성실한 후보를 회장으로 뽑아 우리 문화장터를 위한 든든한 일꾼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P교수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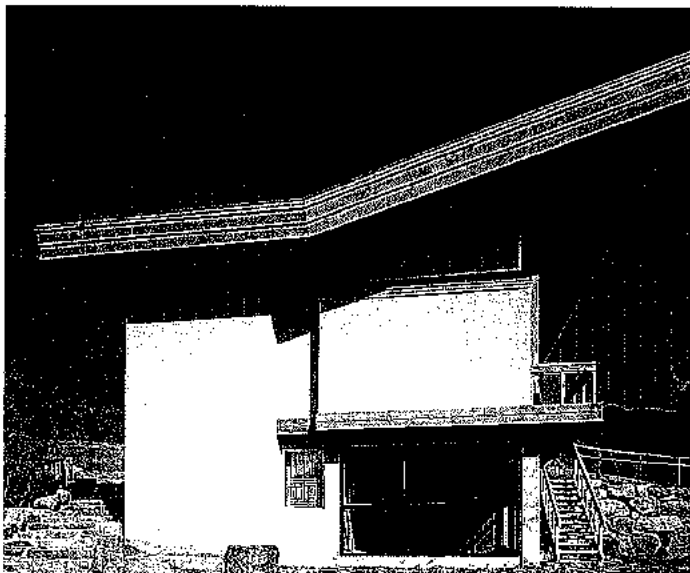
House of Professor P

작품리뷰 review

류춘수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Designed by Ryu Choo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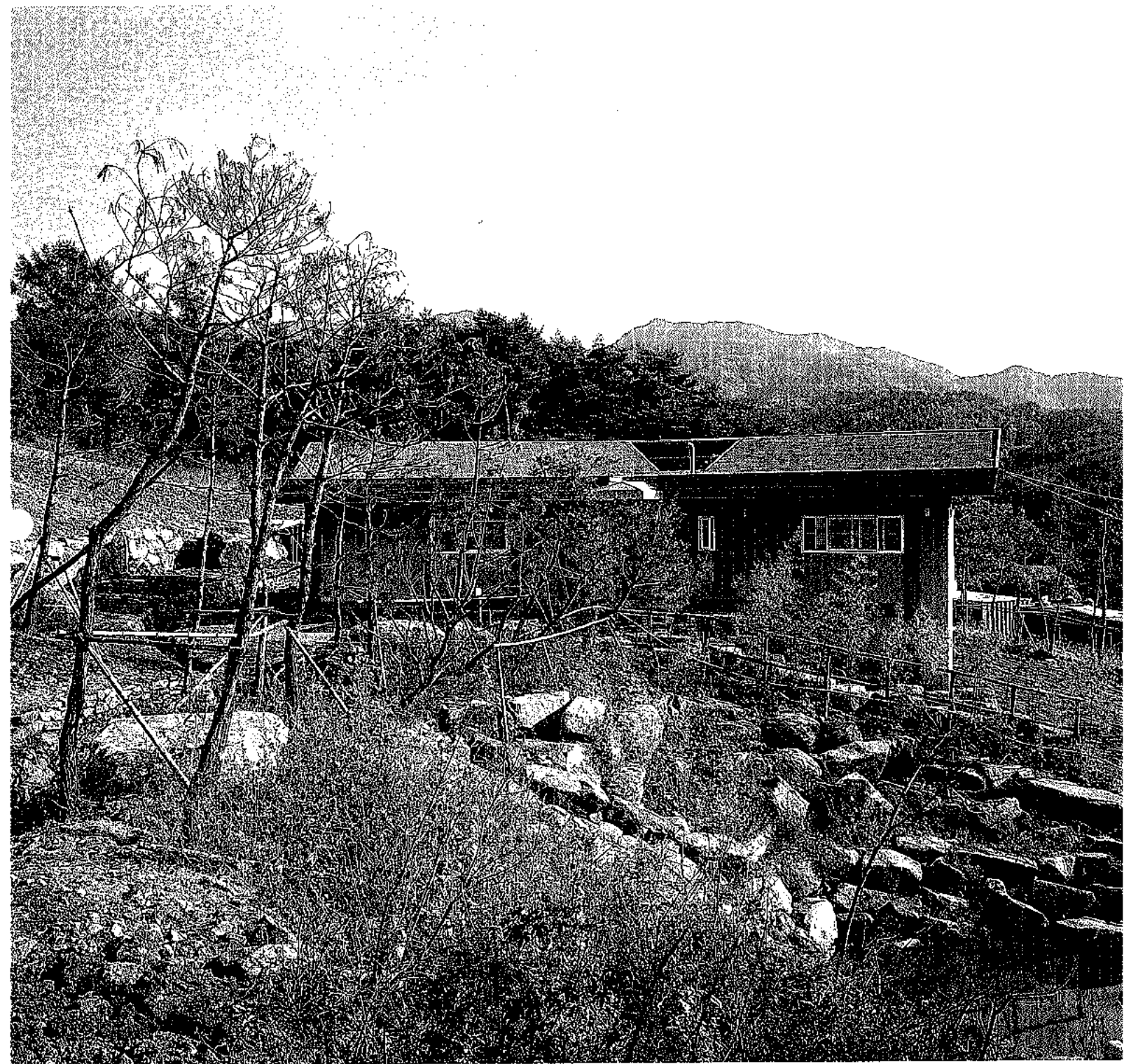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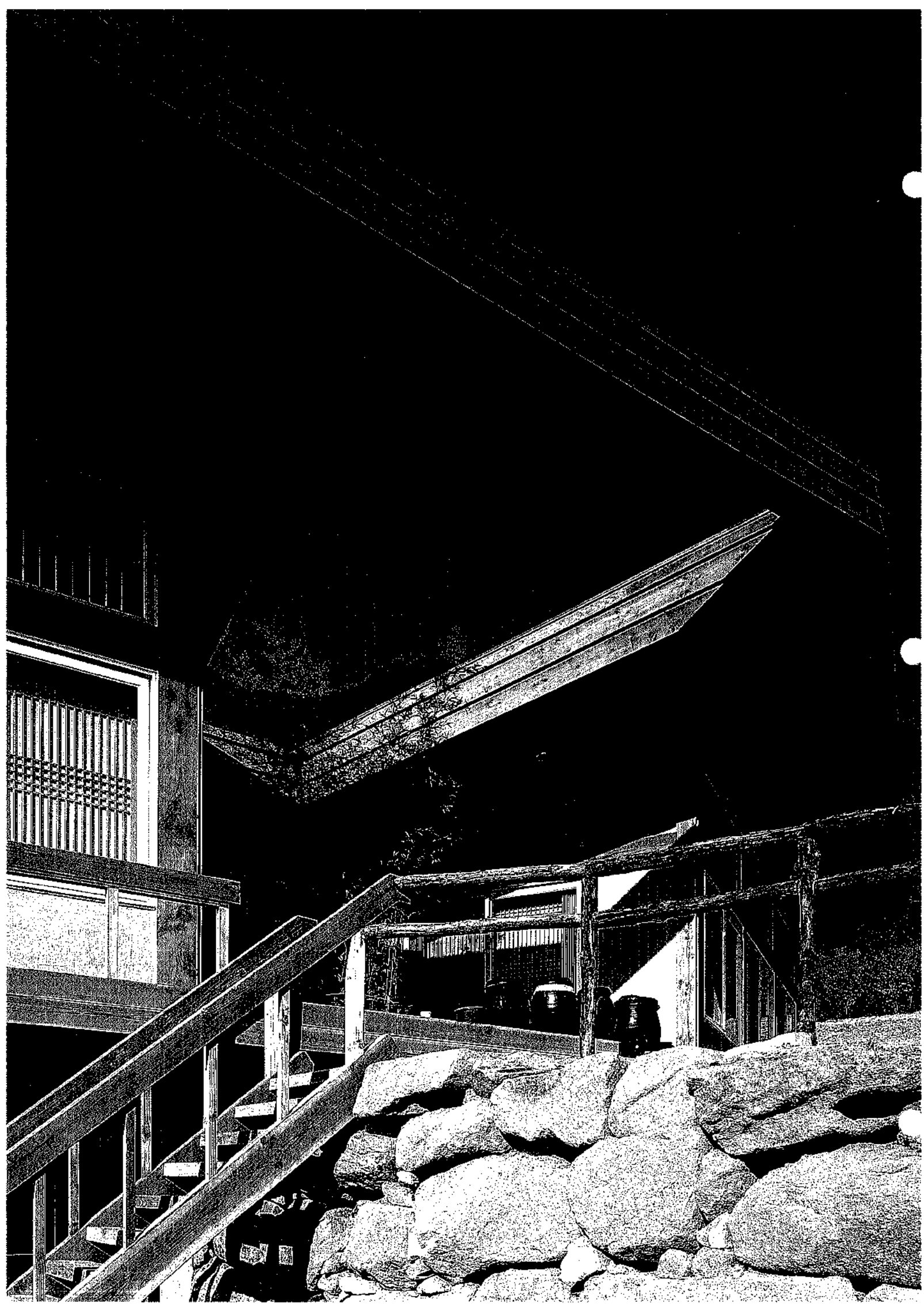
동북으로 산봉이 둘러있고, 남으로는 송림이 푸르고, 내려다 보이는 서쪽은 멀리 석양이 아름다운 곳이다. 다시 숲으로 복원시킬 밭 가운데 약 40평의 1층과 경사지를 이용한 거의 개방된 지하층이 10여평 남짓한 크지 않은 집이다. 모양만 목구조가 되어 아쉽고, 외딴 집에 부득이한 방법 창살이 거슬러 보이지만 건축주의 생활에 맞는 공간 설정은 성공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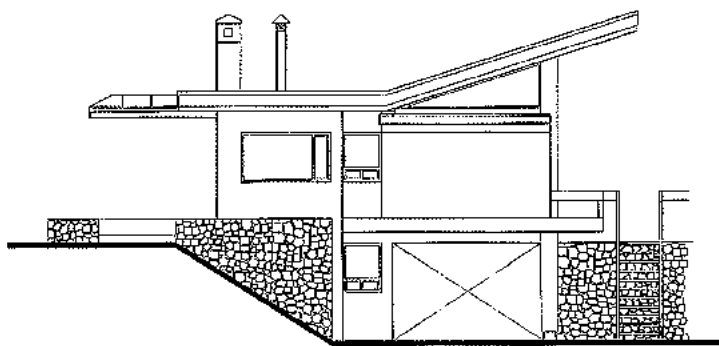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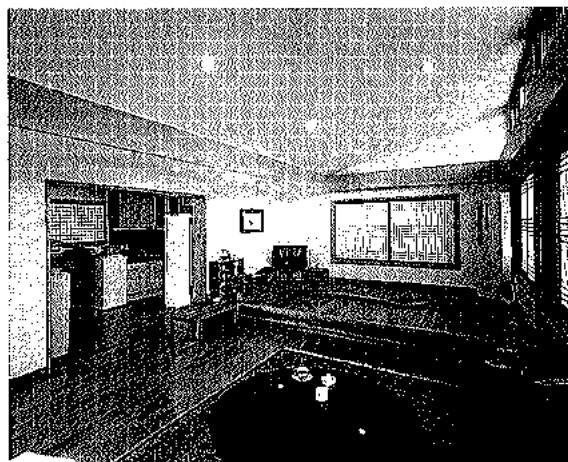
거실 속의 마루방은 뜻한대로 주인이 기뻐하고, 중정의 대나무는 다시 내 뜻대로 겨울에는 가지만 남은 활엽수로 바뀔 것이다. 실제 규모에 비해 숲은 지붕 탓으로 너무 커 보인다는 것은 소박하신 심성의 건축주에겐 당연한 불평임을 이해한다. 집의 조형보다 주변 조경과 복원될 숲의 아름다움에 오히려 기대를 갖고 있다.

방의 위치마다 다른 풍경을 끌어들이는 시도는 성공이며, 무엇보다 P교수께서 이 집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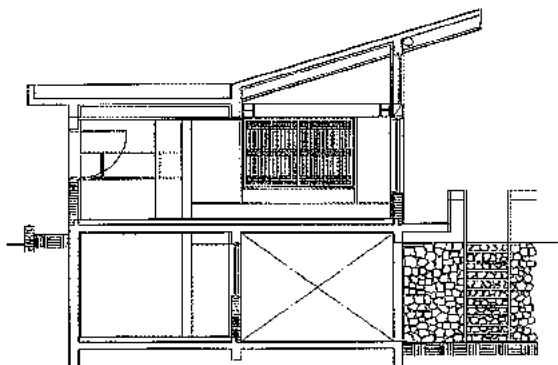
The northeast of the site is encircled by mountains, when the south commands a fine view of pine trees. A hill down the west presents a picturesque vista of sunset. Here, now a field to be recovered into a forest, a modest house, with a ground floor area of 130m² and basement floor exposed to the outside using the sloped condition, was planned. Some compromises, such as the use of wood structure imitation and the barring of windows for security reasons, were made, but the space program seems to fit to the client's lifestyle. The Maru-room in the living room was a great delight to the user, and the bamboos in the courtyard present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each season. The rise of the roof, rather high for the size of the house, is one dissatisfactory point quite naturally noted by a client of humble taste. I would say that my hope is on not the house but the surrounding forest which will be recovered in the near future. The distinction of different perspectives in each room is something I am proud of, and I wish the house will become a beloved home for professor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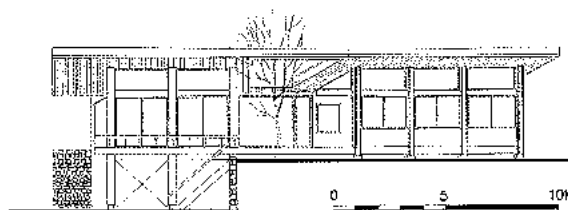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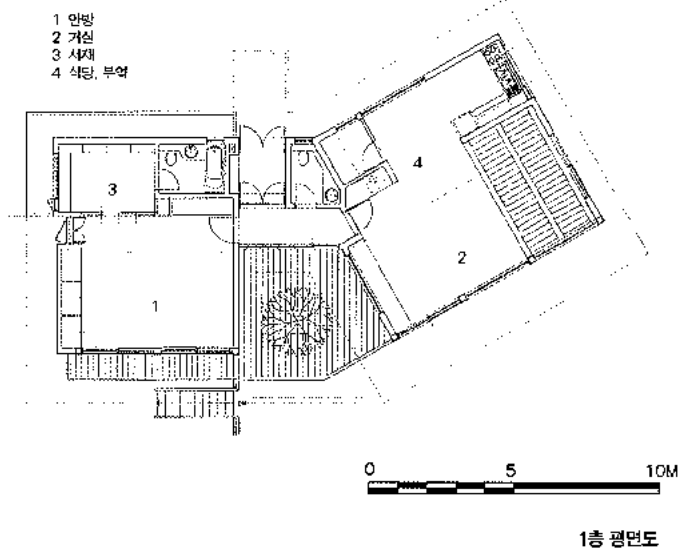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단면도



남측입면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원주시
대지면적	660㎡
건축면적	141.53㎡
연면적	171.9㎡
건폐율	17.97%
용적률	19.8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1층

Location Wonju, Kangwon Province
 Site Area 660㎡
 Building Area 141.53㎡
 Total Floor Area 171.9㎡
 Building Coverage Ratio 17.97%
 Gross Floor Ratio 19.85%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ories 1 Story, 1 Basement Floor

보편성과 항성의 건축 Architecture of Universal Value and Durability

건축사/ 류춘수(이공건축)

대담자/ 심영섭(호서대 건축과 교수)
by Ryu Choon-Soo & Shim Young-Sub

일시/ 98. 9. 16(수) 15:30

장소/ 이공건축 회의실



대담장경(왼쪽: 조용훈, 가운데: 류춘수, 오른쪽: 심영섭)

심영섭오랜만에 작품을 발표하시고 공개적인 대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월드컵 상암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류춘수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텀키라는 것은 대기업에서 아키텍트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규모 또는 텀키설계경험 등으로 선정기준을 잡고 그것이 전례가 되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가들이 참여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식시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텀키방식을 지양하고 더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현상설계가 자칫 제도적인 문제로 대기업의 단독플레이가 될 뻔한 것을 스스로 정통파 건축을 하는지는 몰라도, 외형적 문제를 극복하고 건축적 내용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사실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한동안 저조하셨는데, 업무량의 감소에도 기인하지만 의도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텐데 간단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춘수물론 물러나 있었던 것은 자의 반 타의반인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중국프로젝트를 한 이후부터 너무 실속없이 유명해져서 내용적으로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도 회사운영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커퍼선전을 하고 난 후 저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니까 설계비도 비쌀 것이다, 중국의 큰 프로젝트를 하나까 너무 비쌀 것이다 해서 건축주들의 의뢰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일 때문에 회사규모는 이미 커져 있는데 작품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구조조정은 불가피했고 그것이 재충전인지는 몰라도 그때 고향 시골집에 작업실을 마련해 놓고 나 스스로도 침잠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대를 이어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포기할 리는 없고 한시라도 현실을 도피한다거나 심지어 쓰러지거나 주저앉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오면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다는 각오도 있었을 뿐더러 솔직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나는 “늘 기회는 온다.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말했습니다.

심영섭이 P교수 주택의 성격과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류춘수아주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P교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저는 내가 좋아하는 경지지 산에 주변풍경이 아름다운 농촌의 분위기인데, 요구하는 규모도 30~50평으로 작고 그러면서도 교수님의 안목이 넘달랐습니다.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에 대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 정도 돈밖에 없고 생활은 단순하다. 그리고 외부손님이 올 뿐 많은 가족이 없다”는 본인 생활에 대한 얘기였고, 또 하나는 “지형과 공사비와 그리고 내 생활에 맞춰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의견도 없습니다.”나는 그것이 건축가에게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어렵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주가 이것저것 간섭이

지나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 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영섭 _____ 그렇다면 유명 건축주에 대한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작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류춘수 _____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주와 상관없이 그 땅에 잘 어울리는 집, 이른 바 외국잡지에서나 봄직한 주택의 조형은 아니더라는 생각이었고, 또 건축주가 누구든 나는 그렇게는 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주변경관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외딴 집이기에 어쩔 수 없었던 방법 창살이 좀 시각적으로 거슬리지만 내가 건축주의 생활을 알고 있기에 이해가 됐고 안하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주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영섭 _____ 류춘수건축은 폭과 깊이를 함께 지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주택에서부터 초고층 오피스, 대형건축물, 단지 및 환경설계 등 다양한 분야를 소화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의 보편성과 향성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특히 주택건축을 대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관점이나 주택설계의 접근방식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류춘수 _____ 제 방식이 마땅히 없어서 걱정인데, 예전에 어떤 책에 표현하기를 '주택설계는 건축가의 함정' 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설계를 잘 하시는 분이 주택설계에서는 자칫 스케일이라든지 어떤 따뜻한 느낌 등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책에서나 봄직한, 예를 들어 이상한 조형 형태를 만들어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서투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창내고 싶은 곳에 창내고 또 전망좋은 데

는 큰 창을 내고 전망없는 데는 창이 없는, 다만 쓰는 재료가 비싸지도 않으면서 늘 익숙한 재료를 쓰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초가삼간 짓듯 간단한 칸나누기식의 방법은 아니면서도 편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설계한 주택 중에서 시골 농촌집을 개량한 그곳에 가보면 누구나 좋아하니까, 제일 잘된 집인 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너무 좋은 조형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려고 의도하다가 나쁜 집을 만든 예를 봐 왔기 때문에 나는 좋은 집은 못 만들어도 나쁜 집은 만들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의 주택 설계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소박하게 나무나 쓰는 생각은 아니고 필요할 때 건축가가 설계했기 때문에 생겨난 최소한의 아름다움이나 디테일 등은 끝까지 생명력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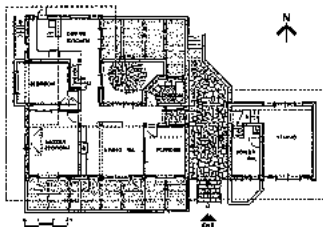
이 P교수집에서는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창 밖으로 시야가 확 트이도록 한 것은 처음 시도한 것인데, 전망위주의 이 집에서는 필요한 공간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좌식 생활하는 집에서는 창호가 무조건 낮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밖이 보여야 되는데 특히 어린애나 노인이 있을 경우 안전상 반드시 밖에 난간이 필요하고 그 난간은 옛날부터 누마루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기능적이면서 익숙한 우리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_____ 건물배치를 보면 대지 한쪽에 치우쳐 있고 비교적 대지가 넓은데 비해 대지전체를 집에서 관찰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대지나 주변과의 관계설정이 다른 작품에서 보다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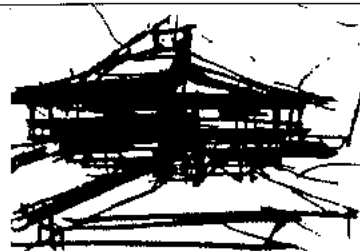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대지를 보면 발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과 도로를 포함해 200평밖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발 안으로 들어가면 도로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부득이 발 가운데에서 가장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도면상에서 경계선은 사실



살하리 주택(86)



살하리주택 1층 평면도



창계천 주택(86)

발입니다.

심영섭 _____ 접근하는 부분보다 위의 1층 대지레벨이 한 층정도 높습니다. 원래 자연지형이 그렇게 됐었나요, 아니면 경사지형이었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됐나요?

류춘수 _____ 본래 자연지형 자체가 경사였는데다가 그냥 앉힐 수가 없어서 거실바닥에서 나오는 마당을 한 단 높이고, 밑의 피로티 지하층을 한층 차이 축벽을 쌓아서 고른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내가 건물의 레벨차가 나는 것을 좋아하다보니까 평면 자체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하층은 피로티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피로티에 창문을 달은 것이 아쉽습니다.

심영섭 _____ 설계소묘에 보면 기존의 발부분을 숲으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류춘수 _____ 그것은 건축주의 생각입니다. 발의 면적이 혼자 경작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재산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서 본래의 숲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영섭 _____ 제가 보기에 류춘수건축의 특징은 평면에 있다고 봅니다. 즉 작품의 모든 구상이 건설한 평면 구성을 바탕으로 공간이나 형태가 출발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보는 이로 하여금 평면구성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주택작품에서 보면 목재를 사용하면서 목구조를 바탕으로 칸 구성이 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원적인 풍경과 어울렸는데 이번 경우 겹집형식이 절충되어 있고 목재사용도 칸구성과는 거리가 멀어 외부 입면효과로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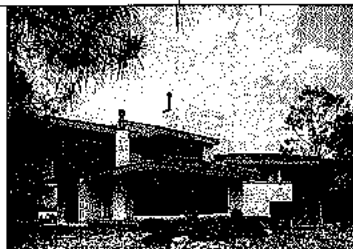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좋은 지적사항인데, 이 집의 본래 설계는 철골로 했었습니다. 철골에 나무를 사용한 한계령 휴게소보다 더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 문제로 못했고, 이것을 다시 목구조로 바꾸려니 더 비싸서 느낌만이라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료함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만 컨셉을 목구조에 맞는 모듈을 적용하여 거실 부분은 세칸, 안방부분은 두칸 정도의 비율로 나눴고, 실제로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우고 면마감만 목구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기둥이 있어야만 컨셉이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파티션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보통가족 여럿이 사용할 경우 나누어질 수 있는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마루방도 원래는 중간에 문짝을 내어 손님이 오면 쓸 수 있도록 생각했는데... 사실 안방도 반을 쪼개어 쓸 수 있는 칸 사이가 없어진 것은 규모에 비해서 삭구 수가 적은 경우입니다.

심영섭 _____ 전후면 외관은 목구조 형상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동안 류소장님께서 해 오신 작업에서 다소 거리가 먼 접근방식의 절충이라고도 보입니다. 물론 공사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편안한 집, 자연스러운 집과 비교해서 너무 과거의 목조효과를 내려고 집착하신 경우는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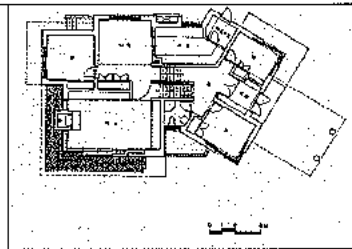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민스런 부분이었습니다. 삼하리주택으로 건축가협회상을 받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목구조건축인줄 알았는데 철골이 있어서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철골은 필연적이었고 철골과 목구조의 접합은 잘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강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 집도 콘크리트 기둥으로 해 놓고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굳이 또 나무를 붙였느냐 하는 부분은 가장 고민스러웠습니다. 바깥에도 페인트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실패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느낌만은 주고



성북동 B주택(87)



수원주택(91)



수원주택 1층 평면도

싶었던 것으로 내가 처음부터 목구조를 하고 싶은 욕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건축주와도 돈이 더 들어도 나무를 붙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심영섭 _____ 평면 내부의 기능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류춘수 _____ 평면은 비교적 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집은 처음부터 주인의 생활패턴이 잡히는 것과 손님맞고 밥 먹는 것으로 크게 양분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입구를 마당 앞쪽으로 하는 대신에 단층으로 후면현관에 들어가고, 방내부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바깥풍경을 보기에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 열고 들어가 자마자 바깥풍경부터 보여주고 방 양쪽으로 주인을 위한 큰 두 가지 기능을 나누어주자는 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똑바로 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똑바로 했으면 모양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전망 좋은 주변경관이 보는 각도에 따라 모두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어느 곳에서 보아도 다 달리 보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약간 틀었습니다.

조형적으로 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뚤하게 하는 것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형은 나중이었습니다. 좁은 중정을 가지고 개방감 있게 내부에서 보려면 약간 사선으로 틀면 더 잘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View가 훨씬 좁아지기 때문에 집을 틀었습니다. 이 점이 이 집 설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장치이지만 그나마 의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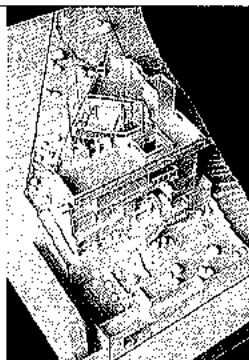
심영섭 _____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관중심으로 양쪽에 거실부분과 침실부분을 크게 나누고 매스를 틀어서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의아한 것은 처마선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삼하리주택에서는 본채와 별채 중간에 처마선을 두어 그 공간이 대문의 역할도 하고 앞과 뒤를 관통하는 중간의 영역적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P교수집의 경우는 두 개의 매스를 틀면서 대비를 시켜 놓고 연결하다보니까 모순되게 보이는데, 이는 삼하리주택에서 사용하신 것에 대한 단순한 반복이나 시각적 효과에 치중한 결과는 아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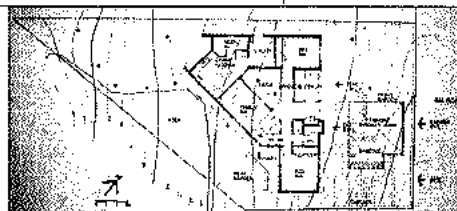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이 집의 스케일이 집을 잘라서 양쪽으로 캔틸레버를 내면 중정을 거의 덮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막난 두 개의 집을 두기에는 작은 하나의 집이라는 그리고 분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한 것이고, 오히려 현재 거실쪽에서 중정쪽으로 나와 있는 지붕의 면적이 너무 넓게 잡혀져서 오픈스페이스가 좁아진 것이 아쉬운데, 하얀 가운데는 앞의 띠만 연결해 두고 텅 비우고 싶었는데, 지붕이 너무 많이 덮여져서 어중간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영섭 _____ 거실내부에 보면 바닥을 한 단 높여서 마루방이라고 명칭을 하였는데, 구성이 아주 이채롭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의 백미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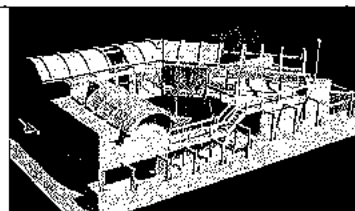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건축주가 반대를 했습니다. 마루를 놓는데 돈만 더 드니 턱없이 더 큰 마루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축주의 생각이었는데,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여 단 차이를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칸막이를 두어 필요에 따라 막고 열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건축주는 파티션이 없어지면 턱도 필요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주장했습니다. 다행한 것은 현재 주인이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단 차이가 나는 마루방입니다.



평창동주택(92)



평창동주택 1층 평면도



분당주택(92)

심영섭 _____ 그것이 없었다면 거실공간의 성격이 굉장히 단순했을텐데 한 단 차이지만 공간적인 위계나 분위기를 잡아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춘수 _____ 그 다음에 낮은 부분의 거실은 소파 등을 놓을 수 있는 레벨이라면 마루방은 앉아서 유리가 바닥까지 닿아 있는 창호를 통해 외부를 볼 수 있는, 같은 방에서도 의자에 앉느냐 방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는 같은 높이의 창호가 내부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심영섭 _____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적인 주택에서 집안에 앉아서 바깥을 보는 것이라든가 창호의 표정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안방부분이나 거실부분의 창호구성이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동안의 류소장님의 작품에는 입면상으로도 다양한 디테일 처리라든가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내외부공간의 연계에서 창호 크기가 일률적으로 칸마다 똑같고 고창부분에서도 내부공간에서는 공간적인 효과가 있는데 비해 개구부를 내는데 그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류춘수 _____ 고창도 사이드 창까지 모두 유리로 해서 지붕이 공중으로 떠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건축주가 사이드 창을 막았는데 내부에서 보면 아늑해 보이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얗튼 개념적으로라도 앉아 있으면 하늘이 보이게 하고 싶어서 고창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집에 지붕도 평지붕으로 단순하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풍경이라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생긴 고창입니다. 조형적으로는 비례도 안 맞는 어중간한 형태이지만 만약 평지붕으로 했을 때 느낄 수 없는 탁트임 때문에 도시에서는 마땅히 반대의 지붕형태를

했어야 될 것을 풍경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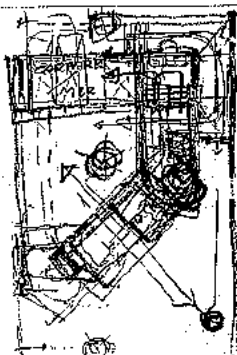
외부 창문에 대해서는 중간에 벽을 붙일 수는 없고 안방은 거실보다 창이 내려와서 밖의 전망을 볼 수 있도록 모듈을 똑같이 적용하여 폭이 똑같습니다. 단순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영섭 _____ 상부 고창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지붕이 경사지면서 공간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어진 상태를 놓고 보면 내부에 방범창이 설치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창호나 루바 등으로 목재를 사용해 적절히 처리하셨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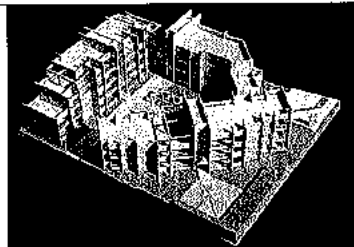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처음에 건축주에게 방범창상은 대형창에서 위에 감춰지도록 디테일을 하고 나머지는 고정창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임의로 도저히 불안해서 안되겠다고 막은 것입니다. 피로티도 공간을 따로 마련하더라도 막지 말고 비워두자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막았습니다. 외단집이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안하면 모든 것이 싫어지니까. 막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미리 대처해서 나무창살 등 다른 디테일을 만들어 드렸을텐데... 아쉬움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섭 _____ 외부의 입면이나 매스구성을 보면, 목구조 속에 전통적인 한국건축을 강조하신 반면에 지붕 형태는 지금까지 즐겨 쓰시던 형태와 비교해 볼 때 새롭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전통의 해석과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사고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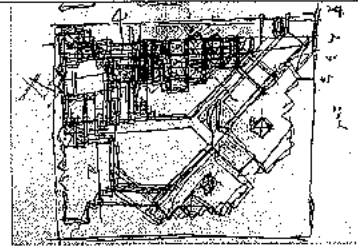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평지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은 지붕이 있어야 하고 처마도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통념, 잘못된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지만



분당주택 스케치



분당연립주택(92)



분당연립주택 스케치

우리나라 기후, 햇살, 햇살방향 등을 고려할 때 항상 지붕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처마는 깊을수록 좋은데 이 집에서는 주변 풍경이 너무 좋아서 거꾸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상관없이 처마를 올리는 게 마땅하다 생각했고,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케이틀시스템으로 디테일을 도로레를 달아서 집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처마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스케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심영섭 _____ 그 동안에 한국성의 표현이라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고 건축계에서도 그 분야에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류춘수 _____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집에 새로운 것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루에 단의 차이를 둔 것도 부암동주택에서 법당을 쓴다고 해서 비슷한 것을 시도한 적이 있고, 대학교 졸업 후 2년만에 우리 집을 지을 때 실내에서 단의 차이를 두는 것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어, 그런 추억 때문에 다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하리주택이 건축적으로 많은 의도를 갖고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라면, 이 집은 너무 쉽게 설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영섭 _____ 쉽게 설계하셨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류춘수 _____ 내가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을 다시 한 번 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류춘수이니까 당연히 저런 집은 지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심영섭 _____ 지난 몇 년간 작업이 많지 않았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일들이 많을 때는 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기 쉬우나 이번 기회는 그런 시간적 제약은 없었을 것이고, 또 그 동안의 주택에 대해서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텐데... 이 집을 설계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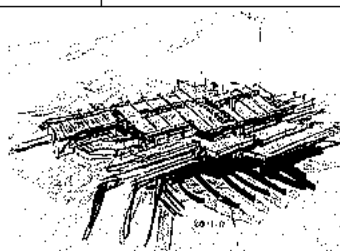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앞서 얘기한 몇 가지와에, 먼저 중정의 나무 문제인데,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가 변하는 것을 도면에도 표현하면서 활엽수를 심기를 권하였는데 부득불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활엽수로 바꿔 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무가지 사이로 마루와 천체가 하나로 보아야 되는데 대나무는 공간을 막을 뿐입니다. 그 나무가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또 나무가지가 지붕을 뚫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기를 바랐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고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앞의 축대를 단면에서 보면 직각으로 잘랐는데 시공 현장에 가보니깐 사이사이 꽃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경석 쌓기로 하고 있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건축주도 나중에는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공간감이 명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축대나 물길 등 옛날 우리의 돌담형식 등 주변조경이 잘되어 있어 소위 일본식 정원석 쌓기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텃밭에 보통 건축주 같으면 잔디를 심을텐데 앞으로 거기에는 채소를 심어서 생활텃밭으로 사용하신다기에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용훈 _____ 프로젝트가 큰 경우에는 비교적 시공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작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시공자의 퀄리티에 대해서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에서는 그런 점이 없었습니까?



한계령 휴게소



한계령휴게소 스케치



부암동 주택(95)

류춘수 _____ 시공은 설계, 시공, 인테리어의 경험을 가진 시공자가 했습니다.

주택공사는 웬만큼 잘해서 주인한테 예외없이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데 정말 다행하게도 이 집은 시공을 잘했다고 건축주가 만족해 합니다.

조용훈 _____ 그렇다면 이 집은 상당히 행복하게 진행된 경우인데, 대부분 건축가들이 주택 등 프로젝트가 작은 경우에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빗어지는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면 주택을 통해서 건축가들이 상당히 좋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건설시장 시스템이 건축가와 시공자의 관계에서 특히 프로젝트가 작은 경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류춘수 _____ 예전에 그린벨트내에 규모가 크지 않은 주택을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마음에 드는 좋은 평면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무조건 대형 시공사를 선정하는 잘못으로 설계변경 등 시공이 엉망으로 끝나 세상에 발표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택공사는 정말 장인정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 _____ 이번에 재료를 쓰신 것을 보면 목재를 마감으로 사용하고 드라이비트로 외벽처리를 했는데, 국내 목조주택을 보면 실제로 목재는 썼지만 개념상으로는 대부분 미제주택입니다. 우리가 미제목조주택에 밀리고 있는 것은 그들이 경제성, 시공성 등을 개발한 것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상 목조건축을 방치해 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 P교수 주택은 목조주택이 아니지만 그 동안 목조주택을 많이 하신 경험으로 봐서 목조주택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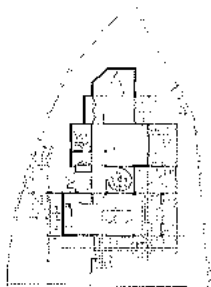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기존의 시공능가, 다시 말해

한국의 목조는 가구식 목구조입니다. 즉 2.4~2.7미터 폭 정도의 스팬과 보통 120~150밀리미터 정도의 기둥 사이즈를 갖는 가구식 목조기둥을 일정한 모듈로 간단히 세운 것입니다. 지금 소위 2×4월 시스템의 캐나다나 구미의 목구조가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데, 개념자체가 우리의 가구식에 비해 서양의 월구조는 플레시빌리티가 거의 없습니다. 각목을 가지고 일정한 스티드를 세우고 벽을 붙여서 구조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간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구식 구조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구식목조를 사용했습니다. 시골 농촌에서 토담집을 지을 때 그 구조를 사용했을 뿐, 대부분은 초가집이라도 벽은 항상 구조가 아니라 파티션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재립, 즉 삼베를 짠 것을 격자로 놓고 흙을 바른다든지 흙벽돌을 쌓는다든지 해서 그냥 그 자체가 철어도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양식 목구조는 벽 자체를 구조로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써 왔던 방식은 방의 용도에 따라 필요시에는 트고 닫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좀 더 개발하여 우리의 주택에 적용되도록 권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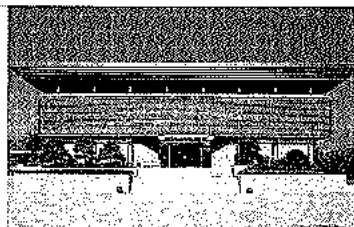
조적조나 2×4월식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의 전통적 가구식구조가 오히려 계속해서 써야 할 방향이고, 건축적으로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료는 미국의 미송을 들여와서 쓰더라도 구조는 가구식 목구조로 만들어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목구조건축이 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파티션의 재료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재료애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이자면 벽돌은 그 자체가 훌륭한 구조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마감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 벽돌은 완벽한 구조체인데 마감재로만 쓰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담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터무니없는 재료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구조로 칸을 간단히 하고 중간에 파티션도 좀 더 전통적인 흙벽돌을 쓰는 방법을 농촌에 보급하여 보편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골 작업실을 개조했는데 그것의 샘



부암동주택 내부



부암동주택 1층 평면도



해강 도자미술관(87)

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그대로인데 내부에 들어가면 아무런 장식도 없고 기존의 벽을 허물어 훨씬 쓸모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농촌주택이 건축가의 손을 거치면 정말로 쓰는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주택의 불필요한 외부마감 비용이면 뜨거운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등 단열과 내부의 편리한 기능적 요소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고, 산의 나무토막 하나 베어다가 세우면 그 자체가 충분히 구조가 됩니다. 왜 농촌에 짓는 주택을 자꾸 도시에 짓듯이 벽돌을 쌓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목구조는 철골로 대응해도 됩니다. 개념이 같고 철골과 목구조의 단면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심영섭 _____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정서와 상황에 알맞는 목조주택이 정착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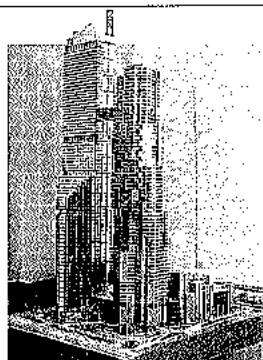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공서나 정부기관 등에서 앞장서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보급시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눈썹지붕이라도 만들어야만 허가를 내주는 우리의 현실이 마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붕은 슬레이트만 덮어도 됩니다.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다만 단열을 내부에 어떠한 방법이든 철저하게 해주고 다음에 목구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시골집의 경우 기둥을 2.7미터마다 박고, 중간에 파티션 흙벽돌을 쌓고, 슬레이트를 덮었는데, 나중에 보니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만 있으면 더웠을텐데 기둥 위에 합판 반자들을 놓고 흙을 쌓은 것입니다. 결국 슬레이트 경사지붕은 모양이 아니고 물흐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보다도 아주 실용적이고 경제적으로 건축가가 설계한 농촌주택을 보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 _____ 공간 김수근선생 밑에서 계시다가 독립하시면서 사무실 이름을 이공(異空, Beyond Space)으로 명명하셨는데, 이공을 얼마쯤 찾으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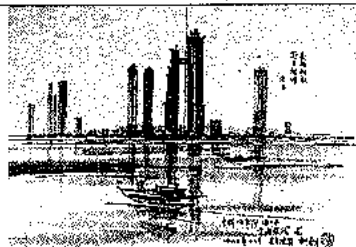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Beyond Space는 보다 나은 공간으로 Better Space의 다른 말인데, 이것은 건축가가 평생 동안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과정(Process)이지 결과(Result)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찾는다면 내가 죽었을 때 부분부분에서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이지만, 행복은 편편히 흩어져 있는 것이지만 묻혀진 행복은 없고, 그것을 한꺼번에 모을 방법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Beyond Space도 내가 설계한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눈 밝은 사람만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P교수 주택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월드컵 상암구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충분히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삼하리주택에도, 리츠칼튼호텔 비상계단에도 Beyond Space는 있을 것입니다. 먼 훗날 그것들을 누군가 연구해서 모은다면 다행이겠지만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Beyond Space는 흩어져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심영섭 _____ 바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시 활발한 작업을 기대하며, 특히 월드컵 상암구장이 좋은 작품으로 탄생되어 2002년에는 당연히 한국의 건축가 류춘수의 작품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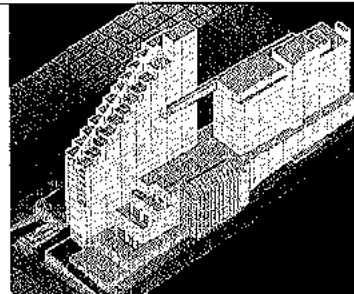
류춘수 _____ 고맙습니다.



중국 868타워 모형(92)



868타워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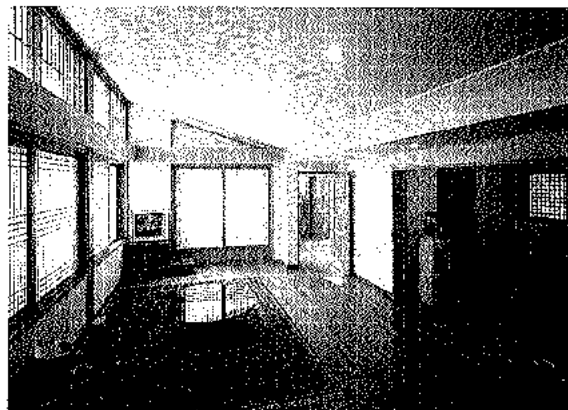
리츠칼튼호텔(90)

욕심없는 건축, 편안한 집

Not Greedy Architecture, Comfortable House

조용훈/ 안성산업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by Cho Yong-Hoon



P교수 주택 내부

주택건축, 그 영원한 건축의 본질

무릇 건축의 비평에는 작가론, 양식론, 형태론, 공간론, 기술론 등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나 그것이 주택작품일 경우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주된 이유는 굳이 거창한 주택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택은 인류의 등장이래로 건축의 시발점이자 귀착점으로 우리 건축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즉 건축에 있어서 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항·병원 등의 공공시설들은 대규모, 대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그 시대를 화려하게 선도하는 기념비적인 속성이 많지만, 주택설계의 경우(특히 단독주택)는 우리 건축전문가가 우리 시대의 일반대중 즉 사용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또한 그 완성된 작품이 그들의 생활을 직접 담아야 하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의 경우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규모 때문에 발생하는 설계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가로서의 건축가의 배려 및 관여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일반대중이 건축가에게 요구하는 일차적 기대와 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사이의 근본적 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작품과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인테리어설계가 포함되는 업무의 과중함에도 건축주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반영시키는 생활론적인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주택에 대한 평가(특히 거주자가 거세된 고건축이 아닌 현대주택의 경우)는 거창한 양식론이나 작가론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생활론적, 그에 따른 기능과 공간적 측면, 그 집에 사는 건축주 즉 사용자의 만족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이 작품의 경우 주변을 규정짓는 도시적 환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론적 측면 또한 배제한다.

한옥에의 집착으로부터 살기 편한 집으로

이 주택은 1995년 부암동주택이후 약 3년만에 대중에게 소개되는 작품으로 그동안 작가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중국 868타워의 무산이후 참작했던 변화의 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즉 한계령휴게소(1979)에서 시작되고 갈현동 소나무집(1982), 삼하리 주택(1986)을 통해서 가구식 구조와 목재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일관되게 볼 수 있다면 보다 최근인 90년대에 들어서 남한산성 주택(1994), 부암동주택(1995)은 한옥의 재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한 그의 경북 봉화의 작업실과 이 주택에서는 그러한 과도한 형태에의 추구나 목재디테일에 대한 집착, 한옥의 재현에의 강한 집념에서 벗어나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형태나 공간, 디테일이 다소 희석되어 있는 편안하게 비워진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작가는 이미 많은 글을 통해 소개되었듯이 비어있는 불교의 정신에 심취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중국 프로젝트 이후 발표된 이 주택에서 읽을 수 있다면 필자의 논리적 비약일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집착에서 다소 탈피하고 있다고 해도 이 주택에는 과거 한계령휴게소에서 시작된 가구식 구조와 목재(특히 한국산 소나무)사용이 여전히 보이고, 갈현동 소나무집에서 도입했던 인공마루마당의 도입과 그 가운데의 수목, 장지문의 사용과 툇마루의 도입 등 한옥에의 미련은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요소들은 작가가 버릴 수 없는 건축어휘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에서 보다 성숙된 비워진 마음을 찾는 이유는 그동안 집착했던 한옥기와, 박공지붕을 벗어나 지붕형태가 다소 자유로워져 서구적인 들어 올려진 모습을 하고 있어 과도한 형태에의 추구의지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작가가 그동안의 형태적, 공간적 집착에서 벗어나 사용자 및 건축주의 편안함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양보하는 보다 큰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 비평을 위하여 작가와 함께 방문했을 때 보여주었던 건축주의 만족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촌적 지리와 농촌적 토지, 도시적 생활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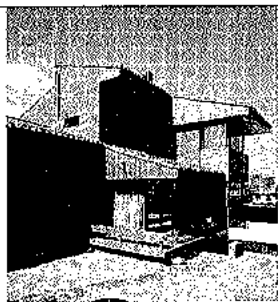
건축의 성격을 규정짓는 대지는 원주에서 충주로 연결되는 19번 국도에서 백운산쪽으로 휘돌아 들어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대지는 원래 밭이었던 곳을 대지로 형질변경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주위는 울창한 나무숲이 아니라

아직 밭으로 사용했던 땅이 다소 황량하게 남아있는 곳이므로 대지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농촌적이다. 주변의 경관은 매우 수려해서 대지경계선 너머로 동북쪽엔 오봉산이 지척에 있고, 남동쪽엔 백운산이 멀리 있어서, 우리의 전통가옥이 갖고 있던 배산의 지형을 이상적으로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배치의 출발점은 북쪽에 큰 산을 등지고 있는 전통적 지형과, 산촌이 갖는 지리적 성격, 대지가 갖는 농촌적(밭) 형질, 건축주가 갖고 있는 도시적 생활의 폐쇄성,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우기 대담과정중에 거론되었던 대지로의 형질변경 상한선 200평이라는 변수는 이 넓은 밭을 다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을 만들어 내었고, 공사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조정설계를 본격적으로 건축과 연결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작가는 최근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주택에서 유행처럼 쏟아지고 있는 홀집형 주택과 마당을 둘러싼 'ㅁ' 자형 배치를 포기하고, 안방과 거실사이에 포 마당을 자그맣게 도입하여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그가 공간시절부터 즐겨 사용했던 기존 수목의 보존을 통해서 나오는 평면개념의 구축이 아니라 인위적인 작은 마루마당(테라스마당으로 명명코자 함)을 도입해야 했으며, 또한 거실내에 단이 약간 높은 마루(누마루라 칭하고자 함)를 도입하여 부족한 마당개념을 실내에서 향유하는 것으로 한정시켜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기본요소(테라스 마당과 누마루)는 평면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하여,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작가가 한계령휴게소 및 갈현동 소나무집이후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개념과도 일치하고 있다.

주변환경을 향한 건축가의 개방성향과 건축주의 폐쇄성향사이의 갈등

이 주택의 평면구성은 앞서 설명한 테라스 마당과 누마루라는 마당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원리속에 거의 건축계획원론에 충실하게 되어 있다. 북쪽에 현관, 부엌, 화장실을 배치하고 남면에 거실, 안방 등을 배치하여 늘 사용하는 실의 향을 적극 고려하였으며, 그에 따른 조망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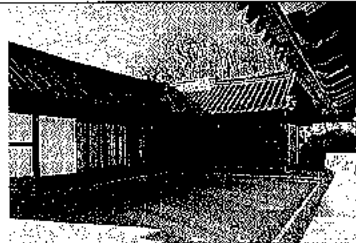
축주의 폐쇄적 생활에서 나오는 겹집의 논리를 채용하였으나, 침실/작업공간(서재)과 부엌/손님맞이공간(거실)사이에 앞서 말한 테라스마당을 둠으로써 부분적으로 홀집의 개방성을 추구했다는 점이 평면구성상의 가장 큰 줄기로 보여진다. 남향의 이 점을 최대한 향유하기 위하여 테라스마당과 연결되는 앞마당으로 진입하지 않고 계획원론대로 북쪽으로 진입하는 현관을 둠으로써 앞마당이 남에게 침범받지 않는 건축주의 폐쇄적 생활을 보호토록 하였다. 사방이 모두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 남, 서방향으로 큰 창을 배치하였으며, 현관을 들어섰을 때 평면구성의 가장 큰 개념인 테라스마당으로 연결되는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유리창을 설치하여, 시선을 1차적으로 바깥 경관(앞마당)과 연결시키는 것과 동시에 낮은 공간인 거실과 밤의 공간인 침실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효과를 추구했다. 이는 삼하리주택에서 작업실을 별도로 분리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지만, 내부공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지붕을 연결시켜 외관상 하나의 건물로써의 이미지를 강화한 점은 삼하리주택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작가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사방의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의 최대한 확보로 이를 위해서 낮은 창틀과 전통주택이 갖고 있던 툇마루를 서재뿐만이 아니라 거실바깥에도 도입하려고 하였다 한다. 그러나 건축주가 외부사람과의 접촉을 극히 꺼리는 폐쇄적 성격에다가, 외진 곳에 홀로 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앞이 시원하게 터진(남서향) 앞마당으로 툇마루 및 전면개방창을 도입(특히 거실)할 수 없었던 탓에 결국 내부완결형의 평면을 채택하였고, 이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방 및 거실에 고창을 도입하여 남서향으로 들어 올려진 지붕형태를 도출하였다. 결국 평면이나 입면의 경우 작가가 지향하는 주택의 개방성과 건축주가 고집하는 폐쇄적 생활사이에서 절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고 보여지며, 이점 때문에 필자는 이 주택을 과도한 조형의지나 인위적 공간구성을 절제한 욕심없는 건축, 그래서 건축주/사용자에게 가장 편안한 집으로 구현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작가가 지향하는 개방성은 고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얻어지며, 건축주가 지향하는 폐쇄된 생활양식은 거실바닥에서 약간 올라간 유리창으로 절충되었다.



역삼동 J씨 주택



갈현동 소나무 집



남한산성주택

거주자의 책임인 작품의 완성

서두에서 지적하였듯이 주택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건축주와 사용자가 일치하는 속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의 성격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 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주관이 뚜렷한 탓 (한국 최고의 지식인층)에 건축가와와의 절충에 실패한 곳에는 여지없이 작품을 훼손시키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지붕형태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문제는 고창에 방범그릴을 설치하여 그 조형성을 훼손시킨 점이다. 일차적으로는 건축가와 상의없는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나 또한 미리 그러한 가능성을 예견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작가가 못내 아쉬워하는 점으로 준공후 지하층의 주차장 필로티에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한 것도 미천가지 맥락이다.

이러한 건축주의 폐쇄적 성향에서 발생하는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관에서 들어서서 강조한 전면 조망창이 서재 및 거실에 들어왔을 때 연결되지 못하는 점이다. 방범을 고려한 그릴을 설치하는 한이 있어도 현관 복도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들어왔을 때 보이는 서재의 서재창과 동측의 하얀 벽이 바닥까지 닿는 전면유리창이었다면 시선의 극적 효과를 기할 수 있을 뿐더러 상기 건축주의 폐쇄적 성격에 기인한 공간구성에 다소 숨통을 틔웠을 것이고, 현관복도에서 이어지는 가상의 복도를 통하여 마당을 도입한 것 같은 커의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면 및 입면구성에서 작가가 즐겨 쓴 또 한가지의 특징은 그동안의 작가의 일관적인 건축어휘로서 전통적 소재인 창호지문(장지문)을 모든 서재 및 거실창에 도입한 점이다. 이는 남향에서 들어오는 직접광을 부드럽게 여과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재로 마감한 모든 콘크리트기둥과 어우러져 실내에서의 전통적 공간분위기를 최대한 연출시키고 있다. 실내 및 실외에서의 모든 목재마감처리는 매우 깔끔하게 되어 시각적, 공간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창을 제외한 모든 문이 목재양면플러쉬 문으로 통일되어 있어 다소 지루한 감을 주고 있다.

최소한 거실로 통하는 문만이라도 격자가 있는 목재유리창이었으면 거실로의 시각적 개방감과 함께 자연스럽게 손님접대기능을 갖고 있는 동선으로 유도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앞서 지적한 대로 동측에 전면유리창을 설치할 수만 있었다면 커의 분할을 통한 가벼운 공간구성효과까지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건축주와의 대담시 제기되었던 서고의 설치가 건축가의 제안대로 지하층 필로티와 연결되어 앞마당 지하에 설치될 수 있었다면, 앞서 지적된 주택의 폐쇄성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또한 예산상의 부족과 토지형질변경의 한계로 인해 정리되지 못한 조경의 마무리를 통하

여 작품의 완성을 볼 것이다. 건축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대해 본다.

토종 건축가, 류춘수: 김수근 건축을 넘어서 세계적 건축가로

필자는 대학 4학년때(1981년) “공간”에 실습을 나가면서 작가와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당시 김수근 교수 밑에서 고 장세양씨와 더불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촉망받던 실장으로 기억한다. 그후 “공간”에서 목동아파트 설계(1985년)를 하면서 직접 지도받는 영광을 가졌었는데, 그의 유명한 그림 실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테크놀러지 및 디테일에 대한 집요한 추구와 더불어 그의 해박한 한문실력, 당시 공간의 사내지 “공간”에 고정칼럼을 연재하는 문장실력과 철야실력은 모든 후학들을 경악시키는데 충분했다. 그후 약 10여년의 기간을 밖에서 존경스러운 눈으로 한국건축계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당시 김수근건축이 추구하던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끝까지 시도하는 몇 안되는 “공간”의 후계자그룹에서 단연 돋보이며, 이는 얼마전 타계한 고 장세양씨 때문에 그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원고의뢰를 받고 건축가와 대담을 하는 날, 작가는 월드컵 주경기장 당선 축하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굳이 여기서 토종 건축가 운운하는 이유는 최근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국건축가들의 한국 현상설계의 참여와 외국에서 수학한 많은 젊은 건축가들의 등장, 대기업을 앞세운 대형사무실의 위세에 맞서서 척박한 한국의 건축현실에서 치열하게 성장해 오며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뿌리를 내려와 이제는 세계속에 우뚝서는 원로(?) 건축가를 다시 갖고 싶은 것이다. 그것도 외국에서 수학한 것도 아니고, 식민지 건축의 한계를 갖고 있는 2세대 건축가들을 극복하면서 이 척박한 땅에서 치열하게 자라고 배운 우리의 토종건축가에게서...

그가 한계령후계소를 설계할 때 악착같이 추구했던 목재와 철골의 디테일보다, 최근 경영상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중국 868타워의 명성보다 그를 더욱 우리 시대를 끌고갈 원로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찍이 동남아시아의 건축가들과의 교류를 쌓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서 아시아건축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점이다. 하나의 작품에 혼신의 힘을 쏟는 열정야야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건축가들의 공통된 장점이겠지만, 국내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멀리 해외로 향하는 그의 열정은 김수근 건축이 추구했으나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욕심없는 건축, 건축주의 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조형의지를 접어들 수 있는 그의 비워진 마음속에서 바로 이런 큰 건축을 향하는 대가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김종업, 김수근 선생의 타계이후 또 하나의 거장을 바라는 우리 건축계의 바람이라면 무리일까.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작가와 당선된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진행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 필자는 건설회사의 설계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함들게 인원을 많이 보강하지 말고 제일 인원이 많이 필요한 실시설계를 어차피 턴키방식이니 건설회사에 위임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선생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직 까지도 남아있는 공간스타일, 즉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감리까지를 모두 총괄하는 기존의 방법에 대한 미련이 있는 듯 했다. 물론 필자도 이러한 기존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차제에 이 글을 통해 본심을 말씀드리면 작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선생님의 건강에 우리가 갈까 염려하며 고 김수근, 장세양씨가 불의에 타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작품과 경영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우리 설계업계의 무리한 업무에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화, 국제화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후배들로서는 우리의 건축을 선도할 거장을 잃고 싶지 않으며, 이러한 세기에 그 골치아픈 수주/경영에 집착하지 않고 건축 작품 그 자체에 몰두하는 분업화된 쟁이기질로 끝까지 마무리해 가는 건축가의 모습이 그리운 탓이다. 이 쟁이기질은 몰두할 수

있는 곳에만 발휘될 때, 그 아름다운 로맨티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주택을 통해 보여준 그의 욕심을 비운 마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 이유이다. 경영자와 건축가를 분리할 수는 없을까. 이에는 구조도면을 구조설계자에게 넘겨주자는 필자의 뿌리깊은 주장과 함께 전문적인 부분은 후배들 혹은 전문경영인이 채워주길 기대하는 거장의 여유로움을 기대해 본다. 물론 본인이 직접하면 가장 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워낙 짧으니... 선생님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완성될 때쯤이면 이제 그 답수룩한 장발머리에서 단정하게 무스를 바르고 뒤로 넘겨서 국제 비즈니스계에서 화려하게 교류하는 세련된 건축가 혹은 21세기형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덧붙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IMF시대의 상념 한가지 더... 최근 우후죽순 솟아나고 있는 서구의 통나무주택에 대항하여 우리 토종건축가의 작품이 대안이 되고 이를 미국으로까지 수출할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서는 디테일에 대한 집착보다는 통나무주택보다 더 싸게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건축가들의 전문주택에 대한 애정과 사업감각, 생산감각, 건축산업계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House and Housing: An Everlasting Essence of Architecture

Several approaches to architectural criticism exists: Frames of the artist, style, form, space, technology, and etc. But in the case when the object is a work of housing, which is the primary and basic form of built architecture, a different point of view should be adopted. Whereas facilities such as offices, culture centers and sports centers require large amount of capital and tend to contain a monumental value, housing is a field where the architect comes in direct contact with its users, whose functional demands according to each lifestyles should be fulfilled. It is here where, due to financial restraints from the built scale, the architect's role as a professional is at times overruled. The architect's ideal and reality is seldom revealed with such precision. The comprehension and resolving of the client's requests onto every details, even

into the subtle parts of the interior, are indeed an unusually heavy task for the artist.

From Persistence on Concept of Traditional Housing to More Practical Ideas

This work is the first housing project of architect Ryu Choon-Soo, since the Buahm-dong Housing of 1995. It displays the architect's transformations of style after the cancelling of the ambitious 868 Tower Project of China: From Hangaeryung Rest Station(1979) to Pine House of Galhyun-dong(1982) and Samha-ri Housing(1986), he concentrated on tectonic structures and details of wood structure. More recently, with Namhan-sansung Housing(1994) and Buahm-dong Housing(1995), the reconstruction of traditional housing images became his prime objective. But the latest work, his own studio and housing in Bonghwa, Kyeongbuk Province, shows that he



88올림픽 제조경기장



대전EXPO 대전시관



자미온사옥

is now into works without acquisitiveness, a rather fluid entity, without too much emphasis on form, space and details, meeting the needs of its users. This change may be linked to the architect's recent turn to a faithful Buddhist.

Still, the House of Professor P displays various elements from his previous works: the tectonic structure made of wood (especially Korean pine trees), the courtyard of artificial Maru, or the use of Toe-Maru. They seem, now, to have formed the architectural vocabulary of the architect. Within these uses, we can see his obsessive formal trends are somewhat diluted in that the roof is now shaped in a Western way. This more open attitude, escaping the bound application of traditional forms, found its value in the client's satisfaction, which, when I visited the house with the architect, saw for myself.

Conflict Among Mountain Geography, Agricultural Topography and Urban Life Styles

The site is located in an isolated area, around Mt. Baekwoon from the national road connecting Wonju and Chungju. As it was previously used as a cultivating field, the surrounding condition was not yet that of a dense forest. Nevertheless great vistas could be found in each directions, establishing an ideal setting of a traditional housing.

The initial problem of the layout was to form harmony among three elements in conflict: The traditionally meaningful condition of the large mountain on its rear (north); the geographical aspect of the mountains; and the demand for an urban, closed condition of the client. Constraints were formed from the building code limitation of the area's residential use, and the confined budget, which disabled an active link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design. This resulted in the discard of the ever-so-popular (among young practitioners) housing types, and the architect had to be content with the insert of a small courtyard between the master bedroom and the living room. This factitious use of nature (which I shall call a terrace court) is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his style in the Group Space-period, and shortage of courtyard space had to be supplemented by the Maru of lifted level (namely the NuMaru) in the living room. These two elements act as a core concept of the project, which, as I above mentioned, can be traced back to the Hangaeryung Rest Station and Pine House of Galhyun-dong.

Conflict Between the Architect and the Client: the Open Versus the Closed

With the application of terrace court and the NuMaru, the rest of the layout accurately follows the regular planning principles of daylight control and providing good vista. The injection of the terrace court serves as a subtle opening within the a closed envelope, adjusting to the urban lifestyle of the user. To make the most of the merits of southern direction, the front garden connected to the terrace court does not act as the main approaching road. It is made on the rear side, expelling any outer interferences in the front garden.

As every direction commanded a fine view, large openings were made in the south, east and west, and as one enters the entrance, he is greeted by a window expanding the full length of the wall, opening up to the terrace court. Our vision here primarily gets linked to the front garden, and effectively divides spaces of day and night, i.e. the living room and bedroom. This may seem similar to the dividing method applied in the Samha-ri House, but is distinguished by it in that the indoor spaces are combined and the image of the whole as one-piece is enhanced by the connected roof. The idea of Ryu to invite the picturesque surrounding vista, which resulted in the low placement of windows and the use of Toe-Maru in many spaces, came in conflict with the client's inclination for closed space and the isolated condition of the site. An inner-sufficient plan was thus applied, and shortage of openings was solved by the use of clerestory in the master bedroom and living room, which in turn formed the lifted roof towards the southwest. It could be said the overall form was a natural creation of the interplay between the architect's formal wills and the client's functional demands.

The Completion of a Work is the Responsibility of Its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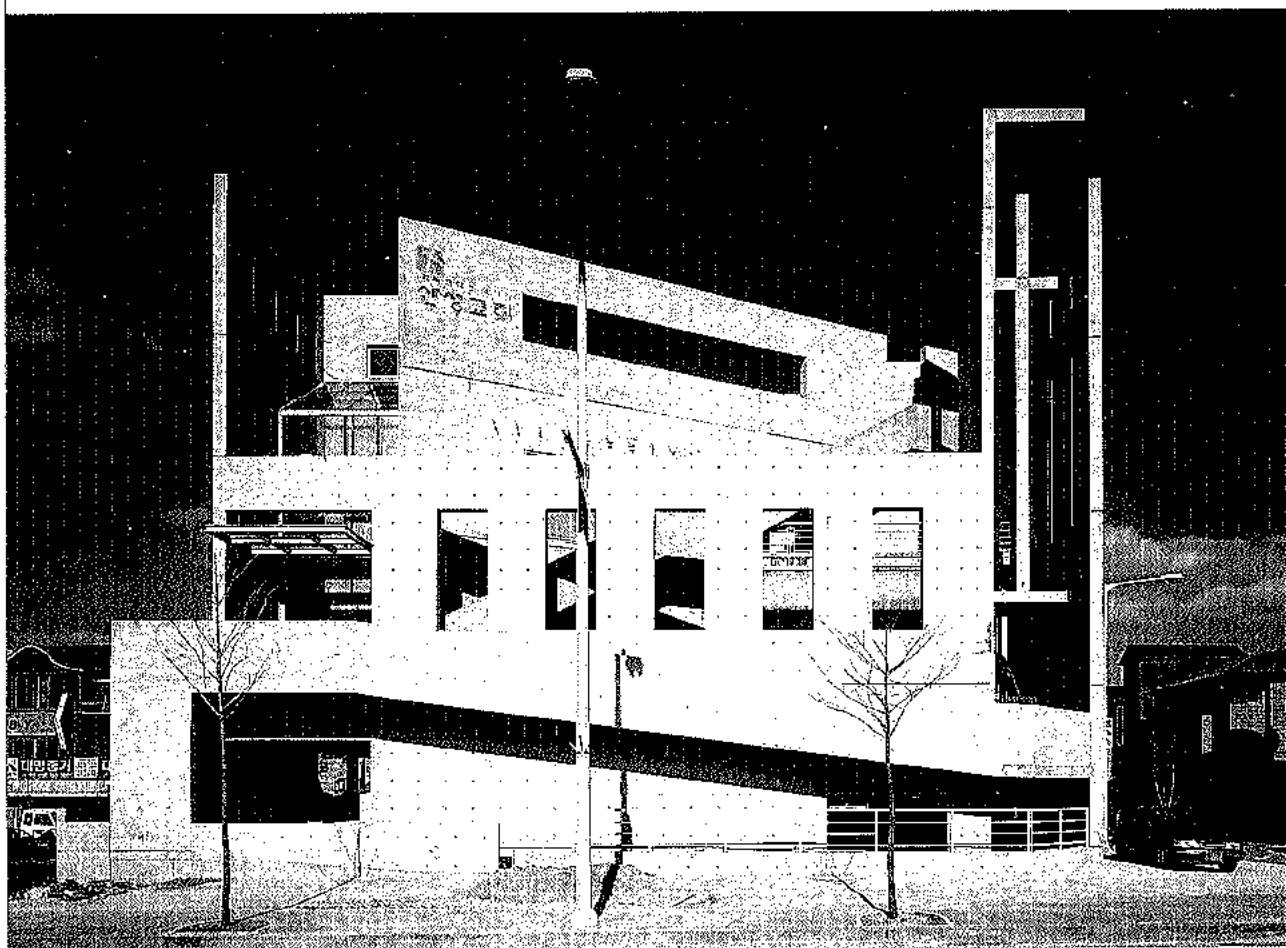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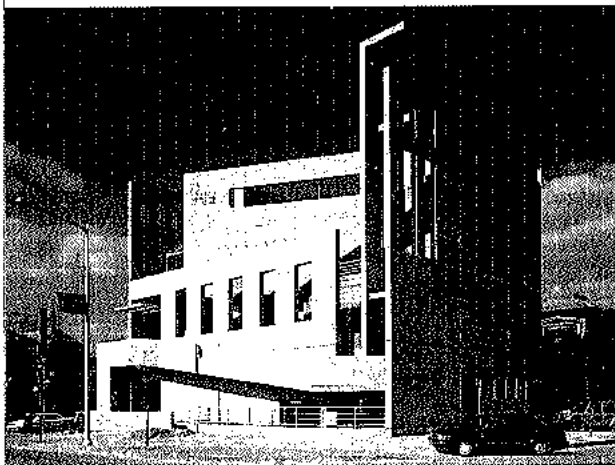
As mentioned in the beginning, housing is where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e architect and the client come in accordance. The influence of the client on the work is clearly evident in housing projects, and in this case, where the client has a very clear definition of his taste, traces of failed compromises between the artist and its client do heavy damage to the overall work.

The shape of the roof seems to have met affirmative reaction, but the addition of security bars on the clerestories is a definite formal discordance. The usual blame for these goes to the user, making adjustments without consulting the architect, but the architect on the first place should have anticipated these problems. Also an unsatisfactory point in this respect is the post-completion adding of the aluminum doors in the parking piloti. The client's preference of a closed structure also effected the discontinuing of the entrance's open vista to the study and living room. Placing a huge window screen, covering the west of the study and the white wall of the east, would, even with inevitable installation of security barriers, have compensated for the closed layout, and an imaginary corridor from the entrance hall would have elasticized the layers of space. The use of paper-finished windows, a constant feature of Ryu, controls the direct intrusion of sunlight, and along with the concrete structure finished with wood panels, creates a traditional atmosphere. The application of the same doors to every instances remains as something less successful. During a conversation with Ryu, he mentioned a future addition of a book storage, in the basement of the front garden connected to the underground piloti. It seemed like a good way to overcome the present closed condition. I hope the client preserves his interest and love for his housing, and have an open ear for meaningful modifications.

산성교회

Sansung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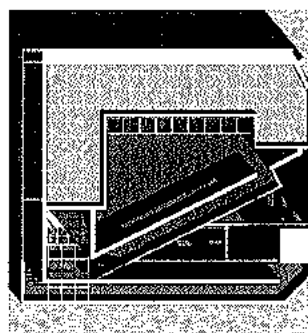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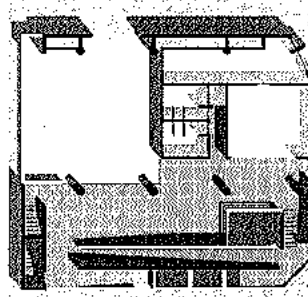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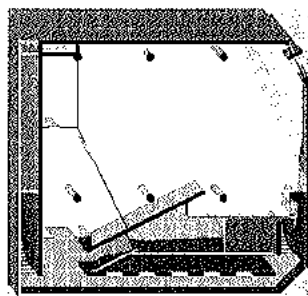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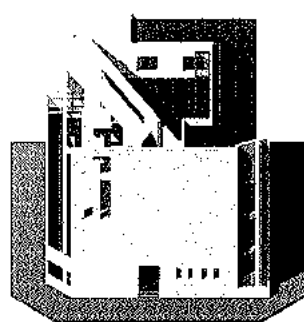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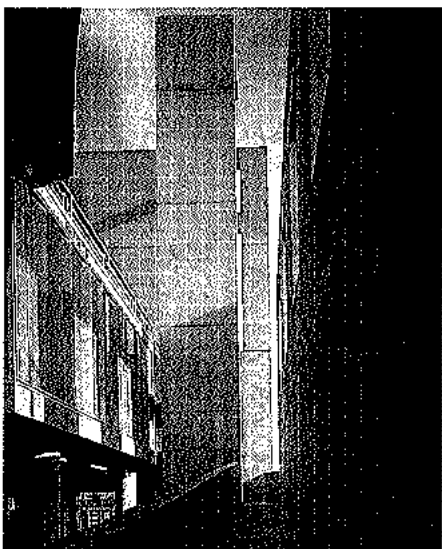
김인철 / 건축사무소 아르카움
Designed by Kim In-Cheol



일산의 장발산 공원 북쪽 자락과 주거지역이 이어지는 한 모퉁이에 교회 지리가 지정되어 있다. 계획도시의 알뜰함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만들어진 도시와 건축은 일회적이고 가설된 장치처럼 보인다. 시간의 무게가 빠진 가벼움을 지탱하기 위해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난감한 곳이다. 삼면의 도로와 이웃의 빈터로 둘러싸인 대지는 고립되어 있다. 어딘가를 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과 교회를 안 온하게 자리 잡으려는 욕구가 서로 부딪힌다. 남쪽의 큰길과 그 너머의 공원을 향한 열림을 주변을 닫아 얻어진 공간으로 끌어들었다. 열린 공간은 스며드는 자세로 비스듬히 자리잡혀 있다. 시방에서 모여드는 방향은 열림에 흡수되어 회당으로 올라 이어진다. 교회의 상징을 품고 있는 탑벽과 공원을 마주하는 가벽 사이로 경사로와 계단은 경계를 넘나들며 오르는 길이다. 노출콘크리트의 웅벽은 가두기보다 머물기를 가능케 하는 장치이다. 자연과 도시의 공간을 나누어 갖기 위해 웅벽은 위치만 잡고 있다. 지하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기능을 위한 계획은 웅벽의 사이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틈은 빛이 새어드는 곳이다. 곳곳에서 스며든 빛은 다시 모여 밝음을 만든다. 빛으로 가득찬 곳에 예배를 위한 공간이 있다. 구획으로부터 벗어난 더 오른 곳은 빛과 공간이 원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북한산 봉우리와 서해의 낙조가 멀리 어우러지는 곳에 목회자의 처소가 있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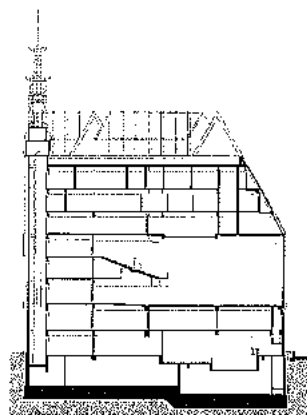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332		
대지면적	635.70㎡	건축면적	348.59㎡
조경면적	63.87㎡	연면적	1,128.49㎡
건폐율	54.84%	용적률	103.73%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 - 에폭시멘트, 벽 - White Wash 합판, 천장 - White Wash 합판		
외부마감	바닥 - 목재 널빤지, 벽 - 노출콘크리트, 지붕 - 물달 누름		
설계담당	박병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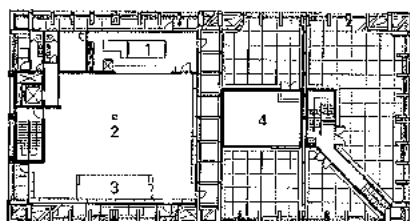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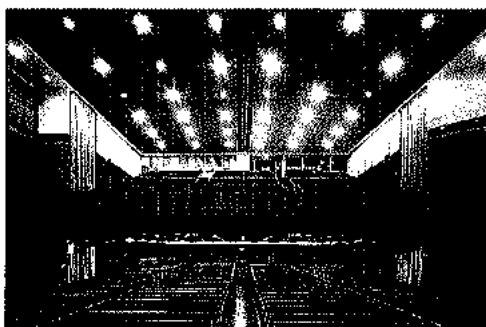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8-9
지역지구 일반상업, 주차장정비, 도시설계, 1종미만
대지면적 1,404㎡
건축면적 885.40㎡
연면적 5,704.94㎡
건폐율 63.06%

용적률 329.24%
구조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8층
설비방식 F.C.U
주요내장 화강석판석, 컬러페인팅
주요외장 화강석, T=24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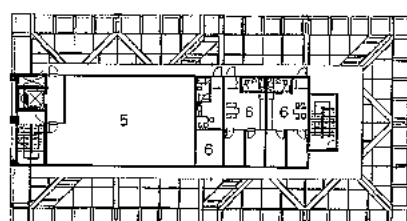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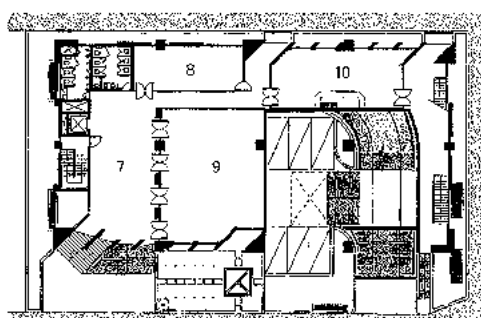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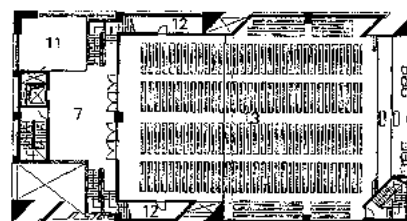
1. 주방
2. 식당
3. 소무대
4. 공조실
5. 옥외안구실
6. 객실
7. 로비
8. 서점
9. 지역문화센터
10. 카페
11. 테라스
12. 창고
13. 집화장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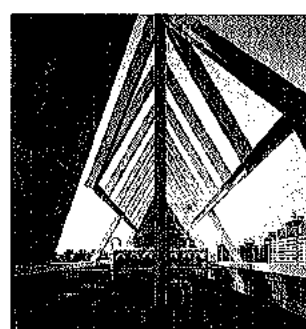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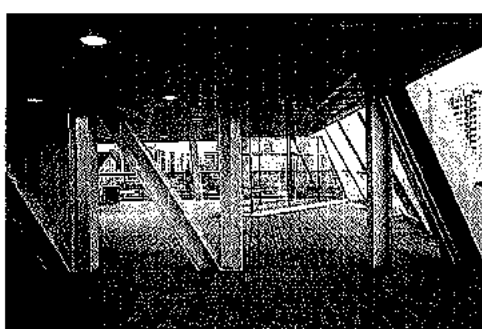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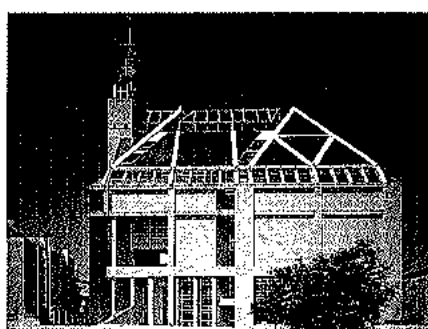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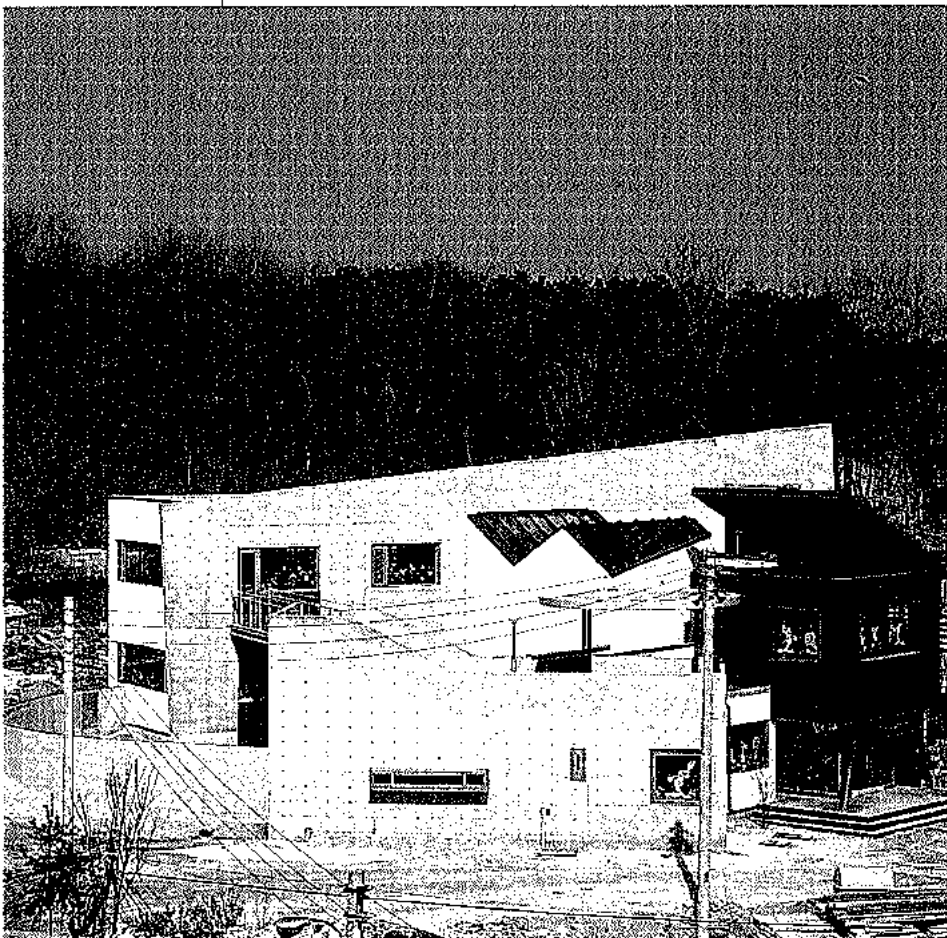
0 1 3 6m



대한어린이집

Dae Han Kindergarten

김효민/이로재 김호만 건축연구소
Designed by Kim Hy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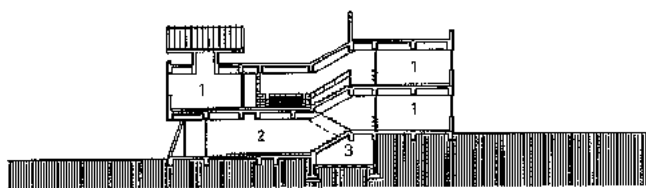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대지면적	1,066㎡
건축면적	321.91㎡
연면적	493.56㎡
조경면적	74.85㎡
건폐율	30.20%
용적률	46.30%
규모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바닥 - 체커프레이트/인조잔디/목제판, 벽 - 드라이비트/노출콘크리트, 지붕 - 갈바륨강판
설계담당	김성익, 정선희

무허가 주택, 야적장 등이 혼돈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대지는 후면의 산과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재개발 예정지역이다. 산을 배경으로 한 도심주거지역의 풍경이 미래의 주변 맥락일 것이다. 이미 이 지역에서 큰 규모의 어린이 학원을 운영해오고 있었던 건축주는 체험적으로 다수인이 집회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과 적극적인 야외학습 공간을 요구했다. 이것은 당연히 디자인의 목표가 됐다. 다목적 집회 공간과 야외학습, 유희장으로서 다양한 외부 공간을 기능케 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내부에는 계단을 겸한 관람석이 있으며, 상층부로 모두 오픈되어 천창이 있는 아트리움 형식의 다목적 홀이 중심이 된다. 이곳은 안마당과 투명 유리로 구획해 내외부 공간이 서로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는 행사시 1층 계단 관람석은 물론 2층, 중2층, 중3층의 각 레벨의 통로, 복도, 계단에서 그리고 학부형들은 1층 무대 측을 내려다 보며 참관할 수 있는 자연스런 집회의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지의 고저차는 반층씩 연결된 레벨 계획을 합리화시켜 주었으며, 이는 편안하고 재미있는 어린이 수직 동선으로 내부 공간의 변화를 연결한다. 조용한 공간으로 둘러싸인 좌측 안마당은 보는 정원인 동시에 놀이장, 학습장으로 쓰이는 공간이다. 이는 다목적 홀 하부의 작은 통로와 우측 마당으로 통하며 또다시 수영장장과 놀이 기구가 있는 오픈 공간인 놀이마당으로 통하도록 해 외부공간의 순환을 계획했다. 1층 옥상의 야외 교실은 간이 수영장장과 함께 건물의 외벽들로 둘러싸여 또 다른 성격의 외부 공간이 되고 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출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한 것은 이것들의 검침이 주제를 위한 비탕으로서 오히려 주제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확신에서였다. 불규칙한 대지형태, 고저차, 내외부 공간계획은 이상하고 신비로운 나라, 거인 장난감 왕국, 선물상자 등 처음 떠올랐던 치기어린 이미지와 함께 조형의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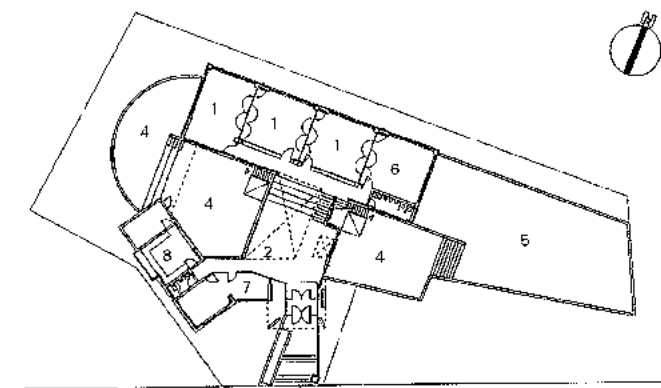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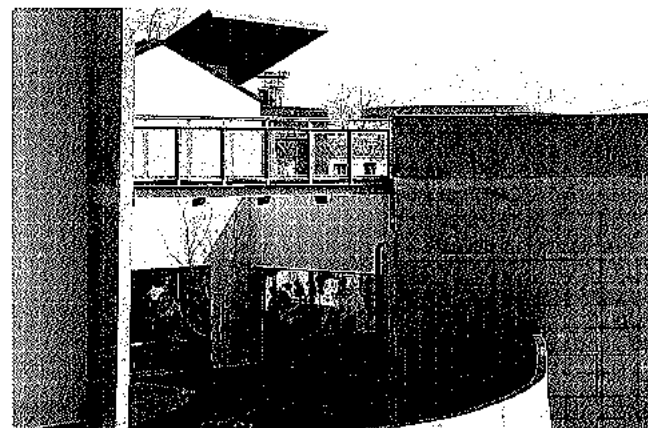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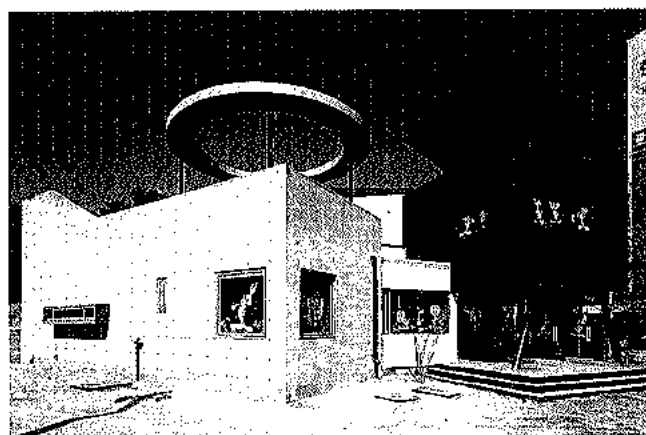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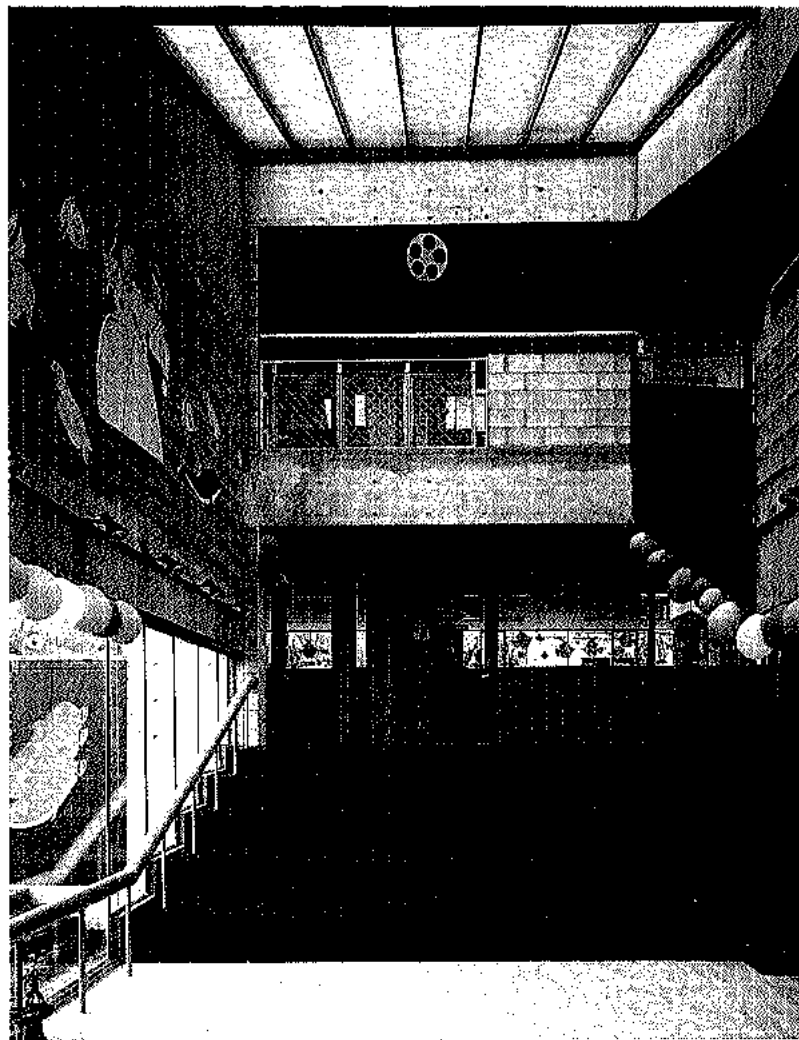
이 속의 어린이들이여, 자신들의 왕국으로 가꾸어 나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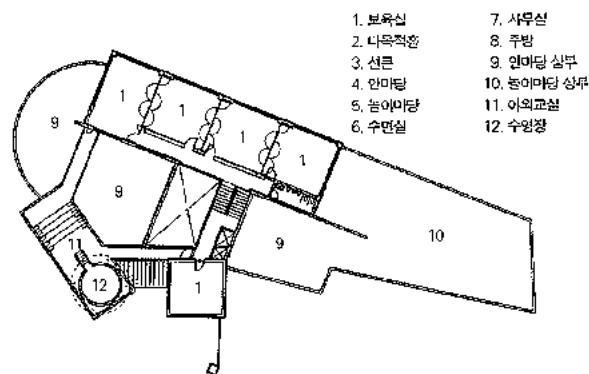
주단면도



측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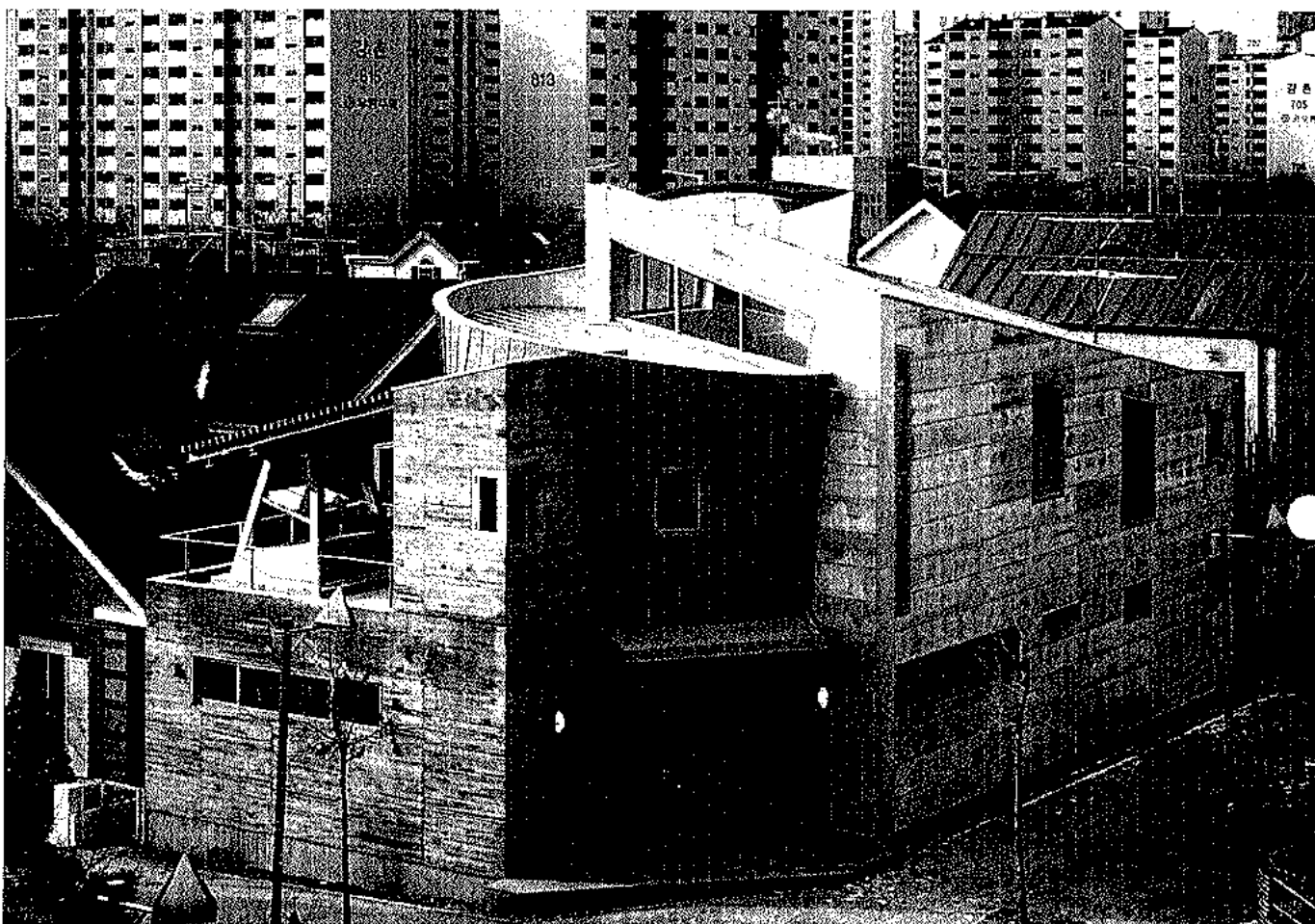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1. 보육실
- 2. 다목적홀
- 3. 선관
- 4. 안마당
- 5. 놀이마당
- 6. 수면실
- 7. 사무실
- 8. 주방
- 9. 안마당 상부
- 10. 놀이마당 상부
- 11. 야외교실
- 12. 수원장

일산주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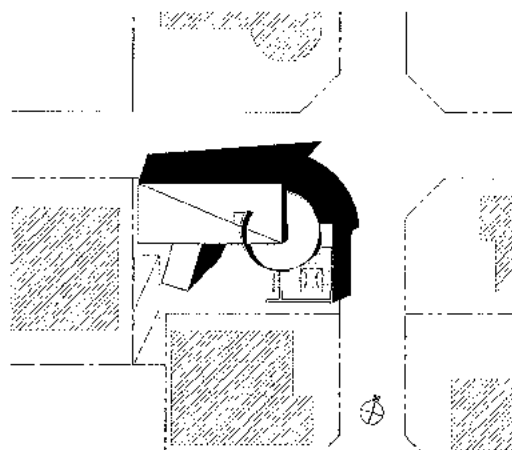
Ilsan Residence 1

임재용/ 건축사사무소 오.씨.에이
Designed by Lim Jae-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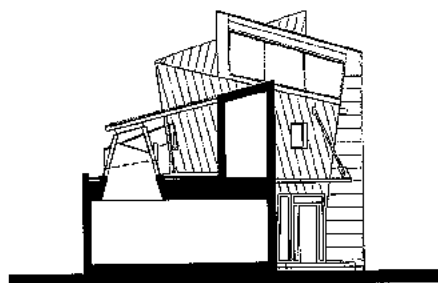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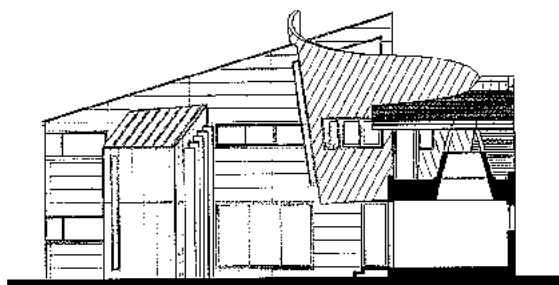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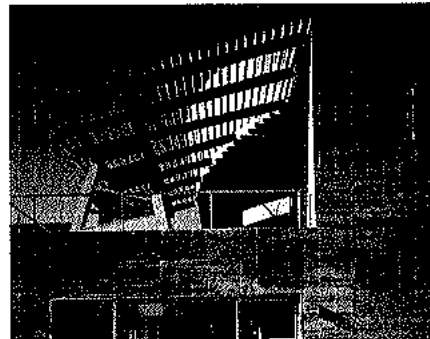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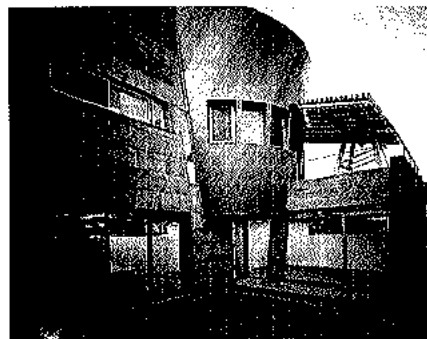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71-3
지역지구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239㎡
건축면적 116㎡
연면적 250㎡
건폐율 48.44%
용적률 80.2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부분 철골구조
외부마감 벽 - 라민징크판, 송패널 패턴 노출콘크리트,
시멘트 베이스 패널,
지붕 - 갈바륨 강판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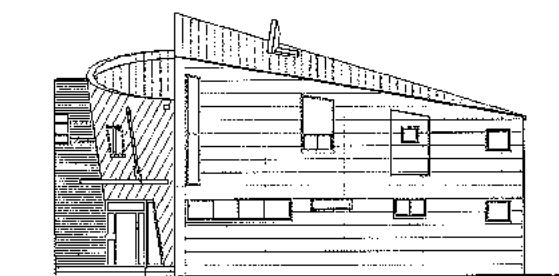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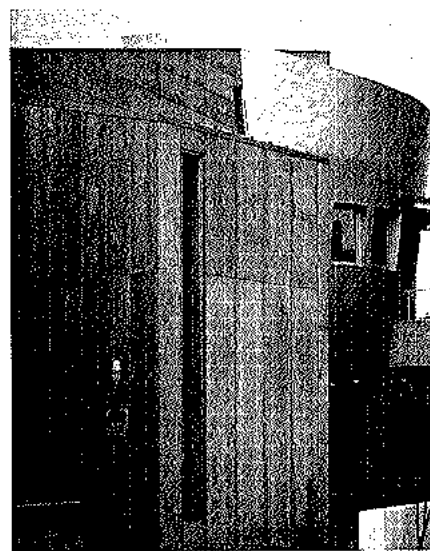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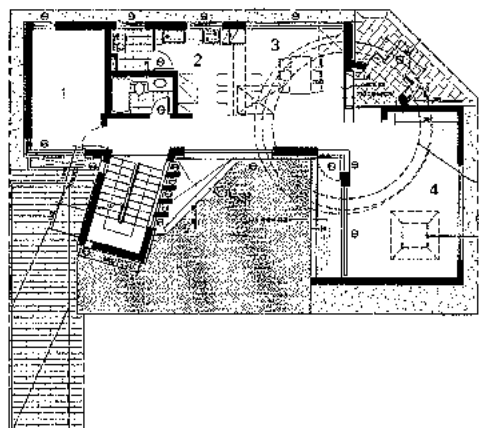
거실 천장 단면도



마당측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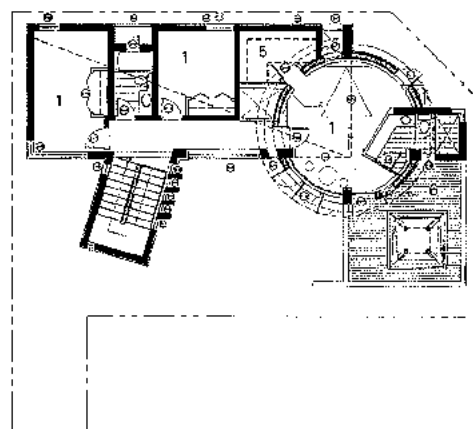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1층 평면도

1. 침실
2. 부엌
3. 식당
4. 거실
5. 드레스룸
6. 욕조



2층 평면도

삼성자동차 성수A/S 센터 Sungsu Afterservice Center, Samsung Motors

한상묵·김보희/ (주)삼우설계

Designed by Han Sang-Mook & Kim Bo-H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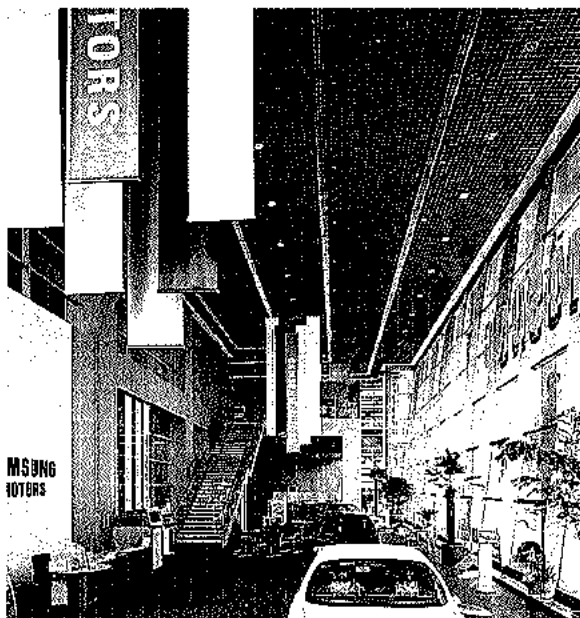
서울 도심의 유일한 공업지역인 성수동에 위치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자동차의 고객센터 센터인 이 건물은 자동차 판매 및 A/S Center라는 국내 최초의 새로운 자동차 판매점으로 계획되었다. SI계획에 따라 Bright Silver Color의 AL Curtain Wall이 주는 금속의 차가운 질감과 맑은 유리에서 비치는 표피의 투명성이 건물전체의 이미지를 자아내어 기업이미지를 건축적 형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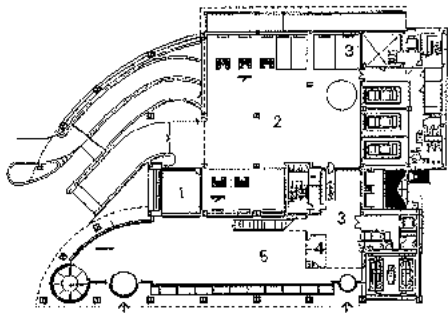
대지는 전형적인 자동차 관련 도심형 공장지역인 성수동에 위치, 관련공업과의 연계성 및 인지성을 확보하여 삼성자동차 전시영업장 및 A/S Center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평면계획은 전시판매와 상담, 고객의 휴식, 정비라는 다소 상충되고 새로운 배치형태를 만족하기 위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계획되었다.

주요 Focus가 되는 Display Drum Glass를 전시영업장인 1층부분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THK12 곡면유리의 단 순함과 기하학적 Volume감을 살리기 위해 수직 Bar는 Drum 양끝단에서만 설치되고 Drum Glass 중간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Design에 따라 수직 하중을 지탱키 위해 Structural Glazing의 수평 Bar를 뒤통 슬라브에 고정시켜 내려오는 수직 STL.Bar에 연결하여 역학적 Balance를 이루는 Suspension System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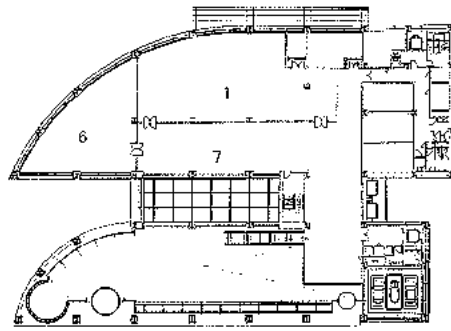
구조적 해석과 시공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었다. 앞으로 여기에는 Display Turn Table이 설치되어 다양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또한 삼각형의 AL Curtain Wall Bar는 격자형이 주는 단조로운 표피의 질감을 뒤흔든 삼각형의 기하학적 Moduling이 수평적 Image를 강조하고 있다. 격자형의 Frame내에서 수평 Bar의 뒤흔든 질감이 High Tech, Modernism을 상징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역경사 유리의 전시영업장 Glass Curtain Wall은 Hinge Type의 STL Bar가 기계미를 과장하고 있다. 다소 무리했던 Detail의 시도가 명쾌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생긴다. 이 부분 역시 지지하는 STL Bar의 엄격한 형태유지와 제한된 크기의 단면적으로 인해 구조적해석과 미학적 어려움을 동시에 만족시켜주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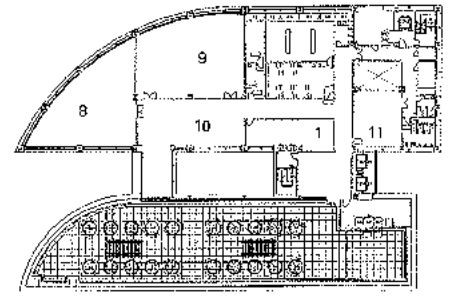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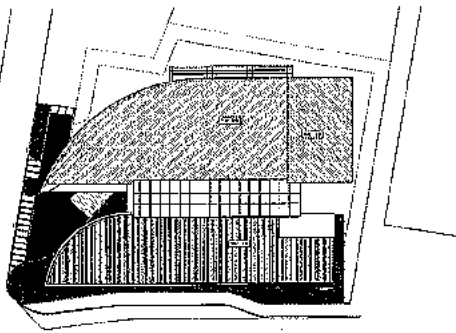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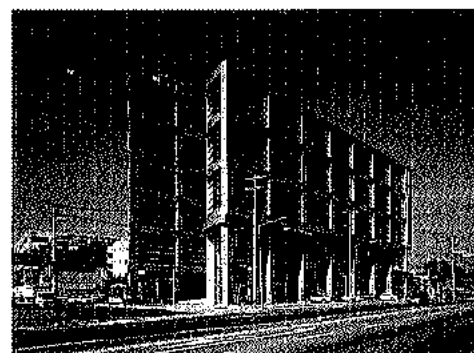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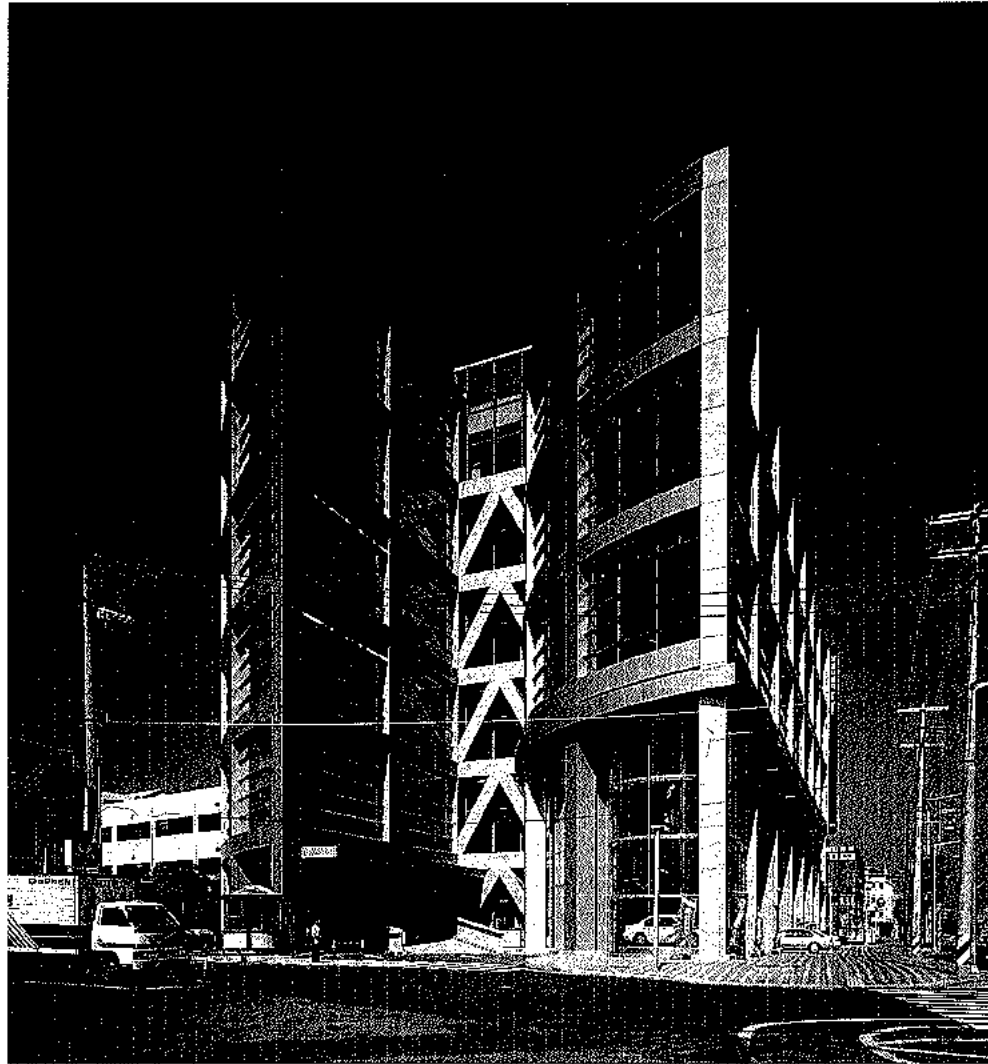


배치도

- | | |
|----------|------------------|
| 1. 사무실 | 7. Auto Cafe |
| 2. 주차장 | 8. 세력당랑실 |
| 3. 전차실 | 9. 교육장 |
| 4. 식당실 | 10. 교육생 휴게실 |
| 5. 전시영입장 | 11. Car Lift 기계실 |
| 6. 고객정보실 |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성수동 271 277-165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주차장장비지구, 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3,566.6㎡
 건축면적 1,988.22㎡
 연면적 18,949.34㎡
 건폐율 55.74%
 용적률 296.61%
 규모 지하4층, 지상6층
 건물높이 46.65m
 조경면적 625.99㎡
 주차대수 121대
 외부마감 THK3 Al. Sheet + THK24 복층얇은유리
 내부마감 암면텍스(천정) + 석고보드 위 무광아크릴페인트(벽체), 디렉스타일(바닥)



신곡 30

Singok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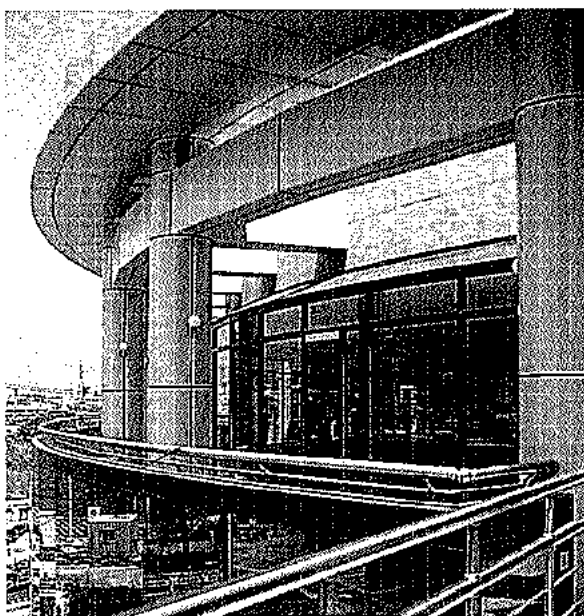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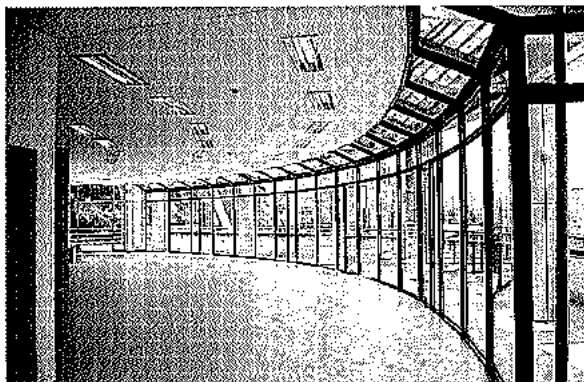
김상길/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Kil

이 프로젝트는 형태보다는 내부 공간과 그를 둘러싼 피막의 관계로부터 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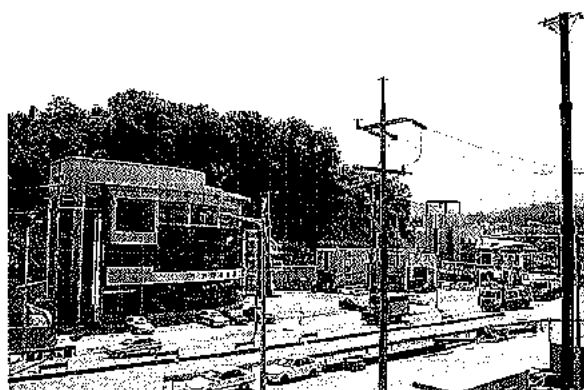
근생건물은 대지의 모양과 주유소와의 기능적 대응 관계에서 윤곽이 형성되었고, 건물 면적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려는 건축주의 요청이 있어서 상하로 연계되는 공간감을 포기하고 각 레벨별 연결 동선을 많이 고려하였다. 작품의 힘은 사실은 섬세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발휘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깨져 나가면서 그 부분의 카운터 파트너였던 나는 부분까지도 웅색하게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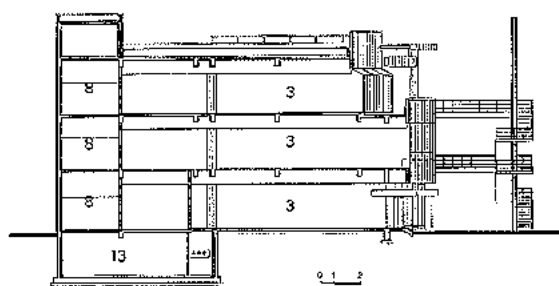
주유소의 캐노피는 상업적 계산이 깔려 있던 건축주의 요구와 코너 대지에 대한 나의 해석이 맞아 떨어졌다. 대지 전면의 길이 방향의 도로는 언더패스로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폭 방향에서의 접근이 주요 접근로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날카로운 코가 그쪽을 향하게 되었다. 날카롭지만 가벼운 캐노피 안으로 들어서서 근생건물을 마주하고 서게 되면 캐노피안으로 끌려와서 라운드형 표피로 스며들어가는 공간감이 생겨나도록 시선을 계산하고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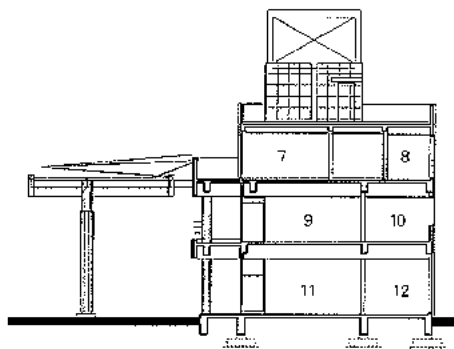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산 30-11번지 외 2필지
지역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821㎡
건축면적	970.99㎡
연면적	2,242.32㎡
연면적	2,024.17㎡
건폐율	34.42%
용적률	71.75%
구조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외부 마감	THK24 화강석 버너구이, THK18 파스텔 북충유리
설계담당	김형국, 서강일, 이광기, 류창우
감리담당	박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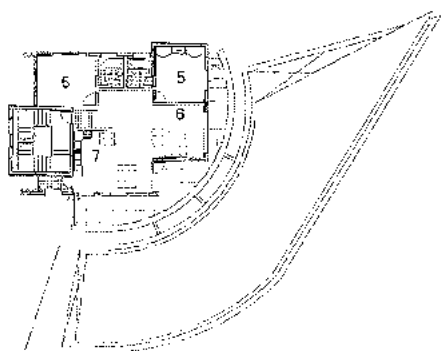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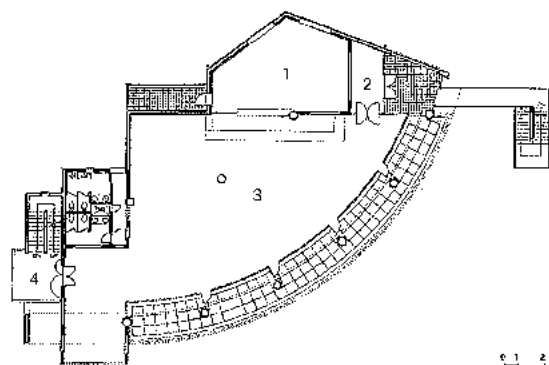
근생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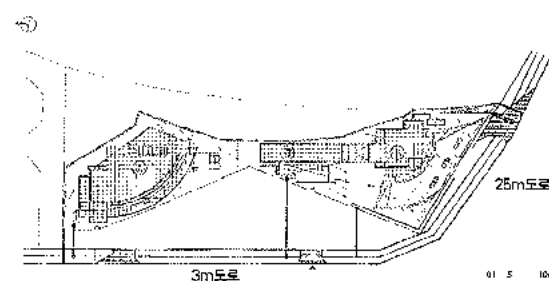
주유소 종단면도



주유소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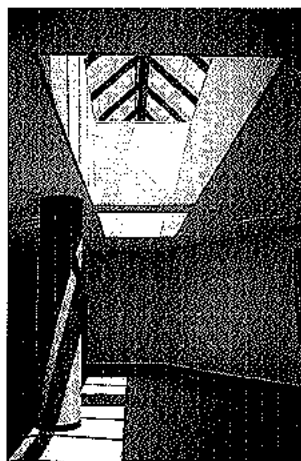


근린생활시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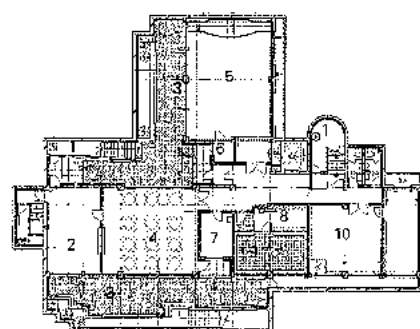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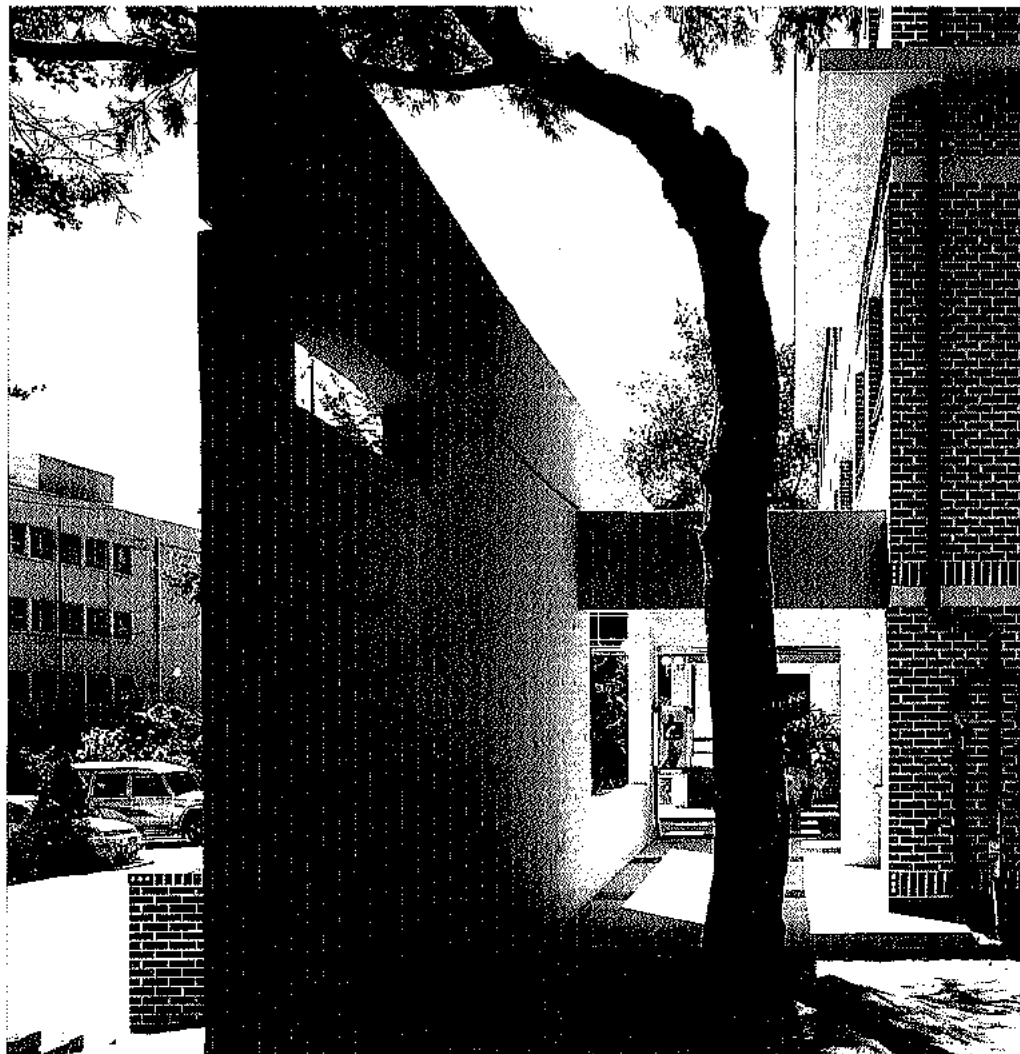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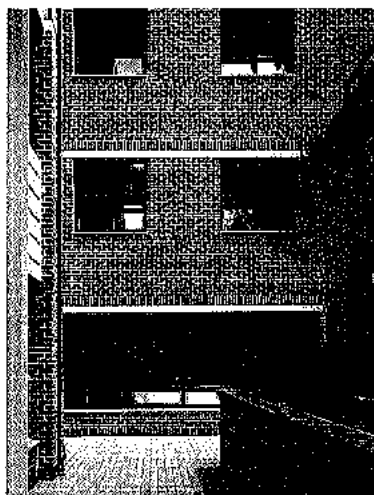


배치도

1. 주방
2. 전실
3. 음식점
4. 홀
5. 발
6. 거실
7. 주방/식당
8. 화장실
9. 사무실
10. 사장실
11. 열람실
12. 창고
13. 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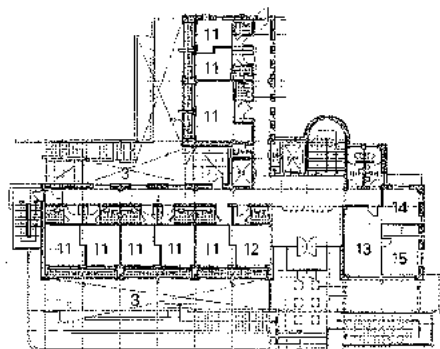


- | | |
|---------|----------|
| 1. 펄프실 | 9. 옥장 |
| 2. 주방 | 10. 기계실 |
| 3. 선문가든 | 11. 방 |
| 4. 식당 | 12. 복지시설 |
| 5. 오락실 | 13. 사무실 |
| 6. 창고 | 14. 승무실 |
| 7. 미용실 | 15. 원장실 |
| 8. 탈의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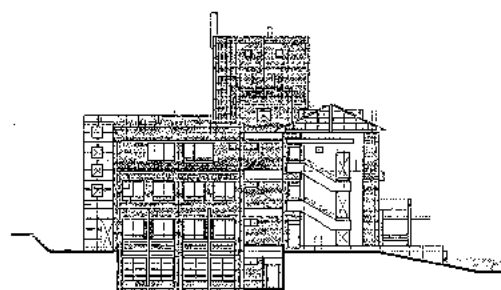


0 5 10m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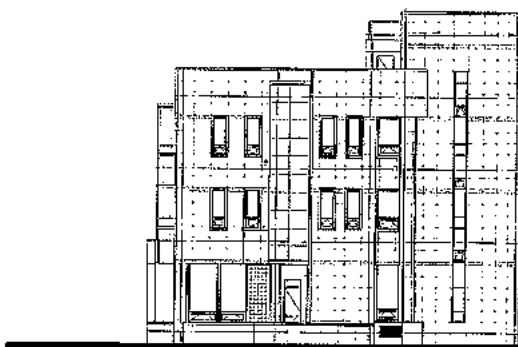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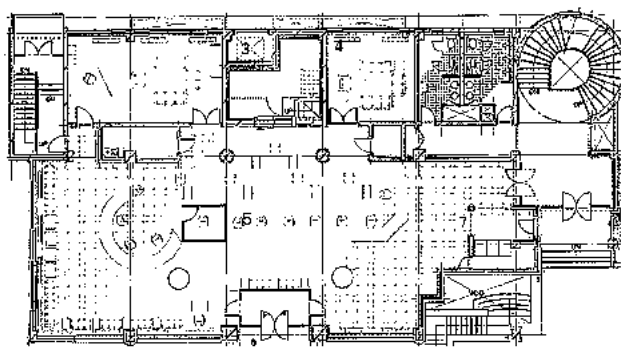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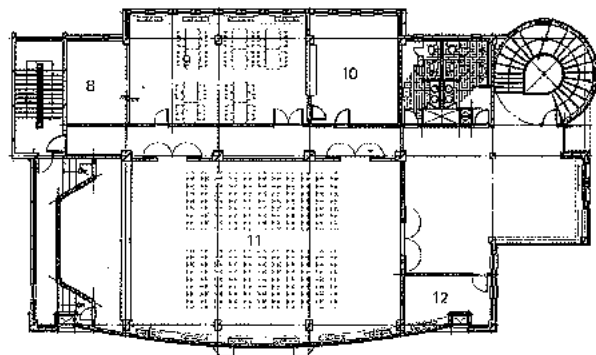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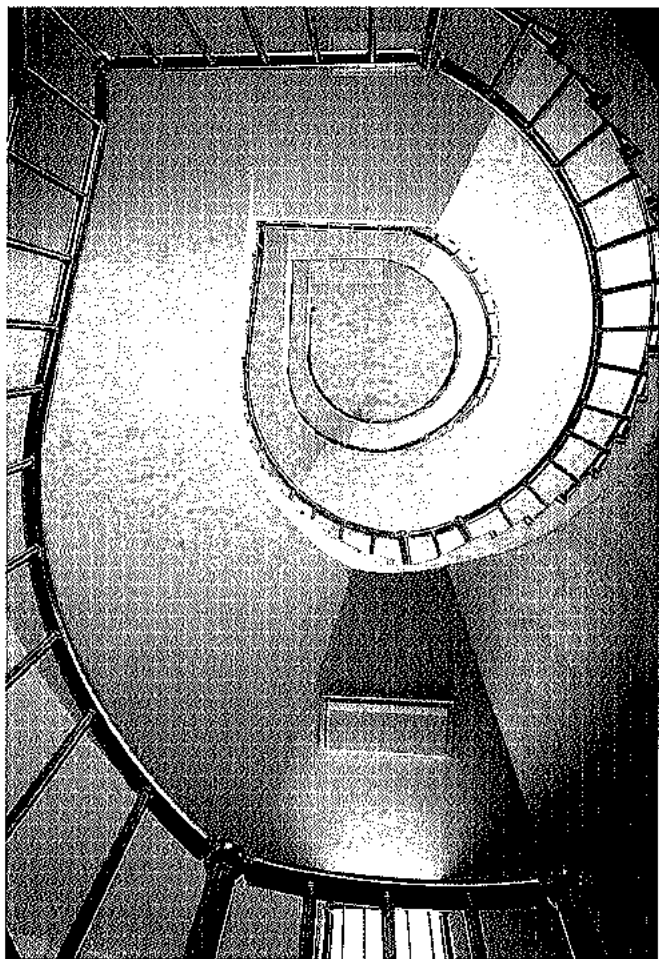
- | | | |
|---------|-------------|-----------|
| 1. 조합장실 | 5. 객장 및 영입장 | 9. 직원식당 |
| 2. 항바실 | 6. 화장실 | 10. 주방 |
| 3. 금고 | 7. 기계실 | 11. 예식장 |
| 4. 상담실 | 8. 티액실 | 12. 심부대기실 |
- 우측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서은옥피부과의원

Suh Eun-Ok Dermatologist Clinics

정동언/우주건축사사무소+진 정 / 전북대 교수

Designed by Jeong Dong-Eon & Jin J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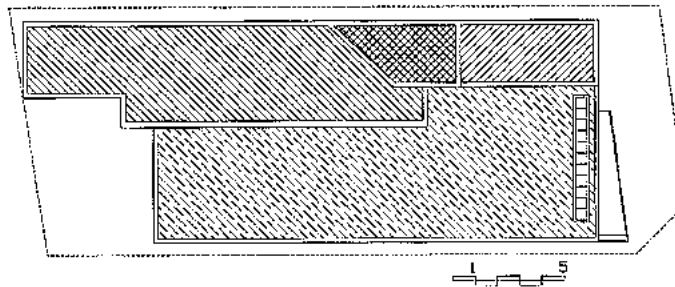
서울 등 대도시와는 달리 지방의 건축설계를 위한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개방화나 IMF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이나 건축적 가능성을 갖는 설계는 서울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대부분 의뢰되며, 지방에 남겨진 설계대상이란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주종을 이룬다. 설계사무소의 관계자들은 이를 '근생'이라 부르며 이 말은 설계대상이 아닌 허가만 이 목표라는 자조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근린생활시설의 설계조건은 명확하다. 첫째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며, 둘째는 설계비를 포함한 최소의 경비로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역시 평당 180만원 정도의 건축비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나 가능하다면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병원이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건축주의 바람이 전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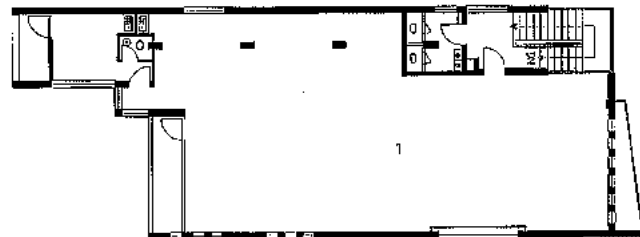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란 내부공간의 구성이나 형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 건축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도시 또는 부지 그 자체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 이용하는 사람과, 지나치는 시민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떠한 의미를 맺어야 하는가이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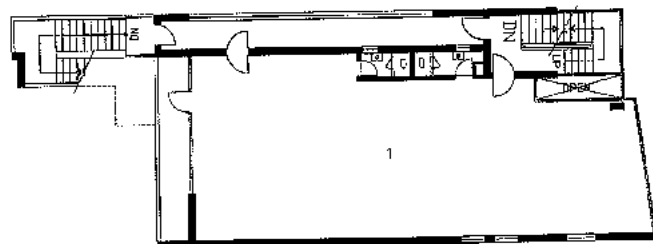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551-4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2종 미관지구, 방화지구, 최저고도지구
대지면적	325.0㎡
건축면적	225.4㎡
연면적	598.4㎡
건폐율	69.3%
용적률	170.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설계담당	김인순, 황병찬, 황인성, 박 혁
외부마감	드라이브트 내단열
내부마감	텍스홀음제, 비닐계타일, 수성페인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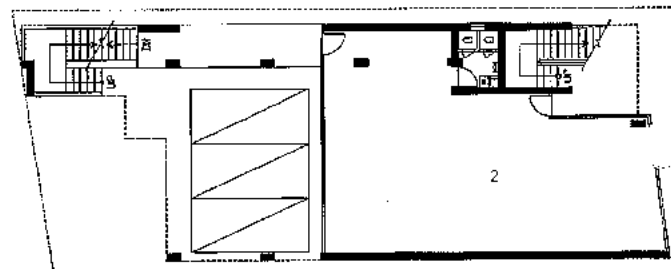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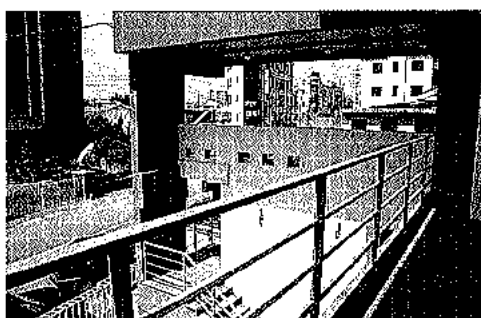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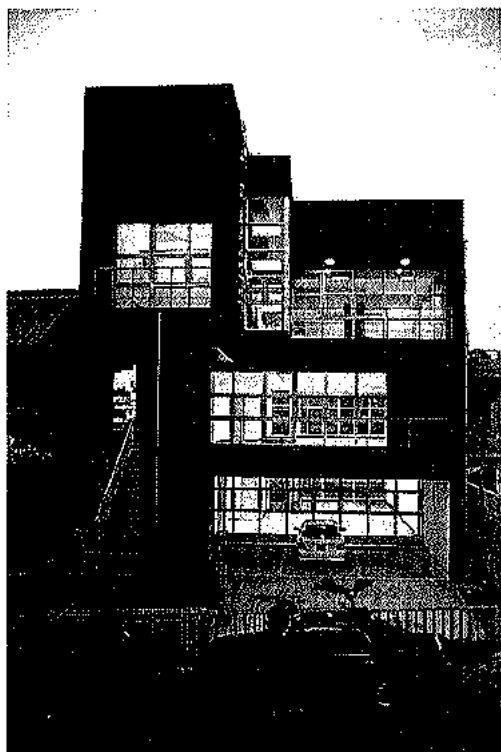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1. 근린생활시설(의원)
- 2.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평면도



지역건축탐방 [8] - 전주 · 익산 · 군산(하)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Cheonju · Iksan · Gunsan

지난호 상편에서는 전주 · 익산 · 군산의 역사적 배경과 전주의 도시 건축에 대한 지역성을 탐색했다. 이에 이어 하편에서는 전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익산과 군산의 도시 건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상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북을 대표하는 3개의 도시, 전주, 익산, 군산은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동일 문화권이지만 지켜온 현상들에서 서로 다르며 격리된 느낌의 단부소외성을 지니고 있다. 전북은 우선 완주, 익산, 고창에 이르는 백제, 마한의 평야와 해안의 문화권과 이씨왕조의 본향으로 고도의 특색을 지닌 도시문화권인 전주권, 거대한 산세를 자랑하는 지리산의 자연과 맥을 같이하는 남원권역으로 크게 대별 되어진다.

전북지방의 건축문화적 토대는 여타의 문화와 동일하게 백제의 숨결속에서 느낄 수 있다. 화려함도, 아기자기함도 없지만 있는 그대로, 한국의 정서를 압축한 듯 절박함을 바탕으로 한 백제의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지나간 시절의 영화가 현재에 재현되거나 지속되고 있지는 못하나 지난 삶의 자취에서, 이곳 사람들의 인정에서, 맛의 문화에서 그 깊이와 멋의 기닥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의 도시들은 이러한 도시형성상의 문화적 지혜나 건축적 해안을 관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의 최근의 역사들은 연약하지도, 섬세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시에 옛 자취를 휩쓸어버리는 강성을 지녀 흔히 담긴 과거의 흔적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주시하였고, 옛 백제 문화의 정신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관찰하며 반성도 했고, 이어지고 남겨져야 할 이 고장의 특성을 헤아렸다. 마지막으로 이 고장의 미래가 발전적아기를 염원도 해 본다. <김병운 / 편집디렉터>

(상)	백제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 김동수(백제예술대 교수)	
	도시의 기억, 도시의 건축 / 양상현(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수료)	
(하)	지역성의 표징: 건축과 장소성의 특성 / 진 정(전북대 건축과 교수)	54
	익산의 어제와 오늘 / 윤충열(원광대 건축과 교수)	58
	잠자는 도시에서 도약하는 도시로 / 최산호(호원대 건축과 교수)	62
	좌담: 전주 · 익산 · 군산 / 전북지역 건축문화의 특성과 전망	71
	- 일시: 1998년 8월 17일 15:00~	
	- 장소: 전북건축사회관	

지역성의 표징: 건축과 장소성의 특징

Signs of Regionality: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and Place

진 정 / 전북대 건축과 교수

by Jin Jeong

과거와 미래

어느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건축의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때 우리는 우선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 고유의 물리적인 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물의 외적인 형태나 형식상의 차이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특성의 배후에는 그 지역의 역사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등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외적으로 나타난 물리적인 형식이나 형태 그 자체만을 중요한 관심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건축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하여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정서와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방송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통하여 다음 사실의 확인을 희망했다. 그는 최근 IMF시대를 맞이하여 조립식건축이 전주시에 범람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도시의 경관을 손상하고 있으니 고도로서 전주의 이미지에 맞는 건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건축적으로 적절한 의견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기자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시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과거와 연관된 고도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의 모습은 건축물의 규제나 유인을 통하여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은 전주를 방문했을 때 거리에서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예향 전주’

‘월드컵은 천년고도 전주에서’

‘천년고도 문화관광 영상도시 전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도시’

‘현대적 스포츠와 첨단 영상산업이 천년의 역

사나 전통과 공존하는 모순되고 대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주의 지역적 건축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국 전주지역의 건축은 한편에서는 전통과 과거에 대하여 강한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적이고 발전적인 건축과 도시의 모습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건축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하여 건설된 두 개의 빙상경기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일부 지속에 건설된 두 개의 빙상경기장은 그 건축적 표현에 있어 아주 대조적이다. 하나는 미래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형태와 차가운 금속성의 이미지를 갖는 반면 또 다른 건물은 거대한 기와 지붕의 이미지와 전통적인 목조건물의 형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준은 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건축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공공건물의 현상설계시 요구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그것은 기본적인 기능의 충족과 함께 천년고도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각종 설계심의에서도 거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으며 건축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는다. 이는 막연하나마 모두가 전통적인 어떤 건축적 형식을 표현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 지역 구성원들이 이러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통이나 역사 그리고 과거와 같은 요소에 강하게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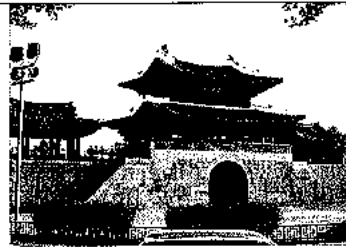
전라감영자리에 세워진 도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옛 감영을 복원하자는 여론이나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도청사 신축설계 당선안이나 지역문화 예술의 부흥을



제1빙상 경기장



제2빙상 경기장



풍남문

위해서 건립되는 전북문화예술회관 등은 건축적 형식이나 표현에 있어 최근의 서구적 건축조류를 반영한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건축물이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지는 어찌보면 극히 모순되는 듯한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역적 정서이며 현실이다. 이는 건축물의 질적수준이나 우열에 관한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견해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

우리가 지역과 관련하여 건축을 생각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지역적 성격을 나타내는 물리적, 추상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며 이는 결국 시간과 장소의 문제에 귀결된다. 전주지역에서 전통양식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용되고 모방되는 건축물은 풍남문, 객사, 경기전, 향교 등이다. 이러한 건축물은 대개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이며 역사적 유물로서 그리고 고건축물로서 건축학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전주라는 이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적 환경의 내용은 이러한 몇 개의 건축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건축물들이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더 중요한 요인들은 도시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대다수의 평범한 일반건축물들이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시기적으로 대부분 길게 보아 개화기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60년대 70년대 근대화 초창기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대부분이다.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보존지구의 주택들도 대부분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고도 전주의 도시적 특징이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특징은 구체적으로 천 년전에 존재했던 도시가 아닌 현재의 도시인 것이다.

평야의 농촌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삶의 모습과 그 삶속에 서구 근대산업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전통적인 우리나라 농촌도시의 특징들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분위기와 건축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도시모습인 것이며, 6,70년대에 나타난 다른 근대적 산업도시나 인위적으로 급조된 계획 도시에 대립되는 분위기와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연관되어 나

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주의 지역성을 건축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건축의 복사물이나 유사한 형태적 표현을 갖는 건축물들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나 도시에 자리잡은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지역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는 유리되어 산업도시의 외형적 모습이나 서구적 근대건축의 단순한 모방만을 추구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적 요소와 함께 장소의 측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지어져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들은 그 당시 성안의 공간구성방식에 따라 그 기능과 중요도가 결정되고 일정한 형식적 조건을 충족시켜 배치된 것이며 그 중 일부가 남아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전주의 지역적 성격이나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한 더 중요한 요소들은 이러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장소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전동, 풍남동 등의 주거지 모습과 성문밖 시장과 관련된 남부시장이나 중앙동의 상가거리, 전주천변의 풍경, 그리고 주변으로 이어지는 농촌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각 장소에 남아있는 중요 건축물이란 이러한 도시적 모습을 보강하고 중요한 도시내 시각적 대상임으로서의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건물이 지역성과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역성과 건축적 표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지역 건축물을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주제는 과거나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나 과거에 대한 건축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구상적 표현방법으로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대상이나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가지는 추상적 방법으로 대상이나 주제 등을 은유적인 간접방식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은 구상적인 직설적 방법에 접근하고 있다. 전주시청사, 전주역, 종합경기장, 제2빙상경기장,



객사



기존 주택지



한옥지구

전주박물관 등 대표적인 공공의 성격을 갖는 주요건물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건축적 접근을 시도한 결과이다. 실제로 이러한 건축적 표현이나 접근방식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일반시민이나 건축사 그리고 행정 당국 등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건축적 표현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때에 따라서는 지나칠 정도로 이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적 접근법을 지역성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결코 아니다. 물론 한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부여하는 요소로서 반복된 유사한 형태의 사용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일감이나 일체감이란 오히려 획일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박제화된 역사적 양식의 단순한 모방이나 복제에 가깝다면 이는 더욱더 부정적인 지역적 건축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필요나 목적에 따라서 기념물이나 상징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역의 모든 건축물이 동일한 건축적 접근방법이나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는 각각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장소적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적 성격이나 전통적인 건축적 특징이 강조되는 전주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특성이나 장소적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접근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한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성과 장소성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전주지역의 현실적 모습은 풍남문, 경기전, 전주향교, 객사 등 고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적 건축물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이다. 이는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건축적 요구와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어 본래 가지고 있던 역사적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시가지의 개발이나 인구증가에 따르는 도시규모의 확대와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 등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작고 조용한 고도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역적 특성을 구현하는 접근방법으로 개별건물의 건축적 특징을 추구하는 한편으로 좀더 작은 구역으로서의 지역성과 장소적 성격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도시전체가 일체화된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성과 장소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개별건물에 대한 접근방법보다 도시적 스케일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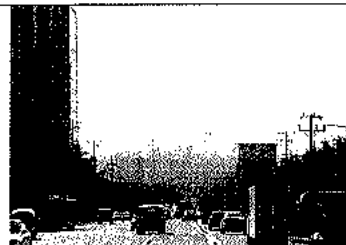
전주의 건축적 특성으로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한옥보존지구의 경우 그 동안 개별건축물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통하여 그 특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재는 이러한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고층빌딩이나 오피스빌에서 내려다보이는 한옥보존지구의 기와지붕은 실제로 그 대부분이 한옥기와의가 아닌 왜식 기와지붕 또는 변형된 현대의 유사기와지붕이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이는 윤곽으로서의 기와지붕군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전주의 고전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옥보존지구 내부의 가로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개별주택내부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고 하늘에서 보이왔던 전통적인 한옥지구의 통일되고 차분한 주거지역의 모습은 아니다. 거기에는 이미 이질적인 소형상가 또는 대규모인 현대주택들이 시대적 변화와 자체의 필요 및 요구에 대응하여 유사기와지붕으로 위장한 채 우리가 추구하는 한옥군의 모습과는 다른 이도 저도 아닌 절충된 어정쩡한 모습으로 늘어서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한옥보존구역에 인접하여 건축된 리베라호텔은 서울 비원 옆에 건립된 현대사옥에서 야기된 것과 동일한 논쟁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옥지구와 먼 한 뼘 떨어진 일층 가로부는 조경적 처리와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통하여 한옥지구의 분위기를 전통적 형태의 차용이 아닌 보행환경의 조성이라는 도시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한옥보존지구 그 자체로 보더라도 긍정적이다. 이는 비록 고층의 현대적 건물이 한옥지구와 대비되는 이질적인 모습으로 지상부에 자리잡고 있으나 가로변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모습으로 한옥지구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개별 건축물의, 건축적 형태나 형식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지역적 특성이나 통일성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베라 호텔



구시가지 도로



신시가지 도로

독립된 하나의 건물 혹은 고립되어 있는 건축물인 경우 그 기념적인 성격을 강조함에 따라 전통적인 형식의 차용을 통하여 지역성의 표현이나 장소적 특징을 나타내는 데 성공할 가능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물들이 밀집하여 가로로 도시적 성격이 강조되는 도심부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형식적인 조건의 만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도시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전주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도시의 지형적 조건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다. 성곽도시로서 전주성의 외부는 기린봉, 다가산, 태극산, 향방산, 가련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에 따라 성안에서는 성 밖에 있는 산들이 마치 시골마을에서의 경관처럼 주택들 사이에 보이게 된다. 이는 도시가로망이 정비되고 건물들의 규모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가로가 중요한 경관의 통로로 변화된 현저에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내부의 어느 지점에서건 도로 끝의 경관은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산으로 구성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이는 조선시대 성곽도시의 내부도로 끝에 나타나는 상운의 존재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가로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개별건물이 갖는 장소성만이 아닌 도시전체에 대하여 장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로가 갖는 또 다른 특성이며 가능성이이다. 그러나 도시의 확장과 개발에 따라 새로 형성된 가로에서는 도로의 폭이 기존 도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도로에서 강조되던 도시와 주변경관이 산을 통하여 밀접하게 연관된 전주 특유의 경관을 느낄 수 없다.

산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소는 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장소적 성격이다. 원래 전주에는 전주천, 삼천천과 같은 본류하천외에 도심부 또는 주거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많은 하천의 지류가 있었으며 이는 전주의 도시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구역마다 강한 장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하천의 지류는 마치 서울의 청계천이 그러하듯 모두 복개되어 그 흔적이나 위치조차 찾을 길이 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건축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도 도시의

확장과 새로운 건축적 대응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압력은 건축 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이다.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지에 자리잡고 있던 학교가 도시외곽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 대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나 현대적인 호텔이 건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가지의 지역적 특성이나 도시분위기는 파괴된다. 80년대 90년대의 도시개발사업과 이 결과 만들어진 도시의 모습이란 전통이나 고도의 모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새로운 선진사회의 도시나 건축의 외형적 모습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건축과 도시는 지금까지 언급한 전주지역의 지역성문제와는 무관한 또 다른 전주의 모습으로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과 건축적 특성을 보여준다. 최근에 개발된 중화산동이나 서신동, 그리고 삼천·효자지구 등은 지역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모든 현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화된 건축 도시적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보편적 접근이 아닌 지역적 특성과 장소적 의미를 전제로 하는 접근가능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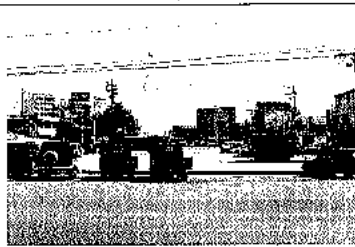
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건축적 양식이나 형태적 특성의 모방이나 절충이 아닌 또 다른 접근의 가능성으로 장소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역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과거에 대한 감상적 회고나 추억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곳이 서울과 다르고, 구미나 창원과 다른 전주라는 지역적 의미의 확인을 통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방향의, 천년고도의, 전통적인 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과 그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 존재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유산이라 할 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모습이나 분위기가 그대로 박제화되어 보존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더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변화와 발전도 모든 시간의 흔적과 기억을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서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며 건축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시내 하천



주치장으로 사용되는 복개 하천



해성고 이전부지의 동국아파트

익산의 어제와 오늘 Yesterday and Today of Iksan

윤충열 / 원광대 건축과 교수
by Yoon Chung-Ryeol

시작하면서

시작하며 미리 고백하건대 나는 이곳 익산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익산에 있는 호남의 명문인 남성고(南星高)를 다닌 것도 아니며 하다 못해 처가(妻家)도 익산과는 전혀 연고가 없다.

굳이 익산과의 연고를 찾으려치면 나의 두 아들들은 분명 익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으며 전라도 사투리를 맹렬히 익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가 익산의 지역건축에 관해 알가알부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하고 잠시 고민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리역 폭발사고의 후유증이 막 가라앉을 즈음인 80년도 초부터 이곳 익산에 정착했으니 이곳에서 보낸 시간도 이미 거반 20년 가까이 되어버렸고 그 동안 사·도(市·道)건축심의다 해서 상당기간 이 지역의 건축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오면서 느낀 점들도 있고 해서 무언인가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펜을 들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무언가를 쓰려 하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한 앓음을 내가 이곳 토박이가 아니어서도 아니며 더더욱 이곳 익산의 지역건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도 아님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런데 지역건축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익산이란 어떤 곳인가

1) 역사 속에서 본 익산

역사적 위치에서 보면 익산은 삼한시대에는 마한,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한 곳이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금마, 고려시대에는 익주군, 조선시대에는 익산군으로 칭해지다가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이리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도·농(都·農)통합시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익산시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익산이 발전의 계기를 갖기 시작한 것은 한말 침략의 아욕을 겪은 일본인에 의해서인데 이들에 의해 수리조합, 농수로 등의 설립과 정비 등 농업경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일제 침략 후에는 호남선 철도가 개설되어 호남철도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911년 금마에 있던 익산군청이 이리로 옮겨지게 되는 등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근자에 와서 익산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1970년 초의 수출자유지역의 지정과 수출산업공단 조성인데 특히 익산 제2공단은 1979년에서 1981년의 3년간에 걸쳐 약 40만평 규모로 조성된 후 전기, 전자제품, 기계, 모직, 피혁, 의류 등의 업종이 유치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다.

1977년에 있었던 이리역 화물열차 폭발사고는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익산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계기로 도시의 정비(대부분 중소도시가 그러했듯이 이리시 역시 역사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가로망의 재정비 등 도시로서의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2) 익산하면 생각나는 것들

- 기차가 자주 있는 호남교통의 중심지

호남선과 전라선이 갈라지는 호남철도의 중심지로서 도청 소재지인 전주보다도 많은 기차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 넓은 평야를 지닌 농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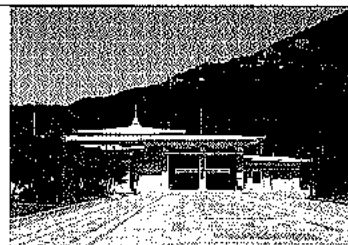
익산은 지역적으로 보아 한반도 서부지역 넓은 평야지대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1차 산업,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은 농업중심의 도시로 볼 수 있다. 도·농통합 이후 도시권역내에도 드넓은 절대농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보석가공 공단이 있는 보석의 도시익산공단 내에는 대규모 보



미륵사지 발굴 현장



미륵사지 복원 모형도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석가공공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귀금속 및 보석 판매센터가 도심 내에 있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실정이며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 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이것이 완성될 경우 익산은 보석도시로서의 이미지는 매우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륵사지 등 마 · 백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도시

미륵사지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에 언급될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쌍릉, 사자사, 왕궁 오층석탑 등의 마 · 백 문화유산이 있으며 이의 발굴이 꾸준히 추진되어 가고 있다.

• 원불교 총부가 있고 원광대학교가 있는 도시
원불교의 총부가 원광대학교의 이웃해 있으며 호남의 대표적 사학의 하나인 원광대학교가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3) 피부로 느껴지는 익산

나는 익산에서 정착하기 전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이란 대도시에서만 보냈기 때문에 이곳 익산에서 받았던 느낌들은 대도시와 대비된 생각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야기의 성격상 극히 주관적인 시각에서 언급될 수밖에 없겠지만 20년 가까이 지방도시인 이곳 익산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익산지역의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 조용하고 여유가 있는 도시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그러하겠지만 익산에 처음으로 내려왔을 때 느꼈던 첫인상은 '매우 조용하고도 여유가 있는 도시'라는 것이다.

'소주 한 병을 달랑 시켜도 어떻게 생소주만 마시냐'며 대어섯 가지의 안주가 곁들여 나오던 여유로움이란... 요즘 들어 그 강도는 매우 희석되었지만 아직도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조용함과 여유로움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 매우 친절하고 정감가는 도시

80년대 초반 허더라도 상당수의 택시 기사들이 차비를 받거나, 잔돈은 내주는데 두 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버스 이용시 기사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는데, 이것은 대도시 택시기사들의 횡포(?)에 시달려온 나에게 하나의 쇼크였을 정도로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 재해가 없는 도시

이상하리 만치 자연의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도시로 보여진다. 나의 기억으로는 내가 익산에 있는 동안 한 여름 갈수기에도 한 번 제한 급수로 인해 고통받았던 기억도, 인근에 대규모 수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접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바로 인근의 전주나 군산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도심내 군데군데 고층 APT군이 마구 세워지는 와중에서도 도심내에서는 아직도 5일장이 서고 있으며 5일장 때에는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장터는 붐비고 있는 도시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건데 적어도 대도시에서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의 중소도시를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의 평가가 더욱 강하리라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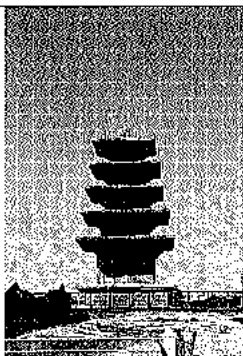
익산의 어제와 오늘의 건축들

전북의 대표적인 3시(市)인 전주와 익산, 군산은 서로 40km 정도의 이격거리를 지닌 채 이웃해 있다. 그러나 전주는 도청소재지로서 전북을 대표하는 대도시이지만 고도(古都)로서의 오랜 전통성과 역사성을 갖는 도시이며, 군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일 뿐만 아니라 넓은 공단을 지니고 있는 역동적이며 활력을 지닌 도시이다. 그러나 익산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특성이 없는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도시로서 인식되어진다.

1) 과거의 건축물들

• 미륵사지

1980년 초부터 시작된 발굴조사 결과 백제의 사찰인 미륵사지의 가람배치는 3탑 3금당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탑과 금당을 갖춘 사찰 3개를 나란히 배치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개의 구역은 독자적인 사찰로의 배치형태를 보



왕궁리 5층 석탑



할려의 고택들



원광대학교 캠퍼스

이면서도 동시에 회랑에 의해 서로 이어지는 강당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탑과 금당을 갖춘 사찰 3개를 나란히 세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탑과 금당을 배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서는 중앙 최대의 석탑(石塔)으로 보여지는 서탑과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으며 최근 동탑을 복원하였고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기 위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건립되었다.

• 익산 쌍릉(雙陵)

익산시에 있는 유적으로서 부여 능산리 고분군(陵山里 古墳群)에서 밝혀진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백제 무왕과 선화비의 능이란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왕궁평 유적지와 5층 석탑

백제 무왕의 별도(別都)설, 마한의 도읍지설 등을 증명하기 위한 발굴작업이 한창 행해지고 있는 곳으로 현재는 국보 제289호로 지정된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 함라의 고택(古宅)들

함라에는 조해영 씨댁, 김만균 씨댁 등 조선시대 건립된 수호의 상류층 주택들이 남아 있다.

2) 오늘의 건축물들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그러하듯 익산 역시 지역성을 지녔다던지 독특한 성격을 지닌 내세울 만한 오늘날의 건축물이 많지 않음이 현실이다.

다만 익산의 독특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으로는 원불교 총부내의 기념관들과 원불교 교당 건축물들, 보석산업에 관련된 보석 판매와 보석박물관(곧 건립을 목표로 설계작업중임) 등을 들 수 있겠다. 그 이외에는 대도시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극히 무감각하게 건축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무리하며 생각나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는

왜 서로 무작정 다투아 가려고만 하는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다.

관광지마다 판매되고 있는 소위 특산품이란 것들이 그렇고, 수많은 식당들에서 보여지는 메뉴나 그 맛에 있어서도 그렇고, 젊은이들의 차림새에서는 남·여의 성구별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더욱이 집안마다 독특한 풍미를 자랑하던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까지도 공장에서 생산되어 획일화된 맛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건축에서의 지역성을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일는지 모른다.

경주나 제주도 등과 같이 독특한 환경조건이나 별다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일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성을 살리기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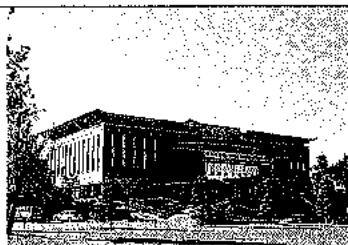
특히 오늘날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경관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도시내 어느 곳에서나 볼썽볼썽 치솟아 오르고 있는 무미건조하고도 획일적인 형태의 고층 아파트군들이며 아파트이외의 건축물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특성의 부여보다는 대도시의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규모나 형태에 있어서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시세(市勢)를 반영하듯 대도시의 그것보다 다소 모자라는 듯한 것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고 하여 언제까지나 대도시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다소나마 나름대로 멋이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두 가지만 제안해 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가지고 있는 건축조례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현행법규로 보아 과거에 비해 건축행위에 관한 많은 권한들은 당해 지역 건축조례로 이관시켜 주고 있어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지역 나름대로 독특한 가로 경관의 조성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시의 조례들은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유보된 상태로 획일화되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건축의 규제수단으로서의 주요 가로변들을 미관지구로 지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원불교 총부



원불교 총부내 기념관들

정하고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규제에 대한 일정한 잣대가 없는 상태에서의 미관심의는 또 다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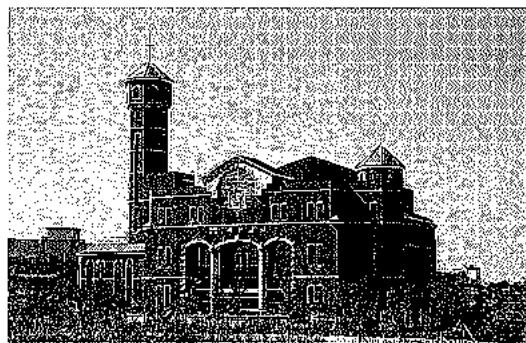
건축의 질(質)향상을 위한 심의인 것은 분명하건만 심의과정에서 보면 극히 진부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꼬집어 날만한 결점도 없는 것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반면 무언가 새로운 시도들은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신랄한 비판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 되어버려 건축심의란 것이 결과적으로는 극히 평범하고도 무미건조한, 그렇고 그런 것들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그나마의 미관심의 자체로 없어질 모양이던데...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 전체로서, 아니 일정 구역별로 건축되어질 건축물의 방향을 미리 제안할 수 있는 건축조례 등이 각 지역별로 독창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지역성이 강한 독창적인 도시경관의 조성이 오히려 가능하겠는가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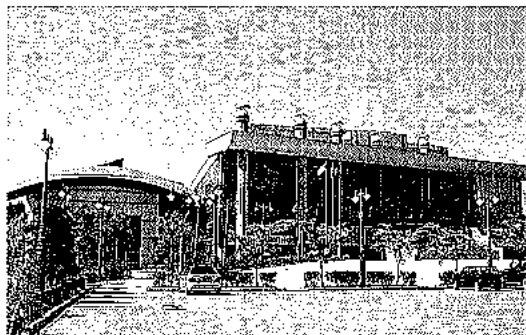
다음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역 나름대로 고유의 색들을 지녔으면 한다.

왜 시(市)마다 시화(市花)가 있고 시목(市木)도 있고 하물며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은 시조(市鳥)까지 있으면서 시색(市色)은 없는지 궁금하기조차 하다.

건축물의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제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마다의 고유의 주조색을 갖고 이를 활용한다면 소극적이기는 하나 다소나마 지역성을 나타내는데 손쉽게 접근하는 한 방법이 아닐는지? 물론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또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는 바는 아니나 한번쯤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북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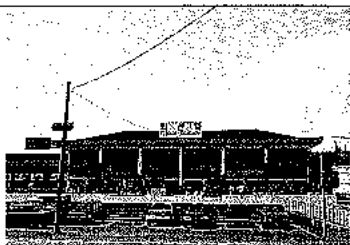
소리문화 예술회관



전북 교원 연수원



시 외곽에서 보여지는 APT군



익산 역사



익산시내 중심가



귀금속 보석판매센터 내부

잠자는 도시에서 도약하는 도시로

The Awakening City

최산호 / 호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San-Ho

군산의 도시 구조 변천 과정

군산(群山)을 대표하는 소설가 채만식의 「탁류(濁流)」에 묘사된 군산시의 정경은 다음과 같다.

~ 급하게 경사진 언덕 비탈에 개떡같은 초가 집이며 양철집 오막살이들이 손바닥만한 빈틈도 남기지 않고 콩나를 기르듯 다닥다닥 주어 박혀 언덕이거나 짐작이나 할 뿐이다. 이러한 몇 곳이 군산의 인구 7만 명 가운데 6만 명도 넘는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바비면서 움푹움푹 모여 사는 곳이다 -

채만식은 이 소설에서 식민지시대 군산의 사회상을 진술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 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시 보릿고개를 피해 가장 살 만한 곳이라고 찾아 모여든 곳이 군산이었다는 것과 서민들의 애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골목길 어귀의 정경이라 할 것이다.

군산 지방은 백제시대에 '마서량(馬西良)'이라고 불리다가 고려 공민왕 때 금강 하류에 포구를 설치하여 개성으로 가는 배들을 머무르게 한 뒤부터 '진포' 또는 '경포'가 되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 태조 6년인 1397년에 군산 열도에 설치했던 진영을 거두어 옮기면서 '군산진'이 되었고, 그후 근세에 들어 1905년에 '옥구부', 1914년에 '군산부', 그리고 1949년에 구역을 확장하면서 '군산시'로 승격되었다. 군산의 우리말 이름은 '무르뫼'라 불렸으며, 또한 물위에 뜬 매라 하여 '물매(水山)'라고도 했다.

군산과 옥구(군옥) 지방의 지형과 지세를 살펴



군산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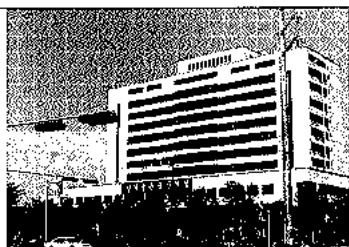
조선우기의 고군산전지도

보면 남에는 만경강이, 북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고, 그 사이에 비옥한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다. 동남쪽은 만경강을 끼고 익산과 김제시에 인접한 전북평야를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금강에 연접하여 충남의 서천을 마주 보면서 임옥평야를 이루고 있다. 서남쪽은 서해안을 향하여 광대한 평야를 이루고 있다.

'옥구'는 비옥할 옥(沃)자와 도랑 구(溝)자가 합하여 된 지명이며, 일본은 옥구군을 거점으로 일대의 농토를 점유하는 방편으로 군산항을 개항하게 되었다. 일본은 전라북도내 무려 58개소의 일본인 농장을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도 군옥 지역을 최대 부력의 지역으로 전망하여 중심지로 하였다.

군산항은 호남평야의 유일한 관문으로서 처음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서 개항되었지만 외국인에게 개방되기 전까지는 옥구군에 딸린 조그마한 포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이주해 온 뒤에는 옥구, 김제, 부안 등에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려 농토를 만들고 거기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거점 항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일본의 공업제품의 수입항으로 자리잡음으로써 군산항은 빠른 변화를 겪는 도시가 되었다. 이처럼 군산은 항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어 이것이 최초의 도시 개발 요소로 작용하였고, 그래서 자연히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도심이 형성되었다.

군산의 경관은 1899년 개항 이래 급격히 변화하였다. 조계(租界)시기(1899~1906)에 금강 하구의 남안(南



군산시청사



성산 관광호텔



나운동 26센터(주상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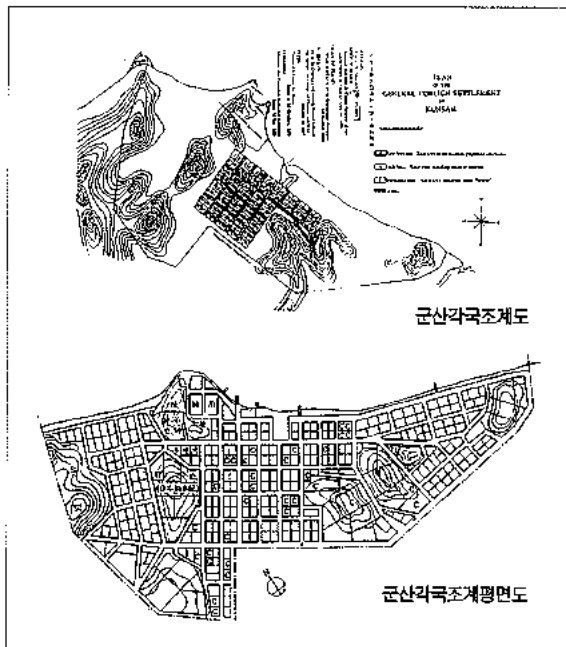
岸)이 매립되었고, 신흥동과 중앙로 1, 2가동이 개발되면서 동서 도로가 발달한 격자형의 도시체계 기본 틀이 이때 이루어졌다. 일본인들은 인구가 증가하자 1907년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벌려 군산의 토박이 집들을 밀어내고 일본인들로 하여금 구획정리가 잘 되어진 대지 위에 합석집과 기와집들을 짓고 들어서게 했다. 1914년부터는 일본인 전용 신시가지는 '마쎄(町, Street)'라 했고, 한국인 고유의 동리는 동(洞)이라 호칭하여 19정 6동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었다.

1934년경 군산의 경기는 대단하였는데, 당시의 인구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보다 약 1만 여명이 많았다. 군산의 근대적 도시개발을 위한 최초의 계획은 1936년 일본인에 의한 군산지구계획결정(총독부 고시 제20호)에 의하여 착수되었고, 이 계획은 1957년을 목표 년도로 하여 계획 인구 20만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월명동, 영화동, 영동 일대의 중심 시가지를 포함한 주거지역, 녹지지역, 공원, 가로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군산의 영화동 일대에는 수많은 쌀 창고와 더 물어 쌀 중매점들이 들어섰는데 이곳을 미루장이라 하여 군산의 심장 역할을 했다. 또 전주통이니 본정통이니 해안통이니 하는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여 군산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했다. 이로부터 근대 도시로서의 초보적인 토지 기능별 용도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1930년대의 군산은 완전히 일본인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평지에는 일본인들만이 살았고 한국인들은 고지대의 개딱지같은 초기집에 몰려 살았다. 채만식은 「탁류」에서 당시의 애환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 언제나 수 척의 기선이 고동을 울리는 군산의 거대한 항구,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석의 쌀이 배에 실려 일본으로 나가고 있는 곳에서 왜 우리 민족은 것처럼 것처럼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가?... 언덕 비탈을 의지해서 오막살이들이 생선 비늘같이 들어박힌 개복동, 그 중에서도 산상 꼭대기에 올라 앉은 납작한 토담집, 방아라야 안방 하나 건넌방 하나 단 두 개 뿐인 것을 명임이네가 도통 5원에 집주인한테서 세를 얻어 가지고 건넌방은 따로 먹곰보네한테 2원씩 받고 세를 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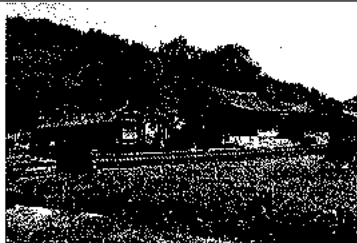


이 대목만 보아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었는지 짐작이 가며, 구절마다 눈물겨운 호소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인들이 물러간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군산은 상대적으로 침체기를 맞는다. 다만 전북의 관문으로서 암해상공도시의 위치는 유지하였다. 그러다 60년대 이후 현대화 과정 중에는 오랫동안 개발의 뒷전에 밀려 있게 된다.

군산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된 것은 1980년 외항 개설 공사가 완성되고 곧이어 임해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부터다. 1983년에서 1988년까지 금강 하구둑이 축조되어 충남과 연결되었고, 1990년에는 군장 신항만 도류제 축조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이다.

1996년 1월 1일에는 옥구군 전체가 군산시와 병합되어 시역은 광역화되었으며 새안금 간척사업,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설, 군장국가공단의 개설과 군장 광역시의 건설 추진 등으로 군산시역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구향교



옥구향교



임피향교

군산의 도시 경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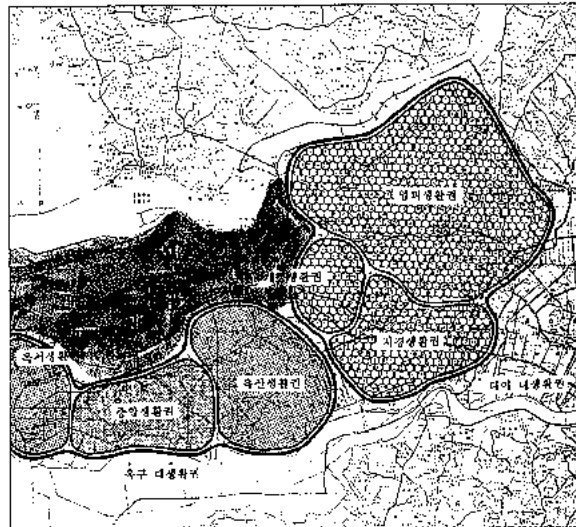
도심은 중심 상가를 핵으로 하여 직장과 상업, 업무시설이 모여있고 지역 사회의 심리적 중심인 이른 바 도시 중추 기능을 하고 있다. 군산의 도심은 항구를 중심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발전되어 오면서 도시의 중추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가 크게 확장된 오늘날에까지도 대부분의 도심 활동이 이 곳에 집중되어 있고, 비도심 활동들과 저층, 고밀 상태로 혼재되어 있어 기능의 저하와 환경의 악화를 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도시의 경관 또한 질서가 없고 안정감도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군산은 도시의 확장성이 양호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 구조를 고밀화 시킬 필요가 없으며, 도시의 배치 규모도 얼마든지 넓게 잡을 수 있어, 이제부터라도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면 양호한 도시 경관을 가진 도시로의 탈바꿈이 가능한 곳이다.

양호한 도시경관은 지역성과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 실패한 다른 도시에서와 같이 획일적으로 건설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개성적인 도시 경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급적 과밀화를 촉진하게 하는 고층 아파트는 시 외곽의 부도심 예정지로 배치하고, 곳곳의 구릉지에 군산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저층의 전원도시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도시 전체가 이상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내에서 성산과 나포를 잇는 금강 주변에는 수목이 울창한 야산들이 자리잡고 있고, 굽이진 강을 조망할 수 있는 언덕들이 이어져 있다. 이 곳에 강둑을 따라 강변도로를 만들고, 훌륭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면 군산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를 휘감고 있는 금강의 수변 공간들도 저층 저밀도로 개발하여 시가지에서의 접근성과 조망을 좋게 할 필요가 있다. 군산은 훌륭한 자연 조건을 가진 수변 공간들을 지금까지 방치해 둠으로써 Waterfront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고, 무성경의 평범한 상업 건물들로 수변 공간을 시가지와 차단하



생활권 구상도

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산의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수변 공간들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과 질서의 틀을 찾아 줌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도시가 제대로 살아 숨쉬려면 그곳에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도시가 경제기반 조건과 어우러질 때,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도시가 아닌 삶의 질이 높은 문화적 도시, 역사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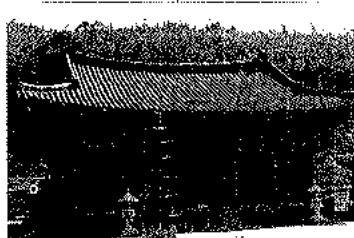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의 조건은 문화 및 편의 시설이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가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걷기에 불편함이 없이 보행로가 연결되어야 하고, 걸으면서 쾌적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정비,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는 사람이나 물체를 이동시키는 통로로써 만의 구실이 아니라, 도시를 체험하는 주요 요소로도 작용한다. 도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가로와 광장, 시장, 그리고 주택 지을 일 것이다. 어떤 도시에서나 가로가 매력적이고 친근감을 주면 누구나 그 도시에 끌리기 마련이다.

군산은 일제 시대에 조성된 대표적 도시 중의 하나로서 방사형 도로망에다가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잔존해 있는데, 이들도 이 도시의 역사와 지역성을 증언하는 역사적 경



은적사



은적사 대웅전과 7층 석탑



옛 조선은행

관 자원으로 보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군산에는 역사성 있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파괴되거나 훼손되었지만 과거의 필지 체계나 길의 형태 등은 크게 변하지 않고 남아 있어 다행이다.

지속적인 전통 문화의 발굴과 보존 및 현대화를 통해 그것을 관광상품화하고, 획일적 가로 조성보다는 역사적 전통거리 조성과 예술로 특화된 도시, 대학문화가 건전하게 육성되는 대학촌 조성 등 도시 특성을 살리는 도시 환경을 갖추도록 정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도시 계획의 하나인 변화있는 거리의 연속성을 살리고, 군산만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적 특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문화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산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틀을 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의 정체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다른 도시와 차별성이 없다면 굳이 그곳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제라도 역사성을 살리고 상징적이거나 기념비적인 명소들을 발굴 보존하여 도시의 경제적 기반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경관을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특색있는 가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거리의 제공이 필요하다. 의도된 기능과는 별도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만남의 장들이 제공되면 특별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것이다.

월명동에 일본풍의 거리를, 영화동에 미국풍의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상품화하고, 해망동에 살바 횡집단지들, 해상 도시 예정지에 레저 스포츠단지들, 은파유원지에 관광 및 위락용 Land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군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들로서 부족하지 않다. 부산의 경우 자갈치 시장에서의 풍부한 먹거리는 서민적이고 낭만적이기도 하다. 군산도 적당한 장소만 제공되면 그보다 더 특색 있는 명소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야의 5일장은 군산 근교의 전통 장날로 확충시키고, 신영동의 국밥 골목도 재정비하여 특성화시킬 수 있다면 군산의 지역성은 자연적으로 정립될 것이다.

이밖에도 군산에는 향수와 낭만을 불러일으킬 만한 명소들이 많이 있었다. 짬보선창, 둔뱀이, 설애, 흙구더기,

콩나물고개, 모시산, 궁말 등 지명에 얽힌 유래와 함께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정겨운 이름들이다. 군산의 지역성이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값진 자원은 없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복원, 또는 재현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군산의 지역성과 건축 특성

군산의 지역성은 무엇으로 정립될 수 있을까? 외지인이 군산에 들어설 때,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회색 고층 아파트 건물군들이나 공업 단지로 도시 공간을 채우고 있다면 군산이 자랑하고 있는 해양 관광도시, 산수가 수려한 전원 도시로서의 면모 등 내재된 지역성은 도무지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그 잠재력(Potential Energy)을 극대화하여 고유한 지역성을 개발하는 일에 열심이지만 군산은 경제력의 부족과 정치력의 부재로 가시적인 발전상을 볼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군산은 지역 고유의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지만 아직까지 아들을 지역성으로 표출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이나 조형물들도 특성 없이 대도시의 번두리 모습을 재현시키고 있는데 급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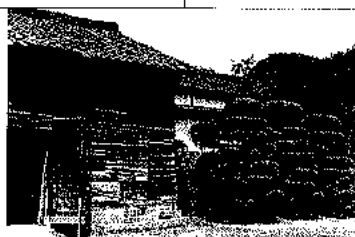
평범한 아파트군의 모습, Cut and Back을 일삼는 자연 훼손, 개성없는 건축물, 시민의 불편을 도외시 한 가로망, 이런 군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아름답고 평화스럽기만 하던 군산은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도시환경과 어느덧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건축물들로 인해 표정없는 도시, 개성없는 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균질화되고 특징 없는 낙후된 도시 환경 속에서는 군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고유성을 갖춘 도시 공간과 건축 문화가 갖추어져야 하겠다. 앞으로 군산의 고유한 특성을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만한 사항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다.

첫째, 개항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항구도시.



군산 세관



일본인 주택



일본인 주택

둘째, 서해 중부권의 관문이며, 중국 대륙 진출을 위한 항만 도시.

셋째, 새만금 개발, 군장 공업단지 개발의 배후 도시.

넷째,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된 농업 도시.

다섯째, 좋은 수변공간을 가진 정감 넘치는 전원도시.

여섯째, 서해안 해양관광 및 휴양도시.

일곱째, 미개발 지역이 많아 도시 확장성이 좋은 도시.

지역성의 건축적 표현은 건축가들에게는 지역의 문화 발전에 가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주민들에게는 건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동안 군산 건축에는 지역성이나 도시 정체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해 온 게 사실이다. 건축가들은 지역성 표현을 위한 도시 건축의 연구에 소홀해 왔다. 개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Identity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해도 도시 전체 맥락에서의 계획이나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산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규격화 또는 기계화된 건축을보다는 상징적이고 개성있는 건축물들을 배치함으로써 도시의 특징을 강조하고 지역성이 표출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개울가 초가 지붕의 아름다운 우리 건축물들을 재창조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군산의 산천과 지역성에 어울리는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산의 건축물들이 살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도시 재정비계획의 목적과 방향의 재설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군산이 가지고 있는 각 자연적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군산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가 군산다운 것들로 채워질 때, 지역성과 정체성은 자연적으로 강조될 수 있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군산다운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수변공간에서의 분위기, 월명공원 자락에서 능선과 조화된 Design, 아름다운 호수들과 금강 유역을 조망할 수 있는 Design 등, 군산만의 Identity를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러나 군산에는 아직까지 지역성을 대표할 만한 특별한 건축 작품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현대건축의 기점으로 군산시 청사는 부족함이 없는 상징적 건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외부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고, 군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표출할 만한 디자인 요소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위압적이면서 전형적인 관청의 모습으로 시민 앞에 그 위용을 뽐내고 있는 듯하다.

군산시 청사는 처음 위치 선정부터 문제가 많았던 만큼 현재 좁은 이면 도로들과 공개공지의 부족, 시민들과의 만남과 휴식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여 21세기 군산을 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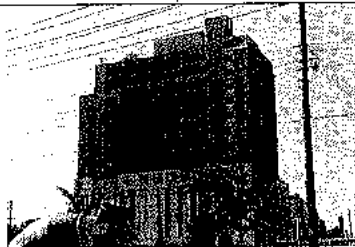
이밖에 나운동의 시민문화회관, 월명공원에 자리잡은 청소년수련원과 기타 주상복합건축물들이 있으나 역시 군산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나운동에 신축 중인 '26센터'와 해망동의 'Sea Plaza', 종암로의 '대교빌딩' 등이 완공되면 군산의 마천루로서 새로운 Sky Line을 형성할 수 있어 부족하나마 현대도시로서의 골격을 갖추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은 시대의 문화 의식의 반영물이므로 지역의 토착 건축인들에 의해 선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건축인들은 시민의 건축 의식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군산의 건축문화 발전과 아름다운 군산의 건설을 위해서는 군산시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 제도도 있어야 하겠다. 수상자에게는 Incentive를 주거나, 포상을 하는 것으로 하면 시민의 건축 문화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 건축인에게도 창작 활동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독특한 지역건축문화가 회복, 계승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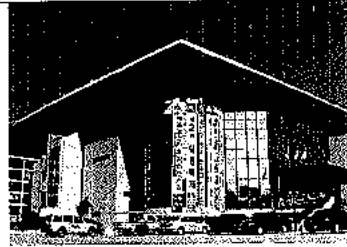
지역성의 규명과 모색을 위하여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은 전통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건축물과 장소는 소중하게 관리되어야 함은 분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군산에서는 상업적 목적과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전통적인 건축물과 명소들이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다. 해방과 함께 군산시의 경관은 급변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일본인



군산청사



월드프라자(주상복합)



군산시민문화회관

들의 거주지였던 월명동, 명산동은 고급 주택과 점포가 들어서면서 일본식 가옥들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외부 변화로는 흰 회벽과 중앙 하부의 판자 벽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벽으로, 창문은 이중창이나 창호지로 만든 여닫이문으로 바뀌고, 내부 변화로는 다다미방이 온돌이나 보일러 방으로 바뀌고 여닫이벽(후스마)도 없어졌다.

조상들의 숨결이 면면히 스며 있는 생활 터전이었던 자리들은 작고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역사성 또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군산은 도시 발전 과정에서 많은 유산들을 훼손하였지만, 이제라도 복원 또는 보존함으로써 군산의 지역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舊)한일은행 건물의 훼손이나 명산동의 유곽, 시가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일본식 주택들의 철거, 그리고 지역성을 대표하는 많은 명소들의 멸실 등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재개발의 물결이 몰아닥칠 도심의 곳곳에는 군산의 지역성을 대변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제는 포장이 되어 버렸지만 수많은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골목길들, 상인들의 걸쭉한 아우성이 아직도 묻어 있는 죽성동 청과물시장과 신영동 구시장, 아직도 쇠구루마 바퀴소리가 들릴 듯한 거리들도 역사적 맥락을 이어주는 훌륭한 도구들이다. 최근에 이르러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역의 모든 지자체들도 내재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산도 지각 변동을 예상할 수 있는 군장(群長)국가공단과 새만금 개발 등 거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도시 규모가 커질 것이 기대되고 도시 주변의 신흥 주택지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 동안 개발적 측면에서 침체되었던 분위기는 차츰 밝아지는 것 같다.

이러한 공간적 범주를 군산의 전통적인 요소들과 결합시켜 나가면 또 다른 새로운 지역문화, 지역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때에 군산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자연환경의 자원을 이용하여 수변공간과 녹지공간을 조화시킨다면 군산의 도시 이미지 제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계획 도시 군산 탐색

군산시는 100여 년의 도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인구 28만 명을 포용하고 있는 중소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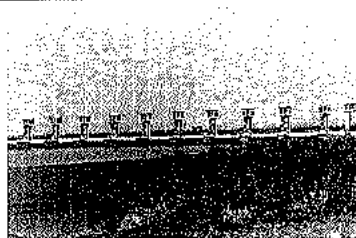
도시의 공간 체계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구 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모든 중심 기능이 이곳에 집중함으로써 전형적인 단핵구조의 도시 형태를 보였으나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학로가 뚫림으로써 나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시가지로 도심이 확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시가지는 폐쇄성이 강하여 신시가지로의 기능 분산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범위내에 다기능의 혼재로 교통 및 동선들이 더욱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아직도 도시의 중추 기능은 구도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므로 권역별 도시 기능 분산과 간선도로망의 확충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내 간선 도로 체계는 전군도로와 연결되는 번영로, 남북을 뚫는 대학로, 해방로, 경장로 들로 구성된 방사형 도로망이 고작이며, 이들을 서로 연결 기능이 미흡하고, 우회도로가 없어 교통량이 집중되며, 도시 공간의 기능 분산 배치되지 않아 교통 동선의 중첩과 혼란이 기증되어 비효율적이다. 현재 공단대호가 건설 중에 있으나 도심과 연결하는 남북 관통로가 진척이 되지 않아 간선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도심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도심은 개항 이래 군산시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하여 왔으나, 도시 성장에 수반하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적절한 구조적 대응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심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다. 중앙로 한복판에 위치한 구 시청부지와 구 경찰서 부지에는 앞으로 대형 유통시설이 입지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만약 건물의 대형화만 추구하고 공지(空地)나 주차 공간과 같은 Open Space와 국지도로의 확충이 부족하게 된다면 도심 환경 개선은 커녕 사업 자체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도심 전체에 해악적인 흉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군산시가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했던 조촌, 경장 지구는 당초 용도, 밀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이용률 제고에만 치중하여 지구내 도로망을 소로(특6m, 8m)로 조성한



대교빌딩



군산~광항간 하구둑



군산내항 부잔교

나머지, 오늘날 교통 혼잡에 의해 개발 지구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행정 기능의 핵심인 시청과 법원, 검찰청 등이 초혼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도심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으나 기대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항 100주년 기념식장으로 조성될 항만 입구 1호 광장은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광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광장으로 재구성하여 정감이 넘치는 군산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철도 전적지들을 주차장이나 소공원 등 Open Space로 조성하면 현재의 삭막한 도시환경은 훨씬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질 것이다.

군산역의 내홍동 이전이 거의 결정된 상태에서 현 군산역과 철도 부지의 활용은 구도심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으며 낙후된 동군산 지역의 개발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던 화력발전소와 세풍그룹이 공단으로 이전하게 되면 동군산 지역은 나운동 지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부도심으로 개발될 것이 기대된다.

도시의 성장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볼 때 외부적인 개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도시 자체의 수용 능력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자가 빈약하면 도시의 성장, 발전이 더디거나 멈추게 되고, 후자가 취약하면 불균형한 발전 혹은 과밀하고 조악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산시의 외부적 개발 여건은 매우 왕성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개발력을 정책적으로 잘 만 유도한다면, 균형 있고 아름다운 삶이 높은 도시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개발에 대한 수용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군산시는 금강 하구를 뒤로하고 도심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나, 방사형으로 기능을 잘 분산시킬 수 있으며, 해상 도시를 개발하여 장항 축과 연결시킴으로써 도시 팽창 압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성산과 나포를 연결하는 동군산 지역은 울창한 수림이 있고, 금강에 연하여 있으며 도심과의 접근성도 좋아 주거 기능으로서의 기능이 잘 갖추어져 있다.

개항에서 대야를 연결하는 남군산 지역은 전주와 군산간을 연결하는 축으로서 유통, 상업 기능을 부여할 수 있고, 산북지구와 군산국가공단을 연결하는 북군산 지역은 공단의 유입 안구를 흡수하는 Bed Town으로, 나운지구와 상평을 연결하는 서군산은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군산 지역을 권역별로 특성을 갖추도록 균형있게 개발한다면 외부적 개발 압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의 도심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들은 획일적인 Design과 큰 Scale로 도시 미관을 손상시키고 있다. 도심 속의 저층 주거지역이 주는 작고 다양한 공간구성 이미지들과 산 등성이의 조출한 지붕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위압적인 형태로

군림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나운동 쪽의 수려한 수림들도 강그리 깔고 메우는(Cut and Bank) 불도저식의 개발에 의하여 수십 년 자라온 수려한 수림이 베어 넘어졌고 지금은 고층 아파트로 된 콘크리트 숲으로 가득 찬 삭막한 환경으로 변해져 버렸다.

군산을 군산답게 가꾸는 일은 무엇보다도 상식적인 개발과 보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뛰어난 자연 지형과 경관을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각 장소마다의 여건과 특성을 존중한 개발 방식, 자연경관과 산을 훼손치 않는 건축 설계와 도시 설계가 개발의 명제가 되어야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지향적 군산의 역할

산수 풍경이 조화롭고 여유있는 군산은 충남과 전북의 젖줄인 금강을 마주하면서 유구한 세월을 동고동락하였고, 금강이 있음으로써 풍부한 수자원과 평야지대를 이루어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성하였다.

또한 풍부한 어장으로 포구가 형성되었고, 풍부한 공업용수의 공급과 하상 등 개발 잠재력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업화 초기부터 공단조성에 박차를 가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는 국가정책의 부재로 철저히 소외당하여 도시로서의 위상은 크게 저하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도시 경관도 크게 혼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자위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군산의 개발방향은 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적인 환경 조건을 살리고 풍요로운 문화, 역사 공간과 녹색환경의 개발, 보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의 양적 성장으로써의 소득 증대만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써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비중을 두는 개발방향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야외에서 가족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야외 공연장, 조각공원, Land 등의 설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밖에 군산이 자랑할 수 있는 자원들, 예를 들어 은적사,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오성산, 금강호 등 우수하고 특징적인 경관 자원들과 기타 잠재적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보존하고 활성화시킨다면 군산의 지역성은 훨씬 더 강조될 것이다.

군산이 타지인이 한번쯤 방문하고픈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지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군산만의 전통과 문화를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강조는 건축물들로 도시 공간을 꾸며 나감으로써 변화있고, 개성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고, 도시 표정 또한 다양화되어 활기있고 참

신한 군산만의 고유성을 갖게 될 것이다.

도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도심 공간 곳곳에 녹도를 활성화시키고,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공간들을 배치하여 숨통을 트이게 해 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도시 공간들은 도시 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도심에 대형 건축물들이 계속 들어선다면 도시의 구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무분별한 도시의 확대는 곧 실패한 도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가로망계획과 도시의 차 없는 거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도심과 맥을 같이하는 내항과 철도 부지를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하고 구시청 일대를 재정비하여 항도로서의 분위기와 역사를 실려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단지 계획이나 도시 설계를 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존할 대상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존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도시 개발 사례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훼손을 앞세운 개발이 이루어져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시 주변의 훌륭한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택지 조성을 하고, 야산의 구릉지와 경사지를 활용하는 주택의 건설 등을 통해 서민들이 목표하고 있는 자연이 풍부한 생활 공간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성과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은 강과 호수와 산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전원적인 도시이다. 아직까지 공업화에 짓밟히지도 않았고 도시의 외곽은 여전히 짜든 일상생활의 때를 깨끗이 씻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자연경관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의 경우도 일부 수려한 능선과 계곡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 공공시설을 등을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경제성을 앞세워 파헤쳤고, 고유한 장소에 대한 배려와 도시 맥락을 존중하는 일이 무시되어 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군산은 이제 개발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 막 잠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지만 실패한 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시민들 모두 자연환경 보존과 군산의 미래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군산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발전 못지 않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정감 넘치는 도시미,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군산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군산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시각에서 본 것일 것이다. 물론 도시의 발전은 그로 인해 편리함이나 쾌적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도시의 질은 그 외에도 계량화될 수 없는 많은 가치들에 의해 결

정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군산은 침체된 도시가 아니라 성장 발달한 현대 도시들이 상실한 삶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으며, 소박하고 정감있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 주는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은 정부가 제2차 국토 종합개발에서 구분한 서해 중부권의 관문이기도 하다. 도시의 체계상의 전개 과정을 봐도 그렇다. 군산에서 위로 장항, 논산, 부여, 공주, 대전, 청주에 이르는 도시회랑과 군산에서 대야, 익산, 삼례, 전주, 남원으로 이어지는 회랑이 있어 군산-전주-대전이 연결되는 광역 회랑이 출현될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군산시는 서해 중부권에서 대륙진출을 위한 교역 중심지이자 해상 물동량을 감당하는 항만 도시로 성장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라 중부권의 생산 기능을 가진 임해공업도시 기능과 어업전진기지, 서해안 해상 관광 및 휴양을 위한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의 명소 발견

1) 영동 거리

군산의 선남선녀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곳으로 일찍부터 소비 문화가 발달한 탓에 군산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상점들은 시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화려하게 장식된다. 영동 거리를 장식하는 건물들은 제각기 강한 개성을 보여준다. 물론 간판들로 인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개개의 건물 자체도 강한 개성을 가진다.

영동 거리를 지나는 젊은이들은 몸짓이 화려하고, 그 자체가 진열된 상품처럼 보인다. 밤이면 거리에는 상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네온사인이나 여러 종류의 불빛들이 영동 거리를 어지럽힌다. 영동 거리는 작은 면적 속에 유행을 소화시키기 위하여 인간힘을 쓰고 있으며, 자칫 부풀어 터질 듯한 느낌도 준다. 군산 시민들은 이곳에서 많은 추억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자주 발길을 들여놓는다.

2) 은적사

역사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절로 군산 시민들의 추억을 가득 담고 있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다. 은적사는 확실한 창건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진평왕 35년(613)에 원광국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하며, 그후 4차례 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은적사의 가람배치는 대웅전, 칠성각, 극락전, 명부전, 산신각, 종각, 묘사 등과 2기의 석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되어 있고 팔작 지붕을 하고 있다.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사용했으며 전면 좌우에 활주를 대고 있다. 대웅전은 주심포 건물로서 겹처마를 하고

있으며 내부는 마루를 놓았고, 천장은 우물 천정이며, 두 마리의 용을 조각하여 장식하고 있다. 극락전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팔작 지붕의 건물로서 동쪽으로 승방과 접해 있다. 원래는 화엄 강당이었으나 현재는 아미타불을 봉안하여 극락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칠성각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 지붕의 건물로 잡석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최근 대대적인 중수를 하여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려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군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절이다.

3) 은파유원지

군산의 내륙 한복판에 자리 한데다 월명공원과 연속되어 있어 도시민 1일 위락형 관광지로 사랑을 받고 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 오래 전부터 군산 시민의 사랑을 받아 온 은파유원지는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1.7km²의 미제저수지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 것으로 수려한 자연 환경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 은파호수의 물은 오염이 되어 녹조를 띄고 있지만, 이른 아침 호수가에 나가 보면 수면은 은쟁반 같이 반짝이고 울창한 소나무 숲에는 많은 백로들이 무리지어 한가히 놀고 있는 모습이 평화스럽게 다가온다. 오솔길로 들어서면 무수한 들꽃들이 피어 있고, 여기저기 피곤해 보이는 낚시꾼들은 현란한 비치파라솔 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굽이굽이 소나무 숲으로 감추어진 호수에는 연꽃들이 만개해서 진한 향기를 호수 가득히 뿌리고 있다. 전원의 아름다움과 포근함, 산수와 송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선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4) 월명공원

장계산의 동쪽으로 마주보는 산이 월명산인데, 밤에는 맑은 달이 그 산머리에 걸려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중첩된 산봉우리가 아름답고 산로가 굽이굽이 나 있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등산로이자 휴식처이다. 월명공원에 오르면 어느 위치에서도 탁 트인 바다와 금강 하구가 한눈에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는 강줄기에 휘감긴 시가지가 평화스럽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바다에 면한 공원으로 그 아름다운 자태는 군산 시민의 자랑이며 자존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햇빛을 상징하는 수시탑에서 바라보이는 장항제련소의 굴뚝은 하얀 구름에 휩싸여 한 폭의 그림과 같으며,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담겨져 있어 아련한 향수마저 불러일으켜 준다. 역센 바다로부터의 바람을 몸으로 막아 반대편의 시가지를 아늑하게 감싸주고, 산소의 공급원이기도 한 월명공원은 차라리 군산의 어머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발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듯, 치맛자락 여러 곳이 찢겨지고, 얼룩지게 되어 어느덧 아픔이 잉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5) 금강 호수

군산시 내흥동 일대와 옥구군의 성산면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금강 하구둑의 경우 강폭이 넓고 갯벌과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어 있어 각종 철새들의 낙원이 되어 있는 곳이며, 강의 양안이 아름다워 수변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는 곳이다. 금강호의 주변은 강변의 조망과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연계시키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자연 자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강변을 따라 약 200~300m 폭의 평지가 연결되며, 그 배후로는 돌산(100m)과 오성산(230m) 및 비교적 낮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하구둑 배후 돌산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조망이 훌륭한 지역이다.

하구둑을 지나 장항측에서 바라다 보이는 군산의 모습은 울창한 산들을 포함하고 있어 풍성하고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특히 물에 비친 군산시의 야경은 매우 낭만적이다. 그러나 하구둑에서 오성산에 이르는 산들은 석산 개발로 인해 자연의 모습을 훼손한 채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자세로 드러나 있어 화를 돋우게 한다.

6) 벚꽃 백리길

군산으로 진입하는 전-군간 도로의 벚꽃 행렬은 가로수 성격보다는 군산의 상징적 입구로서의 기능이 앞선다. 길고 긴 벚꽃 터널은 입구에서의 경관성을 좋게 하여 탄성을 지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곧게 뻗은 길의 양쪽으로는 전원적인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연결되어 있어 관광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훌륭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다른 모든 지자체들은 나름대로의 지역성을 강조할 수 있는 특화상품을 개발하느라 인간힘을 다하고 있는 반면에 군산은 문화행사와의 연계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먹거리 행사조차도 못해 지역성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군산 시가지는 공설운동장까지 유입된 벚꽃 관광객을 시내로 끌어들이 수 있는 흡인력이 없기 때문에 벚꽃행사가 지역 특화상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쓰레기 더미와 교통 혼란으로 인한 고통만 당하고 있다. 벚꽃 행렬을 공설운동장에서 은파유원지까지 그리고 하구둑까지 연장시키고 또한 시내를 통해 월명공원까지 연결시키면 관광객들은 자연적으로 시내로 유입될 것이다. 거기에 각종 문화행사와 먹거리행사를 곁들이면 군산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좌담: 전북지역 건축문화의 특성과 전망

Features and Prospect of the Architectural Cultures
Cheonbuk Province

일 시 / 1998. 8. 17. 오후5시~

장 소 / 전북건축사회관

참석자 / 김병운(백제예술대 건축과 교수, 사회)

이상돈(전북건축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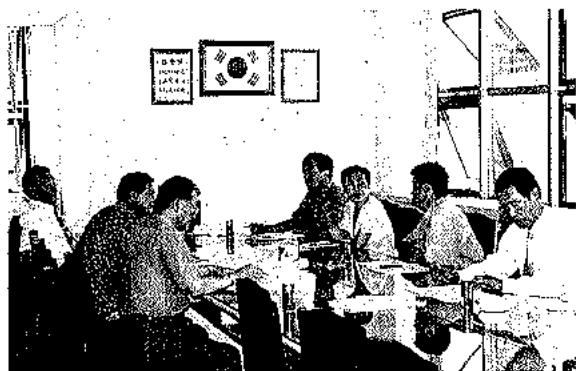
유응교(전북대 건축학과 교수)

박한규(전북대 건축학과 교수)

김희순(울건축사사무소 소장)

김동수(백제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

최산호(호원대 건축과 교수)



좌담회 광경(좌담진행 / 김병운 교수)

김병운 좌담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만일 그것이 방법상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북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은 지형적 특성과 도시 구조적인 특성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북지역의 특성을 우선 논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표현되기 위한 방법론이 아울러 등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돈 전북지역 건축문화의 특성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지역 건축문화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이 지방 문화의 특성, 자연적인 특성, 자연적인 조건, 인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역사성으로부터 앞으로의 건축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핵심을 두어 정해진 테마를 밝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김병운 우선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의 단서들에 대한 얘기들을 초반에 논하면서 역사적인 부분들, 지형적인 부분들, 도시구조적인 특



성들을 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성과 상대적인 반성에 관련되는 부분 등이 이 지역에 관련되어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나누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성에 관한 것인 만큼 지역

성과 관련지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똑같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과연 뭐냐 이런 논의점들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봐서 전통역사도시로서 맥을 잇고 지역의 건축이 있는데 현대건축과 전통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 지역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과 현재의 동시성이 동시에 자리잡은 지역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지역성과 같은 갈등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주, 익산, 군산의 역사적 환경에는 각기 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 환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증적인 장소, 어떤 건축물이면 건축물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또 하나 부분이고 또 이제 현대건축으로 넘어와서 현대도시에서의 특성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도시의 특성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나, 너무 외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 바닥에 지도를 깔고 보려는 특성이 보이는데 이러한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 현대도시의 특성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방법론으로 도시적 구조와 풍경에 관련된 전체적인 그 시각적인 부분들이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논의될 여러가지 많은 사항을 중에서 역사성과 정체성중에서도 우리가 연속시켜야 될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좌담에서는 이 고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 정신문화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연스런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전주, 익산, 군산 이 3도시가 중추적인 핵심이 되고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전북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지역적 특성을 건축과 관련지어 다양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전북지역에 건축문화의 특성을 논하면서 이 고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역사성이나 지형적인 특성이나 도시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고장의 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고 _____ 전통의 복원과 재생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시의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점만 지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방향제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좌담에서는 문제제기도 하고 방향의 제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과연 정체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 작은 나라에서 여러 지역을 다시 나누어 얼마나 그 지역들의 특성이 나타날까 하는 점입니다. 엄청난 땅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유럽,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곳을 보면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예로 보스턴, 뉴욕, 워싱턴 같은 경우 보스턴은 문학의 도시, 뉴욕은 상업의 도시, 워싱턴은 정치도시 등으로 불리는데 우리의 도시들은 4시간이면 다 왔다갔다 합니다. 아무리 멀어봤자 차로, 비행기로 한시간 거리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도시들의 특징을 연결시켜 우리나라 도시에 기능을 부여 '대전은 연구도시' '부산은 상업의 도시' '서울은 정치의 도시'로 불릴질 수 있는데 대전을 연구도시라 한다면 서울에서 통근거리 정도니까 한 생활권인 것이지요. 전주를 오랜 전통 도시라 해도 서울에 조선조 문화가 있고 수원에 조선조 문화가 있는데 이들의 차이를 어떻게 찾자는 것입니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고 거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서울이나 안동, 경주 등의 도시들이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한가지 유럽의 도시는 석조인데 우리는 목조건축 아닙니까. 유럽의 저층건축문화는 현대건축과 연속성을 지니는데 우리는 한옥에다가 초기지붕, 사찰 건축이 전부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날 있어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복원·유지 하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 전통문제를 논의할 때 흐려지

게 되고 어려운 것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병윤 _____ 유교수님 말씀은 지역의 특성을 논하는 현시점에서 크게 두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을 논하면서 이지역의 특성으로만 보지 않고 한국적인 특성중에서도 이지역의 특성으로 본다면 역으로 이 지역만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적, 한국성 중에서 한 지역을 본다고 한다면 이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때 긍정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박한규 _____ 지금 시점이 시점인 만큼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궤도는 저도 유교수님과 같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형학적이라든가 국토의 생김새, 지형을 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생긴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쉽게 말해서 큰 산맥을 몇 개로 나눠 문화를 관리하는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백제, 신라를 우리가 사회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성으로 보면 문화는 분명히 세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것을 논할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와 근거가 없는 바탕에서 옛날 것을 규명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가치와 논의들은 좋은데 지금 현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고 보면 세부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통성, 문화성, 지역성이란 말을 자주 하면서도 원가를 내놓으라고 하면 너무 비슷비슷해서 쉽게 내놓을 수가 없지요, 이 토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토론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지정학적이라든가 역사성으로 보면 특이한 나라를 민족성도 특이하고 모든 게 특이한데 현대에 와서 개념 정의가 달라져 있습니다. 소위 내셔널 국가시대에 왔거든요. 국가시대에서도 더구나 21세기의 과학주의가 발달되면서 위성문화의 개발이 되어 옛날 감각으로는 연결이 안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부 개방화되고 국제화되어 이제는 세계화란 말이죠. 옛날처럼 통신이 안되고 교통이 안될 때는 상당히 논할 가치도 있고 이것을 보전할 가치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희박해져요. 지역간의 역차도 줄어 세계가 일일생활권의 네트워크로 짜여져 가는데 지역의 역사성, 지형성, 도시구조, 지역성, 정체성, 갈등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저는 그것을 더 크게 나눠서 역사나 지형이나 우리의 입지조건에 대해서 크게 잘 알게 되므로 해서 그 정리된 것을 세계 마당에다 내놓고 세계적으로 무엇이 문제점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더 비중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전주지역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다 내 놓기에도 부끄러운 정도 아닙니까? 토속주의가 한참이었을 때를 들어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개념도 사라져가며 구라파 마주지역, 아세아 지역, 모든 정치, 경제를 갖춘 모든 대화나 분석이나 가치판단도 그렇게 흘러 큰 단계가 됩니다. 큰 단계가 되어 버리면 우리 것을 잊어 버리게 되고 다 놓친 우리 것 들고 태평양 앞에 놓인 강대국들과 우리의 내셔널리즘으로 상대가 되겠습니까, 벽을 허물어야겠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좁혀서 도시적인 차원 그런 의미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로컬리즘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내셔널리즘과 로컬리즘하고는 분명히 다른 건데 내셔널리즘은 지꾸 회마해져 갑니다. 오히려 로컬리즘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겠는데 모든 이름이나 철학이나 사상가치를 그것은 도시단위가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싶었고 그랬을 때는 60만 인구의 큰 도시인 전주같은 도시단위도 내놓을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들을 얘기하지만 5백년전 전주를 어떤 근거로 사회성, 경제·정치구조에서 역사성을 거치면서 이야기하고 따질 가치가 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논하기 어렵다는 논문을 쓰는 것도 전통건축, 전통건축하는데 우리 문화라는 얘기조차도 돌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전통건축에서 우리 한국건축사 학위 논문이 80~90개가 될 것입니다. 20~30개를 빼고나면 전부 짜맞춘 것으로 50~60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논문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무형적 측면에 보면 음식문화는 아직도 살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음식이 압에 맞지 않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축문화는 지금 벽이 어디 있습니까? 벽, 담 다 허물어지고 대서양을 건너도 똑같은 한미디로 Functionalism은 사라지고 내셔널리즘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것이라 할 것입니까? 아무 것도 없다. 옛날 것을 보존하지는 것, 즉 유물들처럼 보존하려는 의지에 기동은 점점 썩어가는데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보존하자 해서 컨서베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말장난이고 글장난이지 저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젠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 아시아 사람이 의식, 경제구조, 정치구조가 거의 이제는 같아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앞으로 내다보는 비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김희순 _____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먼저 전라북도 백제문화권은 부여도 같이 포함되었지만 백제 유형문화는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전통건축 하면 보존되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발굴되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고, 유형문화는 신라의 경주, 안동으로 해서 고려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화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하면 사실 유형문화가 관심인데 그쪽으로 내심 흘러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백제 문화는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가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리의 문화, 맛의 문화, 동우로 유형문화보다 무형문화가 더 높은 문화로 시간이 흘러도 민중에 맞추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제문화권이라 해서 외형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소리나 맛이 그대로 전래되었습니다. 박교수님과 맛, 음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전주 그러면 어떤 건축적인 환경을 떠올리기 보다는 '아, 거기는 음식이 참 맛있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맛이 대대손손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남한에 막 보여줄 만큼 화려한 유럽문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외국에 서점에 가서 그냥 서적을 주문을 할 수 있고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자유 자제로 국가도 없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맛을 느끼려면 여기를 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형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유형문화로 발전하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형문화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지만 막상, 전주에 왔을 때 제대로 그것을 소개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형문화를 유형문화로 수용해서 전무문화로 더 부각시켜 알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유응교 _____ 전북지역이 다른지역과 다른 점이 무엇이나 라고 했을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논의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수 _____ 소리문화는 있는데 가시적인 건축문화가 없어 아쉽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백제가 망하면서부터 1천4백년동안 현대의 통치자의 통치논리, 지배논리에 의해서 백제문화가 왜곡되고 마멸되고 손실되어서 묻혀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도 그런 맥락으로 백제문화를 편의를 하고, 표방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후 고려, 조선시대 특히 왜정시대에는 일본의 아스카문화도 백제의 근원입니다. 거기서 전수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그 과거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더 백제문화에 대한 것을 도멸하고 파괴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문화가 흔적이 없어졌는데 얼마 남지 않은 백제건축 흔적은 미륵사지의 석탑, 무열왕릉에서 발견된 장신구와 와당, 특히 이 와당은 전부터 좀

있었지요. 와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고구려 것은 대륙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선이 부드럽게 곡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칼날처럼 되어 있고 백제 것은 선이 화려하고 섬세하고 여성적인 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신라것은 치밀하고 이성적입니다. 육당 최남선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고구려는 의지적이라 했고, 신라는 이성적이며, 백제는 감성적이라 했습니다. 감성은 어디인가 찾아보았더니 와담이라고 할지 어떤 무늬들이 아름답고 우아해 여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제가 고구려 지방으로부터 내려왔으면서도 물론 최근 학설에서는 백제가 고구려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남조, 만주지역에서 내려왔다고도 합니다만 여하튼 북방계 민족입니다. 백제는 14C 남조문화의 영향을 받아 북쪽에서 내려온 북방적인 요소와 지중화적으로 해양을 띠고 있는 해양적인 요소를 지녀 북방적인 남성적인 요소와 해양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독특한 문화로 구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때문에 백제문화가 오늘날 감성적이고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온화하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서산에 있는 마애불, 마애 삼전불상에서 보면 백제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마애 삼전불에 나타난 백제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순박합니다. 신라 사람들의 눈은 날카로운데가 있는데 살쾨 어린아이의 동자처럼 포동포동하면서도 소탈하고 순박하고 그런 표정, 그것이 백제의 얼굴, 백제의 표정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북방적인 요소와 남방적인 요소, 백제는 둘레가 많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의식문화에서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개 남지 않은 가시적인 측면에서 백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백제의 정신을 보면 삼국사기에서 보듯이 지아비 정신이 특별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신이 무엇이나 할 때 한의 정서를 얘기합니다. 한국인에게 있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함이나 원한, 복수심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억울함과 분함을 승화시키는 차원입니다. 맺힘이 아니라 풀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으로는 높아져가고 철학적으로 깊어져가고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한의 특성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가장 독특한 정서중의 하나로 삼국중에서 이것은 백제에 있고 판소리문화에서도 맺힌 한을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백제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아비 정신, 지아비 섬김의 정신은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고려사 같은 것을 보면 방동산가, 지리산가, 무등산가, 정읍사 등 곳곳의 문헌에 백제여인들이 출정나가거나 외출나간 남편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국중에서도 백제문화에만 유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로 한이 있지만 지아비 섬김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외국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읍사에도 공간적인 배경은 나오지만 신라의 처용가의 경우 그 달 밝은 밤에 외간 남자와 동침하면서 환락의 밤을 보내는데 백제여인은 무등산에 올라가 지아비가 무사히 돌아오

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지아비 섬김의 정신은 그 근원이 백제 정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아비 섬김의 정신의 무형적인 독성과 같은 정신은 여성적이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그런 정신, 여기다 총체적으로 통털어서 어떤 사람이 백제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삼국사가 김부식이 한 말에서처럼 그 사람이 백제 정신을 총체적으로 표상하고 깎아내렸으면서도 유독 그 대목만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궁궐을 지었는데 그 궁궐을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검이불누’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이불치’ 화려했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그것이 백제의 궁궐을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산에 있는 마애삼존불이 온화하고 소탈한 모습이랄지 검이불누랄지 화이불치의 정신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소박한 한국적인 토속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에서 가끔 행사가 있으면 손님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원에 들르게 되면 남원 어귀에서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여기는 정말 사람 살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그러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남원은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원도시” 같다는 것이지요. 다른 도시의 시종심부는 별로지만 숲이 있고 전원도시를 느끼게 하지요. 그럼 그것은 어디서 ... 우선 광한루에 들어가면 숲이 있습니다. 광한루 앞에 냇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산이 있는데 요즘은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구름다리를 놓았습니다. 둥글둥글 자연유산과 어떤 분위기를 지아내면서 구름다리를 놓았습니다. 저번 조사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곳 1~2위중에 남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한 것처럼 뭔가 한국적인 맛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전라도 남원과 같이 조선시대 도읍지였다 남원에서 받은 인상과 같이 다른 도시에서 봤을 때는 고전적인 분위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전의 도시, 전통의 도시로의 인상을 주면서 발달된 옛날의 전주 얼굴과도 같은 그런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호남제일문이나 교동에 한옥보존지구로 지금은 없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원을 찾으면 한국적 느낌이 바로 온다는 것처럼 전주를 찾았을 때도 백제의 정신이 담긴 여성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고전적인 분위기와 현대를 잘 대비시켜 조화를 이루도록 한 전주의 모습, 한옥자체에서 전통적인 특성을 느끼는 것처럼 가시적 형태들이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와 경쟁이 되고 비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병윤 지역의 특성에 대해 최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최산호_____지금 현재의 추세나 패러다임의 사고가 Globalization 과 같은 것이어서 사료도 없는 데에서 전통을 추구하고자 빠져있는 것이 앞서의 지적인데 저는 조금 이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지역마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도시 어디나 되어가는 과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군산만 봐도 군산만의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의 한 거리처럼 똑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다른 도시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적 요소들이, 흔적들이 많이 살아있고 역사성이 보이는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이나 도시적인 장소들에서는 아직도 일본 문화를 볼 수 있는 건물이나 거리들이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풍의 건축물도 개항시의 근대성을 간직 한 채 발견됩니다. 전라북도를 진입하는 관문이 되다보니까 외부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냥 지워버릴 수만은 없는 것들이 현재 도시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명소들이 유지, 보존이 되지 않고 거의 다 훼손된 상태로 있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부각시킨다면 군산은 항구도시를 Water Front의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시가지에서부터 워터프론트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양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시민들도 그것을 잊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도시들이 군산에서처럼 그러한 도시적 특성들을 강하게 살리지 못하듯이 전주에서도 전주만의 특성,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역사적 현장의 유물들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거의 획일화된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리즘이 각 도시적 특성으로 강하게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한규_____앞서 지적한대로 도시단위로의 발전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한 점을 잘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최산호_____지역건축에 대한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건축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고 지구가 다 하나가 되어가는 중으로 아시아, 미주, 유럽이 다 이렇게 되어 가는데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의 구분이 필요할까요. 전주는 애항의 도시이자, 교육도시이고, 전통도시이고, 문화도시인데 이것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없습니다. 전주는 전주다운 것을 찾아보고 익산은 익산다운 것을 찾아보고 군산은 군산다운 것을 찾아 건축적으로 유도해서 그런 특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깊이 나

가다 보면 편협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바닥에서 너무 편협하게 사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의 도시를 돌아다 보면, 예를 들어 캐나다의 퀘벡이나 몬트리올은 같은 캐나다이면 서로 독특합니다. 토론토는 토론토대로의 특성이 있고, 미국의 시카고도 시카고대로 특성이 있고, 뉴욕은 뉴욕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도 로마대로 특성이 있고 베니스는 베니스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전주같은 경우 분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길게 도시가 선형형태로 되어 있고, 익산은 철도가 생기면서 도시가 발달되었으며, 군산은 개항을 하면서 항구도시로 발달해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전라권에는 남겨진 문화들이 그런대로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보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대 건축에 접목시킬수 있을까? 사실상 현대건축과 전통건축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통건축은 전통건축대로 발전해야 되겠고 현대건축은 현대건축대로 각기 발전해야 됩니다. 공공성 있는 건물이라든지 보존할 수 있는 건물은 전통건축물쪽으로 발전시키고 협의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문화재들은 복원해 후세에 남겨주고 현대건축물은 개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전북지방을 볼 때 역사도시이고, 전통도시이고, 교육도시이고, 애항도시이고, 양반도시이고, 그곳에 가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로 이것을 어떻게 잘 재치있게 살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 여깁니다.

김희순_____무형적 발전에 좀더 많은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박한규_____캐나다의 몬트리올, 토론토를 예로 들었는데 그곳은 민족이 다릅니다. 그 곳은 불란서인, 영국 인도 살고 있으며,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풍속이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이것이 그들을 크게 구분짓게 하는데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조그마한 땡땡어리 안에서 조금씩 변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현지점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잘 꼬집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김병운_____지역적인 특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기전에 첫번째 유교수님이 말씀한 부분과 박교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한 느낌으로 한국건축의 특성은 외국 건축들의 자연스러운 구축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똑같은 양식주의에 의해 거의 건축물들이 유사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변별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사실 장소적인 특성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방식에서 오히려 건축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무형적이라

해서 유형에 극 상반대는 얘기가 아니고 건축을 탄생시키는 기본적인 단서는 무형적인 어떤 존재감의 실체라고 봅니다. 한 예로 김교수님이 말씀한 정서적인 문제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활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소, 가령 광한루라는 같은 것들도 스토리텔러에 의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역사의 시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식으로 보면 고전건축의 양식은 루가 있고 정이 있고 이런 것을 배치해 놓는 안배형식이기 때문에 이 안배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탄생시키도록 유도한 단서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건축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대구 같으면 약령시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할 만한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의 간격을 건축으로 논의하고 서울에서는 종로의 피바로와 같은 장소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하지만 다시 쓰는 현대의 도시구조들을 이들이 무시하지 않고 지우지도 않고 기억하면서 쓴다면 과거와 현재는 동시에 손을 잡고 변별성을 지니면서 발전해 가리라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체 알지 못하는 이 도시와 지역의 인정이 넘치는 다양한 이야기와 이를 실현시키는 건축으로의 전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는 새로 쓰여진 도시 구조속에 스며야 할 역사의 Old Map을 펼쳐는데 필요한 실증적 단서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_____ 비전문가이지만 그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자연미를 가지고 올망졸망 작은 모습들의 원형을 도시구조에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도시의 대형화가 불가피하고 건축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 해도 우리의 자연미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국의 미가 집약될 수 있는 선의 실체를 도시의 스카이라인 등에 자연스럽게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박한규 _____ 도시계획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완전 계획도시, 인공도시(Artificial, Man-Made의 인공 도시로는 캔버라 같은 도시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인도의 뉴델리 같은 도시들로 그 다음 중간, 반 인공, 반 자연도시라 해서 파리, 워싱턴 오타와), 그 다음 세번째로 특경이나 서울, 동경과 같은 자연 발생적 도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캔버라와 같은 완전계획도시는 그리핀이 현상 설계해서 당선된 안으로 그리핀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곳에 산이 두드러지게 있는데 그 산의 봉우리 기점을 찾아 거기서부터 개념을 찾아낸 것입니다.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을 좀 줘야겠다 해서 그리핀은 호수를 일부러 뚫힌 후 인공적으로 도시를 엮



지로 그림 그려서 만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전주의 완산칠봉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자연조건을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산칠봉, 건제산, 한방산이 있고 이런 것은 완전계획 도시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현재 개발된 도시에 무엇을 개편시키기 보다 현재 개발된 것은 개발된 대로 두고 뉴델리 처럼 신도시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스카이라인과 같은 문제에 착안해 계획성있게 할 때 캔버라처럼 여러모로 좋은 자연조건을 살려 계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파리, 런던, 로마 등의 유럽건축은 도시에 8층 이상의 건물은 건축법으로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이상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특정계획을 취해 개발해 3~40점 아파트 들어가는 줄속이 보이는데, 전주를 전주의 문화나 전통을 살려 가면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결국 커다란 숙제인데 우리가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이 안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얘기는 그런 관점을 잘 살려가지고 자연을 인공화시켜보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 자체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것이 시사하는 것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실천력이 있다는 것과 지원이 미약합니다. 오래전의 일로 캔버라에 대사관을 짓는데 다 새로 짓는 것이고 자기 나라 대사관이니까 자기나라 상징건축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 것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한국적인 것에 대해 인색하였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태국과 우리 점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20점대 90점이 나왔습니다. 과정에서 그것 가지고 그때 박정화씨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이런 자연환경을 살리되 우리 것을 조금은 확정져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해야 할텐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합니다.

우리 것에 대한 해외의 인식은 매우 적어 세계 건축계의 잡지 World Architecture는 중국건축을 36p 소개했고, 일본건축은 24p, 한국건축은 1p로 그 1p에는 딱 27자가 소개되었는데 대문짝과 큰 문꼬리 하나로 다루어진 것을 볼 때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표상으로 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고장 전주뿐만 아니라 세계를 봤을 때 보다 한국적인 특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는 실증적으로 한번 짚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병운 _____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우

리가 표현하려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순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많은데 그 건축가들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 일본에는 유명한 건축가들이 많은데 그 건축가를 키우는데 일본의 재벌들이나 일본의 재력이 키워지 외국 사람이 키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건축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각광받는 건축가들이 많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 계획도시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지만 전주는 5백년 이상 도읍지로서 기존의 상태가 강해서 어려움이 더욱 크고 더욱이 접목은 형태상으로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연 발생된 도시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보존을 하자면 개발이 제한을 받고 설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전통과 현대건축의 접목, 말은 쉬우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주시청 같은 형태를 해 놓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초기에는 전통건축을 접목하라는 해서 학생운동 건축가들이 초기에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요즘은 어떻게 전통의 개념을 현대건축 기능에 맞으면서도 도입을 할까하는데 착안해서 주택에서 보면 마당 개념을 현대 건축에 적용하고 있어 보기에는 현대건축에 적용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현대건축 같지만 쓰는 우리의 의식은 전통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를 본다면 기존에 있던 자연 발생적으로 된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서구의 도시 예로써 델리처럼 구도시, 신도시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도시는 개발보다는 오히려 역제를 통해서 과거의 흔적을 살리려는 것인데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가 관건이고 한옥지구의 교통 한옥지구의 보존처럼 그것을 어떻게 보존을 하면서 억제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어 퇴색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보존을 한다는 얘기는 전통건축에 대해서 보존지구를 선정해서 보존해야 되고 현대건축은 고도지구 등의 법적제한을 하는데 이번에 전주지구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공원별로 스카이라인을 지정했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 나름대로 시가지에서 공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전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통라인, 현대라인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건축들

을 시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 어떤 학자들은 역사성있는 건축물들만 아니면 경주같이 한옥으로만 지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가 아닌 좀더 보완되어야 할 도시입니다. 전주라는 특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되어 있던 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개화기 이전에는 고건축으로 분류하고 개화기 이후의 건축은 측량문화 이니거나 군산쪽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소득성향이 높아지니까 정말로 무분별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때 혼돈문화가 제기됐다고 얘기하기도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상당히 우리 눈에 기분 나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요즘엔 다양한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결국 소득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건축물의 질이 좋아지고 소비 성향이 낮아지면 건축물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방은 농도기 때문에 돈 많은 분들이 안계서 좋은 집들은 안 짓는거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역사성있는 건축물들을 분류해서 이런 것들은 보존하고 발굴해서 복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민중거리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맛과 멋의 도시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슬로건만 있고 실천 프로그램이 약합니다. 우리가 머리속에 들어있는 것은 있습니다. '전주가야 먹을 만큼 먹고 맛있게 먹고 온다', 그리고 '멋이 있고 교육도시고 양반도시다.' 라고 하는데 실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입니다. 실천 방법론으로 이것은 전도시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고건축은 분류해서 보존을 하고 발굴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그외엔 현대적인 건축물들에서 상업성있는 건축물로 개발해서 좀더 비교될 수 있도록 특색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자기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가지에 일제때 지어진 건축물이 많은데 이들을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재고해야 할 일이고 군산경찰서도 험하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리는 좀 특색이 떨어집니다. 주변의 철도 때문에 확장되어 있고 또 폭발사고가 일어나 도시를 계획적으로 재개발하려다 보니까 특색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각각의 도시들이 그들만의 문제들을 조금씩이라도 부각시켜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제시를 제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산호 군산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거의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의문가는 것이 일본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 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건물들이나 탑 같은 것을 없앴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매우 아깝다는 생각이 들

고 시내 곳곳에 한국인들이 설립해 사용하던 은행건물이 있는데 나중에 술집으로 바뀌어 황폐해진 상태인데 복원이 논의 중입니다.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그곳에 기념탑이 있는 광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가 최만식 선생의 기념관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살려서 지역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후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도시나 건축물들에는 한국만이 가진 미가 승화되지 않고 한국인의 이미지라든지 한국만의 상징성들이 도시나 건축에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설계나 시공하는 모든 건설 종사인들이 너무나 경제성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획일적이며 단순한 건축조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설환경입니다. 그런 건설정책에서부터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에 건축가들이 충분히 일어서 수 있게 지역건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그 지역만의 캐릭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한국 건축의 대표성이라든지 상징성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병운 _____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거의 두번째 질문과 세번째 질문을 중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교수님들은 주로 도시적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하였고 뒤에 말씀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실증적인 건축물이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 전통건축을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현재의 지역적인 갈등과 섞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 회장님 말씀중에는 그것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시대별로 구분해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증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단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형태적으로도 운용상으로 그렇지만 사실 없는 것에서 찾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사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전북지역도 굉장한 지역으로 부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제 만경의 벌판에서 우리 것만의 향토를 느끼고 그 곳에서 일어났던 많은 농민들의 전쟁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한 의지를 주고 한국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고장이 아 고장이고, 또 얼마전에 실수관 도예가의 본향인 남원에서 불을 채취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간다고 들었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특질이 있는 고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장이 왜 아직까지도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하나의 단순한 Conservation이라는 이런 것들이 작은 유형이지만은

그것을 전체적, 도시적, 자연적, 국제적인 차원으로 묶어가면서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에 주목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단서가 될 수 있으면 하며 오늘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발군의 기회로 삼아지기를 바랍니다.

김동수 _____ 신수원씨가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가족으로부터 자기 집안이 14대간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은 풀철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 했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는 글 수가 없는 풀처럼 단절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주 제한적이면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그것이 끈질긴 철학이고 풀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백제의 정신도 우리 전통의 끈질김으로 이어지면서 곡선이면서도 스케일이 크지 않지만 그것이 형태를 이루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이 죽어있는 구렁이의 꿈틀거림이 아니라 곡선은 곡선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경천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라도 올라오는 선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승천의 비상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끈질긴 노력이고, 백제인들이 지닌 북방민족과 해양요소들의 혼적입니다. 전통을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전주시청과 같이 잘못하면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전통화가 되는데 원형적인 요소가 무엇이나 볼 때는 선을 살리되 유약을 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넉넉한 듯 하면서도 끝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보다 더 천숙한 끈질김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풀철학의 끈질김으로 발전되려면 승천의 지가 있는 것으로 현대건축에서도 단순한 선하나 부동포처럼 단순한 선이 아니라 끝을 감아올리는 의지를 지녔으면 합니다.

박한규 _____ 그것을 약간 건축적 요소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발굴하는 것이 큰 재산이고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글도 쓰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승천의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의미를 갖고 나왔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한가지 있는 것이 지금 36년동안 일본에게 수탈당한 것이 큰 한계가 되는데 일본의 고서에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때의 목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를 탄생시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신라때 목수 3사람이 집을 짓는데 상량식할 때에 그 때는 자가 없었으니까 새끼줄로 맞춰 올렸습니다. 두사람이 올라가서 기둥 간격을 두고 새끼줄을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보니까 두사람 사이에 산이 하나 나온 것입니다. 이 근거 외에는 근거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후 발전 과정에서 모방이 지속되어졌으리라 봅니다.

유용교 _____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전주가 그 보호구역의 시발점으로 계획에 착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로 입증하고도 그것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그 전통건축이라고 그러는데 전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현대건축에서 시저펠리가 한 교보빌딩이야말로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에 나타낸 표상입니다. 교보빌딩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일본의 대사관으로 설계했는데 당초 8각형 두개의 조합으로 지으려 했으나 교보에서 고집을 부려 일본 것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사들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결과가 되니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도시맥락을 무시해 버린 결과가 되니까 똑같은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건물 하나를 보면 뭐가 느껴지느냐? 오랜 전통은 목재 표피가 갖고 있는 갈색톤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건축이 지니는 벽면의 분할성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둥의 돌출도 입면에 강조된 표피적 요소를 잘 활용하고 있는 점, 피로티 부분에서 현관부분에 약간 돌출되어 이루어진 형태로 우리 전통을 현대에 나타낸다고 했을 때 최소한 그런 응답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기와를 씌우니까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것이더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청도 문앞에 눈썹 지붕처럼 기와를 갖다 댔다해서 전통이라는 것은 이미 아니더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흐름은 어떻게 그것을 나타낼 것이냐? 저는 첫째 삼국사상, 천지인애사상이 현대건축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부분과 벽면부분과 기단부분 삼분체계가 현대건축에 아파트를 짓던 공공건물을 짓던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름의 형태가 되던 다만 단일한 면으로 싱글한 면으로 처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전주의 특성, 우리가 달려왔던 전통주의 건축의 특징을 나타내고자 노력을 한다면 삼분체계의 이념, 즉 삼국사상에 개념을 도입한 천지인애사상을 도입했으면하는것이 주장입니다.

두번째는 자연의 조화입니다. 전통건축의 특징이 자연과의 조화인 만큼 국부적으로 담장이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 교수주의형에 맞춰오고 점층적으로 내려와서 담장이 쌓여져 있고 담장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축, 서구건축에서는 그것을 밀고 반듯이 해서 만들어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담장의 아름다움을 느낄 것입니다. 양쪽 밑에 지단 부분에 돌이 있습니다. 돌이 파손되어 갈았을 때 옛날 솟돌과 암돌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돌을 쌓았는데 어느날 이것을 보수한다고 네모 반듯한 것을 깎아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조화를 깨뜨리는 것, 그리고 인공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자연과 조화 우리가 옛날에 기둥 보도 이런 것을 썼

을 때 휘어진 목재를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까? 힘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만약에 제조로 인해서 반듯이 밀어서 썼다 했을 때는 이것이 인공입니다.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없겠느냐? 그 다음에 현대건축에서는 계단을 대리석으로 매끄럽게 올라갈 때 비오는 날 조심스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대건축으로 장난입니다. 인간에게 유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옛날 선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로 인정재 같은 곳은 매끈한 돌로 한 것이 아니라 판다듬을 했습니다. 빗을 봐서는 눈을 현란하게 하지 않고 걸어갈 때 비가 올 때에 미끄러지지 않고 아주 인간미가 넘쳐 흐르는데 지금 현대건축가들이 그런 세심한 그 정신, 노동적인 요소 그 개념 정신을 얼마나 꼬집어내고 유추해서 살리느냐? 살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접근할 때 축의 변화를 찾는 것이 전통예술의 특징이 아닙니다. 공공처소를 짓든 주택을 짓든 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딘가 두세번 꺾어서 서로의 시선변화 개념을 보존하게 해줘야 하고 그런 것이 정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번째, 아까 백제건축에서 호사아불치, 검아불누를 얘기했는데 화려해 보이면서도 소박, 검소합니다. 우리의 그것이 맞습니다. 기둥이나 지붕, 벽면이 아주 단순합니다. 들어가서 보면 문쪽에 문양이 있다든가, 기둥에 있어서 디테일 디자인이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대건축에서 과연 볼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현대건축중에 제가 볼 때는 여유있는 공간, 여백의 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유있는 공간을 두지 않습니다. 가령 10층 건물이라면 5층 정도에서 여유 공간층을 떼내서 거기에 휴식공간 등을 두어 바깥경치를 바라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건축주가 응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설계하더라도 복도를 기다가 알코브 공간을 넣어서 여유있는 공간을 줘야 하는데 학생들이 커피 마시고 담배 피울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통개념으로 우리의 조선조 건축, 우리의 전통건축에서는 여유있는 공간을 둡니다. 전통적으로 나타내는 여유있는 공간입니다. 과연 현대건축에도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요? 과학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건축 일조조절을 위해서 처미를 뒀는데 그것이 여름과 겨울에 있어서의 태양의 고도를 조절하는 장치였습니다. 과연 현대건축에서 그걸 고려해서 짓고 있느냐? 서울대학은 'ㄷ'형 루버를 대었습니다. 4층이나 5층 이상의 건물은 지어선 안됩니다. 이런 점은 정말로 그 정신을 나타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누바를 통해서 태양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 8층이상 지으면 안됩니다. 우리 전주를 예를 들어서 5~6층이나 8층으로 건물을 전부 제한해 완전히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층수 하나로도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으니...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전주, 익산, 군산을 얘기한다면 저는 전주는 오래된 조선조 고전도시니까 갈색 붉은 벽돌 계통으로 모든 건축물을 좀더 회색창 연하게 끌고 가야된

다고 봅니다. 화이트, 회색, 흑색 이런 것은 반대하며 벽돌색 쪽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층수를 낮춰야 합니다.

익산은 어떻게 하나 익산은 산이 없습니다. 삭막한 도시고 그 뒤에는 상업적 기능이 활발. 도시로 물을 많이 만들고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드는 동시에 꽃을 많이 내걸어 수림형성으로 녹색을 위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산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백색도시에 붉은색 지붕으로 항구에 들어오는 사람 낭만적인 도시로 느낌을 크게 가지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은 지붕들을 거의 그린으로 하고 전주는 벽체를 갈색톤 그런 문양 몇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도 규제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스트리트 퍼니처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전주는 색동적으로... 디자인을 옛날부터 주장을 했으니까 옐로우, 레드, 블루색을 넣어 안내 표시도 만들고 쓰레기통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공중전화 박스도 만들고 누구든지 전주에는 색동저고리, 조상들의 상징적인 옷, '아이거 조선조구나' 하고 느껴졌으면 합니다.

최신호 _____ 건축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며, 우선 전주쪽으로 보면 전주는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도시복판에다가 고층건물을 지어 그 잔잔한 바다에 큰 배가 지나가는 것처럼 되어 산에 올라 고층 건물들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고도를 제한해 가지고 그전에 건축학회 연구해 스카이라인을 전부 어느 포인트에서 보면서 각도를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주는 분지도시를 감안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저층을 건축물 도시로, 전주시내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와 똑같은 얘기지만 익산쪽에는 광활한 평야지역입니다. 좀더 고층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군산은 아까 전주와 비슷한 그런 항구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이 어우러지게 하는것이 항구도시의 멋이 있지 않을까 하여 몇가지 제가 생각해왔습니다. 첫째 평면적으로 우리 건축물들은 하화마을에 가 보면 'ㄷ, ㅁ, ㄴ'자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본 받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고, 두번째 구조적으로 보면 지붕있는 건축물을 지었으면 합니다. 지붕에는 약간 각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는 각도, 물론 서양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높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각도도 추녀지붕 끝에 추녀 문제인데 시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건축법의 규정때문입니다. 처마 문제는 조금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통풍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기단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내용이고 다음으로 문양 말씀드리는데 저도 시도를 여러군데 많이 합니다. 전통문양은 내소사나 선운사를 가보



면 창살 문양이 다 틀립니다. 한국문양의 우리 것을 해 놓으면 같은 건축물이라도 느낌이 와 닿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도 동아나 흙이나 돌, 목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 현대건축이라고 해서 갑자기 벽대에 철망치고 그냥 물탈을 발라 버립니다. 단열재 위에 철망을 치고 물탈을 발라서 끝을 내는데 요즘 시내의 모든 건축물들이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볼 때 상당히 인종게 보여집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갈까? 과연 전주 시내를 흐트리는 것이 아닌가? 물론 현대적인 재료, 경제적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과거에서 따올 수 있는 것들은 관장을 해서 제도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규 _____ 디자인 크라이테리아가 등장하는데 빌딩을 세우기 전에 어번스트럭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 도시개발정책,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지방자치에 많이들 이양하고 하나씩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고쳐야 할 것은 뭐다 하며 야단들인데 그린벨트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아쉽지만 세계 선진국 21번 나라 가운데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완전히 그 나라 도시의 1/3밖에 안되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밀도가 그 만큼 높다는 얘긴데 밀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도시문제, 도로, 교통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전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전주권을 찾아 보는데 전주권의 기준이 적어도 7~8기지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우선 철저히 도시 밀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 토지 이용계획 도시공간의 기능이 이렇게 까지 좁았던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집 주변에 여관이 3개 있고 크지 않지만 소음이 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 해 보겠다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도로체계를 확보하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무조건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교과서로 알고 있는 런던은 도시를 거의 컴파스로 물레를 친 것처럼 둥글게 변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을 그렇게 했고 제가 알기로는 컴파스로 세번을 쳤습니다. 4km이면 4km로 안 폭은 풀고 그 다음 4km로 다시 친다는 말씀입니다. 치는데 폭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계획하게 푸는 것이 아닌데 지금 무계획하게 풀려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푸는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할 때 도시 기능이나 밀도라든가 공간 체계라든가 도로체계 전부 거기에 따라 갑니다. 그런 일들의 해결을 제1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도로체계도 다 교과서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 했을 때 적용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6기지 도로체계도 그대로 전주에

적용을 하고 우리는 건축의 스타일이 없습니다. 24개 이상 스타일 없습니다. $3 \times 8 = 24$ 인데 바로 이 8가지라는 것은 하우스프로토타입으로 타입이 8개입니다. 8개가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 규모가 크고 작은 것 해서 $3 \times 8 = 24$ 인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합니다. 하우스프로토타입으로 주거건축의 유형을 빨리 정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시겠지만 세계 건축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꼭 한바다씩 하는 것이 색채가 없다는 것이고 색채를 개발한 것은 86아시안 게임과 88의 올림픽게임 때 많이 쓰였습니다. 전주같은 경우에는 더 조금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판으로 간판이 이렇게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선전국 21국에 벽, 담은 없습니다. 산림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 벽 담을 절대로 없애야 합니다. 평소에도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전부 이렇게 고쳐 야가 말했던 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더 한다면 맛과 마을의 도시라고 했는데 마을에 맛도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전주 전체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짬뽕, 단맛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흘러서는 안되고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정책을 가지고 거리 하나라도 특색있게 해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희순 _____ 전주건축에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듣다보니까 건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의 특징이었고 그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도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야가 유교수님이나 최산호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개개인이 얘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걸 빨리 지적해서 그런 부분을 테마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사람들의 선호도 같은 것을 바로 빨리 정책으로 대안해서 제시해줘야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개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개정을 하려고 해도 할 기준이 없습니다. 법은 너무나 엄하고 융통성이 전혀 없으면서 실정법은 융통성이 전혀 없어 곤란합니다. 오히려 지침이나 기준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것이 이런 도시를 양성해내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고 항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법을 수정을 하고 아니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좌담회가 전북지역 건축 문화 특성인데 전북에 역사적 환경권의 장소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의 역사적 장소 전주 가명 흔적 찾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가 전주보다는 인구도 많고 큰데 가서 느낀점이 뭐냐면 거기는 가명이 없습니다. 그런 도시 내에는 역사적 흔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가명 자리에 교동이 들어서고 객사앞에 관통로가 들어서는 바람에 다 커져버린감이 있지만 그래도 객사쪽에서 풍남문이 바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안내하냐면 경기장에 차를 세우고 경기장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데는 큰 궁궐은 있지만 눈안에 쏙 들어오는 그야말로 휴먼스케일의 어떤 전

이가 없습니다. 경기장을 보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너무 아담해서 좋습니다. 규모가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먼스케일의 전이니까. 걸어서 어디를 가냐면 풍남문을 안내한 다음에 도청을 지나서 여기가 옛날에 관현이 있었던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객사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차량들을 통제해서 혼잡하게 걸지 않고 정말 우리가 로마의 대도시에 들어 가면 차를 세워놓고 계속 걸어 다니지 않아도 그다음에 그곳이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교동지역인데 물론 그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민원도 많고 불편함도 많고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로 삼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일본에서 건축하는 분들이 오면 경주를 안가고 대개 전주에 갑니다. 그분들이 꼭 가서 보고싶어 하는 곳이 한옥 보전지구입니다. 가끔 오목대를 가서 오목대에서 한옥 보존지구를... 왜냐면 너무나 단이 높고 소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녀서는 풍남지역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서 봐야 한옥 보전지구를 볼 수가 있기에 그렇고 식사는 꼭 비빔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게 그사람들은 깔끔하잖아요. 깔끔한 비빔밥집을 가고 싶는데 맛을 그나마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집은 지저분하고, 깔끔한 집은 맛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느끼는 게 깔끔한 집에서 비빔밥 맛을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집이 없습니다.

비빔밥을 꼭 먹고 가야 전주에 다녀온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쓰고 왔다', '브로드웨이에 가서 뮤지컬을 보고왔다'는 것이 자랑거리에 속하듯. 그리고 전주가 아닌 데로는 운주 화암사를 가는데 그동안의 일본인들이 백제문화가 전수가 안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게 건축구조에서 하양식 구조를 얘기하다가 화암사의 구조 발견으로 결국 일본의 건축문화는 백제에서 건너 갔구나라고 규명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을에 정음의 내장사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 내장사와 연계해서 동학혁명 발상지가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기념탑도 만들고, 전시관도 만들고,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때 조금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순례지로 이전 정신문화 순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소프트웨어개발이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하고 싶은 것이 부안에 도예지 개발인데 지금은 도예지에 기념탑 하나만 세워져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많이 개발해야 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익산 주변으로 익산 주변에 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곳을 데려가면 바다를 가는 것 같아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인데 방송에는 전라북도나 맨 논농사짓는 곳만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는 공장도 하나도 없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자체가 우리의 하나의 자연지형의 특성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름다운 산이 너무나 예쁘다고 합니다. 민둥산들이 얼마 쫓가슴 같이 너무 아름답다는게 산 전체가 다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눈안에 들어옵니다, 손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된 아름다움들이 뿌리로 남고 맛으로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산호 전라북도가 인위적인 환경이라든지 지리적 환경에 있어서 다른 도시,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 도시들을 보면 너무 물리적이고 너무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는데 대단히 불편하고 삭막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아까 말씀한 그린벨트를 제한적으로나마 해제해 밀도를 낮추고 저층 건축물을 만들어 기능을 분산시켜서 광역적으로 도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삶의 질이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어디에서 보니까 세계환경에서도 항상 우리가 충돌하는 것이 개발이나 보존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 세계환경회의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기능적으로 도시가 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는가?

다시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 유교수님께서도 각 지역마다의 특징인 컬러 매치를 잘 해야 된다는 점에 저도 참 큰 철학으로 느끼며 전라북도를 전라북도의 문화라든지 전라북도의 건축이 뭐냐 하는 것은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전북하면 전주를 대표로, 상징적으로 떠올리게 되며, 사실 전북의 이미지는 전주가 대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의 대표성보다는 그 중심으로 해 다른 조그마한 도시에서의 문화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도 좀 폭넓게 포용해 가면서 발전시킨다면 훨씬 더 전북이 외부로 알려질 것이고 많은 자산과 우리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풍광 이런 것들도 외국사람들이 좀더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로는 각각의 도시들이 각각 개성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해 나가고 발전을 해 나가는데 3개 도시간의 연결수단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전주에서 군산에 무슨 볼 일이 있어 갈 경우 너무나 불편한데 각각의 도시 발전의 축을 3개의 시를 향해서 방향을 맞춰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 3시가 하나의 벨트로서 연결되어 같이 생활할 수 있어 기능적으로도 훨씬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김병윤 그 말씀은 각 도시의 외곽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까?

박한규 1965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제일 지성도시가 어디냐 했을 때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선택된 곳이 전주였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개성 도시를 대표로 하고 있는 곳이 전주인데 그때 이미 연장 도시안 이 나왔습니다.

유용교 우리 전주의 건축문화 기본정신에서 대표적으로 중심을 찾았을 때, 역사적으로는 조선조 문화입니다. 그럴 조선조 문화로서 대립과 갈등의 표상은 마한 백제문화로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에 표상입니다. 동학은 저항정신인데 정읍사에 나오는 노랫속은 순종성입니다. 전북쪽의 예술문화나 특성들이 대립과 갈등이라고 봅니다. 대립과 갈등이 현대화 전통의 개발과 보존에 대립과 갈등, 이것의 조화를 통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잠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화를 통해서 승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건축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병윤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에 충분히 들어 있고 또 실무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산업체적인 제안도 하시고 구체적 도시적 차원에서와 정신차원으로 보면 두분이 역사에 대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보다 우리지역에 실체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정신사적으로나 앞으로 발전적인 계기로 봤을 때 충분히 재충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명히 앞으로의 변별성과 특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예를 들며 얘기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수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한 사항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자반조성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전주는 도시 밀집화가 되어 있어 이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전주와 완주를 통합해서 전주속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을 외곽쪽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교통이 해소되고 공간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역적 이기주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박한규 결론은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첫째 잘못된 법규를 제대로 고쳐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상이 없고 꿈이 없고 계획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법규하고 지원 이것만 해결이 되면 전주의 발전이 무궁무진하고 기대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상돈.....제가 가우디 건축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나절 걸어서 한군데 밖에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내를 계속 걸어 다녔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원숭이 공원을 만들어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게 없습니다. 남원 광한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광한루 등지의 고건축을 답사할 때 자동차를 통해서는 못 보는 것이 많아 주로 걷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3시에 있는 지방문화제나 국보급 문화제, 공원 모두 사람이 걸으며 볼 수 있도록 도보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에 결부시켜 맛과 멋이 풍기는 거리들이 도보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기존 시가지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리는 상업 중심도시로 요즘 보석산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보석사려 와서 군산 해물 좋으니까 군산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전주에 왔으니까 비빔밥 생각이 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한옥 보전지구를 전주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건축물은 개인 것이고 토지는 모두 향교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살면서 토지를 내고 사는 집입니다. 너무 영세합니다. 개발도 보존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은 개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민속마을 아니면 시가지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전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행정적 환경으로 유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더 행정구조에서 지원을 해 재원을 보조해 준다든지해서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유응교.....좀 전에 가우디전을 얘기하셨는데 가우디 선은 인위적인 선으로 억지로 만든, 보이기 위한 선이라면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에 나타난 선은 마음에서 우러난 선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마음의 선이지, 인공적인 선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차이가 있느냐며... 역시 우리의 선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감동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감추고 다닌 것이었는데 백제에서 발견된 향로대의 불꽃처럼 타 올라가는 그 선을 보면 그 누가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선에 타오르는 불꽃의 이미지가 섬세한 다테일로 선에 닿으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것을 현대건축에 우리가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은 아까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형적인 것에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형적으로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있어야 합니다. 전주의 건축적, 도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

는 아이덴티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형에 문화적 요소가 이벤트화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우느냐로 조선조의 거리가 재현되고 한옥 보전지구를 조선조 특구라고 해서 다시 개발해야 합니다.

과거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풀어주기를 희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뭔가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조선조 문화에 조선조 특구로 지정되어서 공식적으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추억이 어린 도시, 기억에 남는 도시, 그리고 회상의 도시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강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세워야 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정책 개발과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시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 봅니다.

김화순.....오늘 나온 많은 문제점들이 시정되어서 2002년 월드컵전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정말로 한번 세계로 나가는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산호.....백제문화권을 많이 연구한다고 하는데 백제문화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충청도에서는 충청도대로, 남도는 남도대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따로 한다면... 학문적인 공개가 모여져 보존도 되고 해야 되겠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동료라든지 역사를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국사를 배워 한국 역사는 알지만 전주에 살면서 전주의 역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인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그 지역 청소년들에게 그것이 교육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병운.....장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북 지역의 건축을 잘 모르는 많은 전문인, 그리고 지역 문화에 관심을 지닌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고, 관행을 진행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지침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축사와 보증제도 - 공제사업 하루가 급하다

Architects and Guarantee Systems - Urgent Tasks of Mutual Aid Activities

이종정 / 본협회 특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by Lee Jung-Jeong

IMF의 고통이 시작된 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많은 정책들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우리 건축사들을 위한 기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으며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속에 불안한 마음만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금년 7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실시된 설계·감리손해배상보증제도가 많은 건축사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더욱이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의 엄청난 부실로 인하여 몇 천만원짜리 설계건을 간신히 수주하여 계약보증서 한장 발급받는데 연대보증, 재산담보와 더불어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우리 건축사들의 현실은 IMF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고 있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현실

손해배상보증제도 실시 이후에 많은 회원들이 건축사협회, 감리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에 보증제도 및 보증서 발급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으며, 발주처 및 보증보험사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협회의 대책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그중에서 몇가지 실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말 모건축사사무소에서는 서울시○○○관리사무소 1억2천만원짜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으러 보증보험사를 찾아갔으나 대표 및 소장의 연대보증과 재산담보, 그리고 50만원정도의 보증수수료를 요구하였다. 울며겨자먹기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고 발주처에 제출하니 이제는 손해배상보증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요즘같이 수주하기 힘든 때 발주처의 심기를 건들면 안된다는 생각에 손해배상보증서를 발급받고자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으나 보증보험사는 설계손해배상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아직 보증요율 결정되지 않았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급한 마음에 협회에 문의하여 왔다. 또다른 사례로 서울시○○구청에서 3천만원정도의 설계건을 수주한 모건축사사무소는 발주처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계약보증서는 믿을 수 없으니 달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면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3천만원의 20%면 600만원이며 이를 돌려받으려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거나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발주처가 마음대로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받지않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협회로 문의하러 왔다 했다(이 건축사사무소는 발주처로부터 다음 날 손해배상보증서도 발급받아 오라는 연락을 받음).

만약에 전자의 건축사사무소가 1억2천만원에 대한 각종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

-계약보증 수수료: 약 50만원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최저출자금: 1,420만원

-손해배상보증서 발급비: 1억2천만원 × 약 2.4%(보증요율) = 288만원

-합계: 약 1,758만원 소요

위에서 보듯이 1억2천만원 용역계약에 출자금 1,420만원과 약 338만원의 보증서발급비용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외에 회원들의 소식을 들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만기가 되어 연장신청을 하려해도 예전같이 보증보험사의 대출보증서는 받지않고 재산담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보증문제에 따른 향후 전망

건기법에 의한 설계·감리손해배상보증제도 실시이후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설계나 감리용역 발주시 금액이나 법률에 관계없이 보증서를 요구하여 무리가 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발주처의 요구에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기법 제2조의 「건축사법 제2조 3호에 의한 설계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들어 보증서발급 제외대상이라고 홍보하여 왔으나 각 자치단체에서 발주자의 고유권한을 내세워 조례, 규칙, 업무요령 등의 규정으로 손해배상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할시 협회

로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손해배상보증서 발급을 이유로 민간부문에서도 각종 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에 커다란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이에 대해서 공제조합가입 등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건축사사무소는 신용불량을 이유로 자격제한 또는 참여마저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발주자의 요구대로 각종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건축사사무소와 그렇지 못한 사무소는 업무능력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건축설계를 발주하는 소비자의 대상층은 매우 한정돼 있다. 빌딩, 아파트 등의 대형공사를 하는 시공사는 일단 제외하더라도 민간부문의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경우 건축업자의 대부분이 공인자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더욱이 이들 건축물을 발주하는 측에서 보면 설계·감리로 인한 하자 및 손해배상을 해주는 건축사사무소와 그렇지 않는 사무소간의 평가는 분명할 것이다.

98년 8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1차 건설산업진흥계획(안)에 따르면 2002년까지 건설업면허제도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바꾸고,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을 부채질하는 각종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등의 보증시 신용평가기관(또는 보증기관)이 시공능력 및 경영상태를 엄격히 심사해 보증여부를 결정하도록하여 부적격업체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98년 9월 15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시공회사들은 건축물의 하자발생시 하자의 원인을 따져 만약에 그 책임이 설계부실로 판명될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해 우선 보수후 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소비자, 사회단체, 각 경제주체 등의 요구는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제」, 「리콜제」 등의 입법에 반영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소비자보호원이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제조물책임법」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된다 하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을 그 대상물에 포함시키려하고 있어 건축 및 시공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방안

1) 타단체 현황

전문직업인이 일반인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

여 다른 전문가 단체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 각 전문가 단체가 설립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원들 스스로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보증한도를 설정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건축사들은 건축사법 및 정관의 규정에 공제사업 근거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큰 불행이라 생각하며 타전문가 단체에 비추어 볼 때 건축사들이 정부와 시민단체로부터 불만의 표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협회가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회에서는 92년부터 공제조합 및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공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금년 건축사법 개정(안) 수립시에는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건교부가 관련부처 의견수렴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부의 산하단체 신설억제 방침에 의한다며 “부동의” 의견을 받아 현재로서는 공제조합의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데 다행히 행정자치부가 건교부에 제출한 「부동의 의견서」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예를 들며 협회에서 보증을 발급할 수 있으니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기보다 협회에서 직접 공제사업을 행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98년 3월 임시총회에서 공제조합에 대한 안건 협의시 일부 회원이 공제조합을 만들면 자본금이 수천억이 필요하며 직원도 수십명을 새로 채용해야하는 등 부담이 큼으로 공제조합의 설립은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던 의견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회원중 회사 6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 200만원의 출자금을 받아 총 98억원의 출자금과 직원 5명으로 각종 보증 및 대출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일부회원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데의 근거마련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의지와 출자금의 조성이다. 공제사업의 추진이 부진했던 이유는 일부 회원이 설립 문제에 신중히 검토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94년과 97년 두 번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각 84%, 76%라는 높은 지지율로 회원들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건기법 개정과 각종 보증의 요구가 증가추세로 절차와 비용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늦추어 회원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뽑힐 회장과 집행부는 계속 추진되어온 공제사업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시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미 마음 급한 회원들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공제회에

〈표 1〉 전문직종사자의 손해배상책임법령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전문직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의사
손해배상 관련 근거법	• 세무사법 제16조의2 • 시행령 제33조의4	• 법무사법 제26조 • 시행령 제38조	• 공인회계사법 제19조 • 시행령 제13조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 • 시행령 제20조의2	• 부동산중개업 법 제19조 • 시행령 제23조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26조 • 시행령 제44조	• 의료법 제28조의2 • 시행령 제15조의2
보증금액	2천만원 이상	개인3천만원 이상 법인 1인당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법인1억원 이상 개인2천만원 이상	법인 5천만원이상 개인 2천만원이상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 공제사 업에 출연	1천만원
보증형태	보증보험가입 공 제사업가입 공탁 기관 공탁	보증보험 또는 공 제사업가입	보증보험 또는 공 제사업가입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가입 공제사업가입 공탁기관 공탁	공제사업가입	공제사업가입
가입여부	강제	강제	강제	강제	강제	강제	강제

가입한 상태다. 협회가 더 이상 공제사업을 방치한다면 협회가
입이 임의화될 경우 협회를 떠나 공제조합 등으로 가는 회원이
많아질 것이다. 회원없이 협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출자금의 조성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최저출자금은
1,420만원이나 이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200~300만원대에
서 결정하여 소형사무소의 가입부담을 줄이고 최저출자금이 부
담이 되는 회원에게는 은행과 연계하여 저렴한 이자율로 장기
대출을 받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협회가 특
별회계로 보유한 입회비적립금을 회원개인별 일정금액 분배하
여 공제사업에 출자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렇게 출자자와 출자금만 마련된다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의 시행령에 전력기술인협회와 같이 건축사협회가 보증기관
으로 인정되면 공제조합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일부 회원이 우려하는 직원의 문제도 현재 협
회 직원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
한다면 협회 조직의 축소와 공제사업 인원의 충원이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는 결과가 발생되어 회원들의 부담은 거의 없으리
라 생각된다.

맺음말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리의
보호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등장된 20세기와 앞으로 기술과
신용이 강화될 21세기를 위하여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
립하려 하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며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건설기계
협회가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제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으
며, 이외에 건설가설협회, 골재협회 등이 서둘러 공제조합 및

공제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금년들어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개혁을 추진하
면서 그 일환으로 사업자단체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협회가입의의화, 회비강제징수폐지, 협회설립자율화 등
은 앞으로 협회의 운영에 엄청난 변화를 주리라 생각된다. 이
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협회가 살아남고 우리 건축사들이 스스
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적은 회비로 많은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하며 회원들은 협회가 이러한 일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막연히 경제가 어렵고 회원이
어려워 회비수입이 감소되리라 생각하여 단순히 사업예산을
줄이고, 인건비를 삭감하고, 협회의 기구축소를 요구한다면 가
뜩이나 하는 일 없다고 생각되는 협회가 회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더욱 없어질 것이다.

생각해 보자. 사업예산이 줄어들어 할 일이 없
어진 직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급여가 50%삭감된 직
원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봉사할 자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건축사를 대상으로하는 또다른 협회가 생
긴다면 두 협회가 제공하는 회원서비스의 질이 어느 한 협회의
존폐를 결정지을 것이다. 협회가 불필요한 사업예산과 인력을 줄
이는 것은 국가경제가 거품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꼭 필요한 작
업이다. 그러나 단순히 숫자놀음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과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반드시 한번쯤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회원들에게는 협회의 건
축연구소나 건축정보센터와 더불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증서의
경제적 효율적 발급과 사무소운영을 위해 저렴한 자금을 대출받
을 수 있는 공제사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발주처의 황당한 보
증서 요구로 여기저기 헤매다가 겨우 분을 삭힌 어느 회원이 협
회의 공제사업이 지연되는 사연을 알고 한 말이 생각난다.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들도 한 번 겪
어보라고 해!”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을 위한 표준화-(완)

The Standardization for Open System Building

21세기를 대비한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와 건축가의 중심적 역할

박준영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표준화팀장, 건축사, 공학박사

by Park Joon-Young

이번 글은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을 위한 표준화'의 최종회로서 "21세기를 대비한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와 건축가의 중심적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이 글은 국내 건설시장 개방과 급변화하는 국제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표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였으며,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를 제시함으로써 다가올 21세기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 도모하고자 하였다. <편집자 주>

1. 시작하며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건설환경의 급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개발 요구와 국내외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표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범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표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는 달리 사회 전반적으로 표준화의 개념, 역할, 추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추진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막연히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팽배함으로써 표준화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자는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을 위한 표준화"를 주 대상으로 표준화의 변천과정, 개념, 역할, 실천방법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으며, 3회에 걸쳐 단계별로 소개하였다. 이번 4회는 최종회로 이미 앞에서 소개했던 표준화를 중심으로 건축산업에서 다가올 21세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 Open System Building)을 위한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표준화의 범용적 활용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건축산업의 현안(懸案)과 위기(危機)

1) 국내부문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체제로 인하여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동 집약적인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건축산업의 경우에는 IMF체제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해 오던 건축산업의 기반시설 및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IMF체제 이전부터 금

1) 제1회 국내 표준화의 시대별 변천과정(건축사 9807), 제2회 국제화에 대응한 표준화의 개념 및 역할(건축사 9808), 제3회 표준화 추진목표 및 실천전략(안)과 공공건축물의 MC설계 활용방법(건축사 9809) 등을 의미함.
2)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속한 사회적 변화가 예고된 것 중 가장 큰 변화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공급위주형 사회”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수요지향형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건축분야만의 제한적인 범위가 아니며 모든 산업이 추구하는 주된 흐름이다. 그러나 IMF체제로 인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는 물가하락, 소비저하, 가치하락 등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채사회가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의 터널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는 수요자의 구매력 자체를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건축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으며, 건축분야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종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업계에서도 많은 연구·개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나 관련업계의 위기극복 노력은 분명한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범정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정부와 관련업계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성 구축과 신뢰성 회복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상황을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강제적인 규정이나 기준만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 할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불합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업계도 무조건적인 정부의 지원만을 요구하려는 자세는 이미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하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려는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97년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건설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IMF체제로 인하여 그 변화속도는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 또는 세계화가 당면한 시대적 요구임은 분명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수렴하며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한국적인 관점과 기준에서 국제화, 세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한국적인 것을 상실하였으며 국내사장이 선진각국의 다양한 실험의 장(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역할이 증대한다고 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 문화, 제도, 시스템 등을 포기하고 ISO의 기준체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실질적인 활용에 오히려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요소기술, 기준,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국제규격(ISO)화시키면서 ISO의 기준체계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려는 주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 국제부문

선진각국은 다가올 21세기에도 그들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노력을 가일층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회의(Agenda 21)를 기점으로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이후 환경이 차지하는 영역이 지역적인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환경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현재 선진각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Sustainable Building)이나 지속 가능한 환경(Sustainable Environment) 개발 등에 대한 많은 연구 개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ISO 산하 기술위원회인 TC207(환경경영, Environment Management)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국제규격(ISO)이 정비되고 있으며, TC205(건물환경설계, Building Environment Design)는 건축물의 환경(온도, 실내공기, 에너지보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계기준을 국제규격화하고 있다. 또한 TC59(건축, Building Construction)³⁾에서도 현재 활발하게 건축물의 환경 및 성능 관련 국제규격(ISO)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ISO와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CIB⁴⁾ W24(Open Industrialization in Building)에서도 지속 가능한 건축(Sustainable Building)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개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96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CIB W24 국제세미나에서 핀란드의 “Asko Sarja(CIB W24의 간사)”는 “Sustainable Building Through Open Industrialization”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공업화건축(Industrialization in Building)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것이며 건축구성재의 재활용에 관한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CIB W24에서는 공업화건축과 지속 가능한 건축을 상호연계시켜

3) TC59(Building Construction): 건축(建築), 건축구조(建築構造), 건축구조물(建築構造物), 건설(建設)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4) CIB: International Council for Building Research Studies and Documentation을 의미함.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 Open System Building)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선진각국은 환경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 시장을 주 대상으로 건축의 공업화와 개방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써 자국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기술, 기준, 시스템 등을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21세기는 ISO를 중심으로 하여 ISO를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건축에 있어서 표준화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은 건축물, 건축공간, 건축구성재 등의 호환성(Changeability)⁵⁾ 확보를 적극 도모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 폐자재의 원천적 발생 억제, 건축물의 내구성 확보 등을 바탕으로 한 “환경보존형 건축물”을 건설하는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21세기 건축산업의 국제적 추이

1) 산업구조의 변화

20세기가 국가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⁶⁾를 했다면, 다가올 21세기는 지역이나 국가라는 제한적인 범주에서 탈피하여 무한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인류에 있어서 21세기는 20세기를 마감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의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다.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국가만이 희망적인 상황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21세기는 산업구조 자체가 개방형, 수요지향형, 환경친화형, 정보지향형 등을 기본요소로 추구할 것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개인은 상당히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21세기가 요구하는 기본요소를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종합할 때, 21세기의 산업구조는 “수요지향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는 인종, 문화, 국가 등의 구분 없이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시계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건축산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논리는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ISO를 중심으로 한 선진각국에서 21세기를 대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 Open System Building) 구축을 위한 노력은 21세기 건축산업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건축의 시스템화 유형

공급과 수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건축의 시스템화는 (그림 3-1)과 같이 3가지 유형 - 전통방식, 산업주도형 방식, 고객주도형방식 - 으로 분류⁷⁾할 수 있다. 전통방식은 건축가(AR, Architect), 고객(CL, Client), 시공자(CO, Contractor)를 구성요소로 하는 시스템으로써 구성요소 상호간에 분명한 역할이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공업화건축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할 때는 전통방식과는 달리 ‘건축시스템(Building System)’을 생산하는 산업계(IN, Industry), 전체 건축디자인으로 통합될 서브시스템을 설계하는 시스템디자이너(SD, System Designer), 건축프로세스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고객의 조직체(OC, Organization of Clients) 등 3가지의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된다.

또한 6가지 구성요소가 상호 어떻게 연계성을 유지하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폐쇄형 건축시스템(Closed Building System)”과 연계된 산업주도형방식,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 Building)”과 연계된 고객주도형방식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21세기에 건축시스템은 ‘고객주도형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건축의 개방형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객주도형방식’에서는 잠재적 고객의 조직체(OC)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를 대표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건축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건축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구성요소 상호간에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동의 약속”을 제안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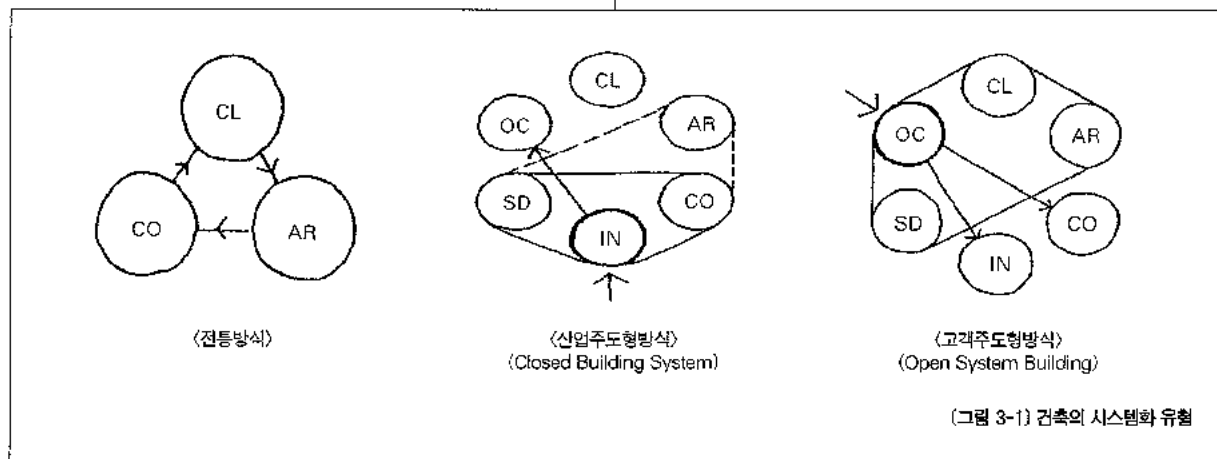
3) 공급과 수요의 시스템화 및 순환성

건축시스템은 공급과 수요의 유기적인 연계체

5) 호환성(Changeability): 다양성(多様性), 적응성(適應性), 통합성(整合性)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개념이며, 건축물 건축공간 건축구성재를 대상으로 하여 치수, 접합부, 성능(質) 등의 확보를 추구한다. 또한 모듈정합(MC, Modular Coordination)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의 오픈부품화(OCS, Open Component System)와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 Open System Building)이 추구하는 목표가 된다(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참조).

6) 다각적인 시도: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무역장벽기술협정(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등을 의미함.

7) 건설분야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대토론회 결과 보고서(1996.7)에서 Prof. J. Detrué(벨기에, ISO/TC39/SC 1 위원)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과 필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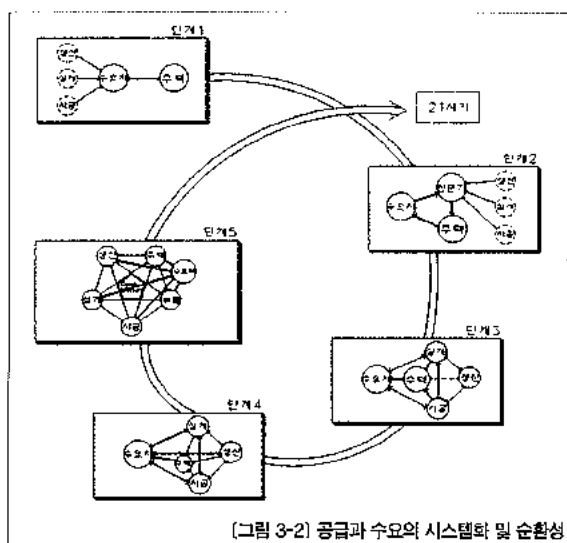
제 구축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본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공급과 수요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상호 공존하는 형태로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건축생산의 지속성과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지니게 된다. 특히 공급과 수요간의 자율적 기능을 바탕으로 모듈정합(MC)방법을 활용하여 건축의 오픈부품화(OCS)⁸⁾를 추진하려 할 때, 설계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자재의 규격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상호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악순환의 고리(Vicious Circle)”를 형성하게 되면 자율적 기능이라는 것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국가가 강제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타파하고 공급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연계시킬 때는 전자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은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고 동시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유기적인 시스템화 구축이 필요하며, 공급과 수요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듈치수정합(MDC, Modular Dimensional Coordination)은 시스템화의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또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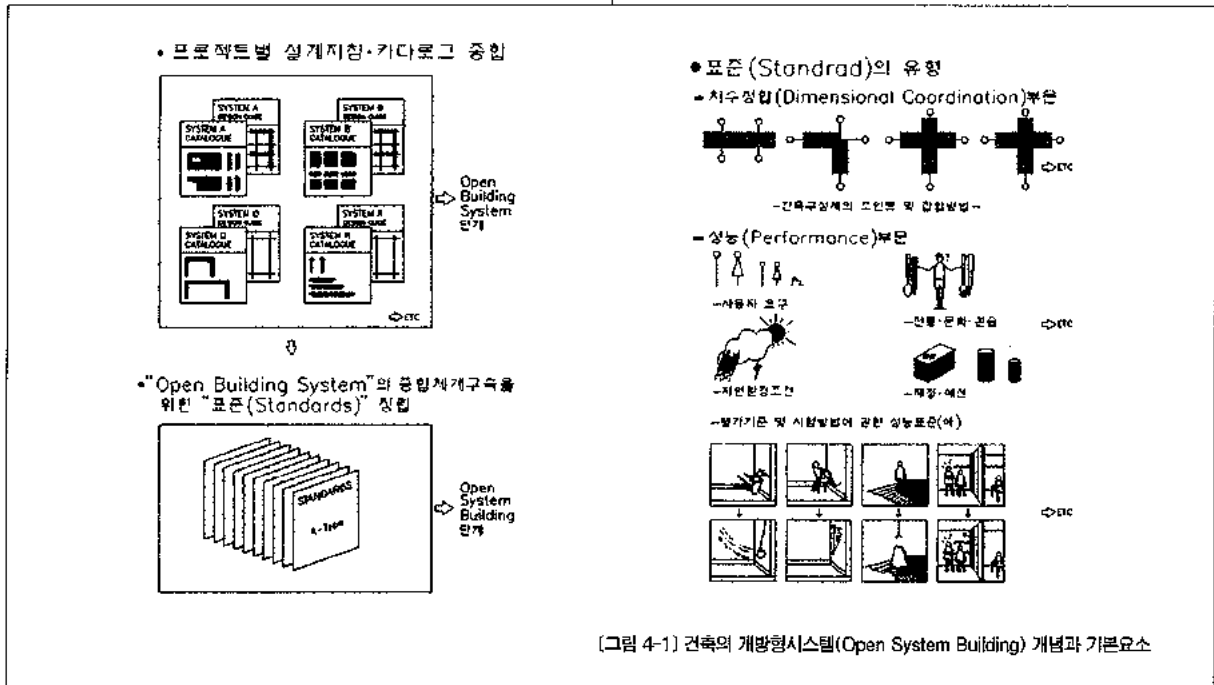
축 전 과정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를 합리적으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건축의 오픈부품화(OCS)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급과 수요의 시스템화 및 순환성은 (그림 3-2)와 같이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니는 특성이 있다. 또한 원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요와 공급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는 전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추적인 수단으로도 작용해 왔다. 따라서 21세기 건축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시스템화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의미에서 공존하며 변화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그림 3-2)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현재 3~4단계의 범주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하여 ISO 및 선진각국에서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5단계로서 한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4.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 구축을 위한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

1)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 Open Sys-



- 8) 오픈부품화(OCS, Open Component System):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체(Support와 Infill)가 하나의 유기적인 개방형시스템(OSB)하에서 모듈정합(MC)을 바탕으로 일정한 원칙 하에 조립되어 사로운 역할 - 건축물, 건축공간, 건축구성체 상호간의 호환성 확보 등 - 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추진력과 방향성을 지닌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 9) 건축시스템의 유형: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참조).
 - ① 폐쇄형 건축시스템(CBS, Closed Building System):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특정 건축구성체 - 구조체(Support)와 비구조체(Infill) - 만을 반복적으로 대량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건축물의 확장과 단순화를 초래하며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획일화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을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② 부분 개방형 건축시스템(SOBS, Semi - Open Building System): 폐쇄형 건축시스템(CBS)과 개방형 건축시스템(OBS)의 중간적인 특성을 지닌 시스템이다.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구성체를 대량생산 공급하는 일에서는 폐쇄형 건축시스템(CBS)과 유사하며, 건축구성체를 생산하는 업체 상호간의 치수정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개방형 건축시스템(OBS)의 특성과 지니고 있다.
 - ③ 개방형 건축시스템(OBS, Open Building System): 건축물과 각 유형별로 정립한 모듈정합 설계지침(Design Guideline)과 건축구성체의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규격화된 건축구성체를 생산,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동일한 유형의 건축물에서는 건축구성체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당 전체 건축물의 치수 및 성능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Framework)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호환성 확보가 미흡하다.
 - ④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 Open System Building)



(그림 4-1)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 Building) 개념과 기본요소

tem Building)

건축시스템의 유형¹⁰⁾ 가운데서 건축의 개방형 시스템(OSB)은 폐쇄형 건축시스템(CBS)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이라고도 한다. 모든 건축물의 유형별로 각각 구축한 "개방형 건축시스템(OBS)"을 관련분야(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계(Framework)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건축가의 주도하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치수정합(Dimensional Coordination)과 성능(Performances)에 대한 표준(Standards)을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건축물 자체의 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을 구성하는 건축구성재 - 구조체(Support)와 비구조체(Infill) - 상호간의 치수 및 성능에 대한 정합을 이루도록 하여 전체 건축물의 호환성(Changeability) - 다양성, 적응성, 정합성 - 을 확보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화된 건축환경 (Built Environment)을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한 협의적으로는 관련분야만의 종합적인 개방형시스템을 의미하지만 향후 건설 CALS¹¹⁾와 연계될 때는 전체산업의 "Open System"을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로서도 그 의미가 크다. 특히, 100%의 "Open System Building" 구현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가급적 근접하려는데 주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그 어떤 시스템도 100%라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Jan Delrue의 제안¹¹⁾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그림 4-1]은 "건축의 개방형시스템 (OSB)" 개념과 기본요소를 도식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2) 건축 표준화의 개념 및 기본구성체계

표준화는 모듈정합(MC, Modular Coordination)을 바탕으로 건축구성재(Support와 Infill)가 공간이나 구성재 상호간에 치수, 성능, 접합부 등의 호환성(Change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재규격화(치수 및 성능표준화), 설계표준화, 시공표준화 분야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표준화의 영역성은 [그림 4-2]와 같이 생산성, 사용성, 기능성 등의 3가지 기본요소를 바탕으로 하며, 기본구성체계는 [그림 4-3]과 같이 자재규격화(치수 및 성능표준화), 설계표준화, 시공표준화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재규격화(치수 및 성능표준화)와 관련된 생산분야는 건축구성재의 치수와 요구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설계표준화와 관련된 설계분야는

10) 건설 CALS: 정보의 교환, 공유, 연계 등을 기본으로 하여 경비감축, 품질확보/향상, 사업진행의 신속화 등을 달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 업종의 다변화, 시장의 국제화,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안정성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건축계획, 설계, 공사, 관리 등의 건설프로세스를 통합 DB 및 네트워크화 등으로 구현시키기 위하여,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CALS의 여원은 4가지 유형으로 변경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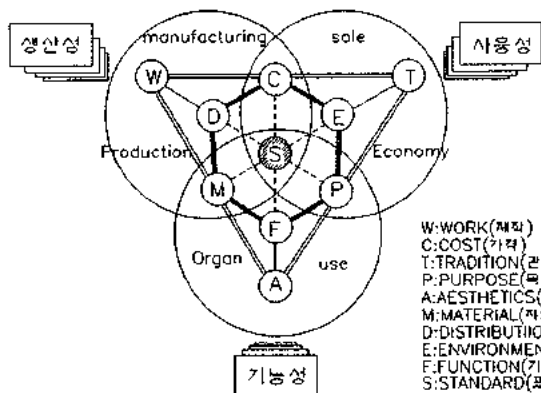
① 컴퓨터에 의한 병렬업무의 지원(Computer-Aided Logistic Support)

② 컴퓨터에 의한 조달과 병합업무의 지원(Computer-Aided Acquisition & Logistic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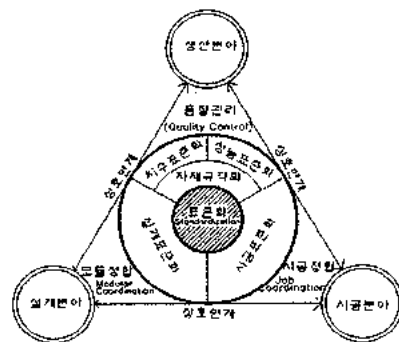
③ 계층적인 조달과 생애주기의 지원(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④ 광속 상거래(Commerce at Light Speed).

11) Prof. J. Delrue의 제안: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대한주택중사 주택연구소 표준화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건설분야의 표준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1996.7.10)"에서 Prof. J. Delrue가 발표한 "Present state of standardisation and international tre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에서 참조.



[그림 4-2] 표준화의 영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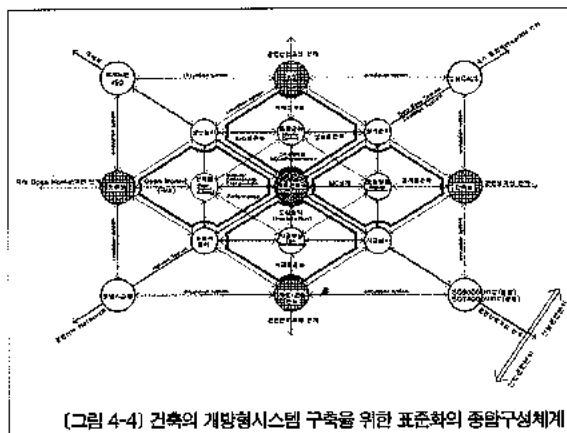


[그림 4-3] 표준화의 기본구성체계

모듈화된 건축구성재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오픈부품화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듈정합(MC)방법, 시공표준화와 관련된 시공분야는 모듈정합(MC)과의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시공정합(Job Coordination) 등을 각각 주된 수단으로 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의 각 유형과 관련분야는 개별적인 것이 아닌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

21세기를 대비하여 ISO 및 선진각국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정보화, 시스템화와 국내 제반 여건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건축의 개방형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를 종합하면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는 국제화 및 정보화를 기본축으로 하여 표준화를 자재규격화(치수 성능표준화) 설계표준화 시공표준화 분야로 각각 구분하였다. 또한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기본요소인 품질관리(QC), 모듈정합(MC), 시공정합(JC) 등을 상호 연계시켰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로 추진하는 도구로서 모듈치수정합 성능기준체계 모듈정합설계 조합원칙 등을 각각 선정하였다. 또한 수요와 공급을 건축물의 호환성(Changeability) 확보를 바탕으로 상호 연계시켰으며, 관련법 규격 제도(관습, 문화 포함) 등도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지니도록 구성함으로써 건축의 개방형시스템(OSB)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화의 종합구성체계(위상, 역할, 범위, 구성체계, 상관성, 추진방법, 방향 등)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5. 맺으며 - 건축가의 중심적 역할

IMF 한파는 눈부신 고도성장과 국민소득 1만 불 시대 달성, OECD¹²⁾ 가입 등을 계기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던 희망찬 한국에 국난(國難)과도 같은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 동안 온 국민이 힘들게 살아왔던 국가 위상을 하루 아침에 밀도 끝도 없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등의 수많은 책임전가성 언어들이 무책임하게 전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언제까지 과거만을 회상하며 암울한 현실을 무작정 탈피하려는 사고는 현재의 IMF체제 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21세기를 '희망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끈기있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건설산업은 기타 다른 산

12)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업보다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던 만큼 IMF체제의 직격탄을 그대로 받게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IMF체제 이전에는 전체 공사비 상승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건설산업에서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습식공법 위주의 건설방식에서 탈피하여 건축물의 무품화를 바탕으로 하는 건식공법 위주의 건설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했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IMF체제는 건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건설산업 자체의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건설관련 업계(자재생산, 설계, 시공분야 등)를 도산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MF체제라 하더라도 건설산업이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ISO를 중심으로 한 선진각국이 “무엇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가와 “누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서서도 이미 여러번 언급하였듯이 선진각국은 표준화를 바탕으로 한 “건축의 개방형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업으로 선정하여 계획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며, 표준화 과업추진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건축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험난한 IMF체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21세기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는 많은 장애요인 -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추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정위주의 추진, 정부관료의 전문적 지식 부족 등 - 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표준화를 통한 효과보다는 오히려 많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필자는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즉 공급자중심의 시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표준화가 추진된 반면 수요자향적 시대에서는 정부가 아닌 건축가의 창의력과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표준화 추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선진각국의 사례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부(陳腐)한 고정 관념(표준화는 안된다거나 획일화 및 단순화 등을 초래한다는 것 등)과 폐습(정부의 관료적,

타성적, 비타협적 자세, 민간부문의 수동적, 의존적 자세 등)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감독이나 통제의 관점에서 표준화를 추진해서는 안되며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자원체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표준화는 건축가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한국의 표준화는 ISO체제를 모방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한국적인 특성(전통, 문화, 관습, 제도 등의 계승)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범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 관련 교육(학생, 전문가 대상 등) 및 홍보체제(국내외 학술대회, 요소를 개발 공모전 등)가 구축되어야만 표준화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를 포함하여 건축가가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의 개방형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화”는 정부의 강제적인 추진의지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는 것과 건축가의 중심적 역할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은 “건축문화의 해”로서 21세기의 문턱에서 한국 건축의 현실을 재정비하고 다가올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중요한 해임을 우리는 재인식해야 한다. 또한 “건축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시대와 함께하며 그 시대를 표현하는 하나의 “시대적 산물”로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연속성과 생명력을 지닌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21세기 건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표준화가 구축해야 할 “건축의 개방형시스템”도 정량적인 측면 - 건축의 경제성 또는 생산성 향상 - 에서의 논리만으로 접근하려는 것보다 정성적인 측면 - 환경보호, 전통 및 문화의 계승적 발전, 삶의 질 향상 등 - 을 함께 고려하며 추진할 때 ISO 및 선진각국에서 추진하려는 시스템보다 한 차원 높은 우리만의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표준화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利益)보다는 전체사회, 국가, 세계가 공통적으로 향유(享有)할 수 있는 공익(公益)을 위한다는 내적인 소명(昭明)의식(昭明意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 4화에 걸친 짧은 건축가의 고독한 외침을 맺을까 한다. 단 오늘의 이 외침이 “21세기 한국 건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길 빌며, 필자는 또 다른 새로운 준비를 할 것이다.

협회소식 / 95

건축계소식 / 97

포커스(월드컵 주경기장) / 105

현상설계경기 /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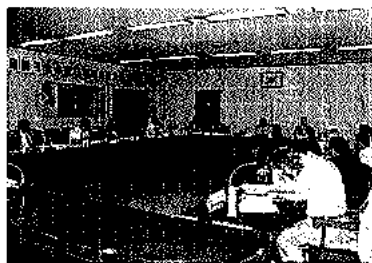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6

게시판 / 118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개최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9월 8일(제11회)과
9월 29일(제12회)에 협회 중회의실에
서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1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의 건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키로 하고, 위원 선임에 대해서
는 회장단에 위임함.

□ 위원구성

- …위원장: 이영희 고문
- …위 원: 임기만료 임원 2인, 회원
4인
- 제2호의안: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
원 가입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단체명: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 가
입비: 30만원 / 월회비: 10만원

○ 제12회

〈부의안건〉

- 제1호의안: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예산과목 명칭 중 아래의 사항을 수
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
인함.
…경영합리화연구사업비→경영합리
화지원비

- 제2호의안: 제33회 정가총회 의제 결정 승인의 건

—의제순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구 분	원 안	수 정 안
제3호의안	입회비 임의적립금 사용승인의 건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99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입회비 임의적립금 사용승인의 건

- 제3호의안: 예산편성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안) 승인의 건

—제2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구 분	원 안	수 정 안
제2조 제2항	②위원장은 이사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이사 3인, 건축사회 회장 3인, 회원 2인 및 회계전문가 1인으로 선임한다.	②..... 위원은 임원 3인, 건축사회 회장 3인, 회원 3인으로

- 제4호의안: 표창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도서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제6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구분	원안	수정안
제6조 제2항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장기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u>도서</u> 는 장기보존할 수 있다.	②.....도서 (건축관련법령)는.....

- 제6호의안: 99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제23대 회장선거 4명 후보 등록

오는 10월 29일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선거로 선출

오는 10월 29일 제33회 정기총회에 있을 우리협회 제23대 회장선거에 4명의 회원이 후보 등록하였다. 임원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를 통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후보등록 결과 김영석(국동영건축)회원, 이문우(예성건축)회원, 이세훈(세하건축)회원, 어의구(창건축)회원(가나다순)이 등록하였다.

건축정보센터 개관

개관 기념 세미나 개최

우리협회가 지난 9월 8일(화) 13시 30분에 건축정보센터를 개관하였다. 최근 불황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설계품질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관된 건축정보센터는 그 동안 우리협회의 정보자료를 보다 체계화하고 또 각 실무 부서에서 취급하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일괄관리하게 된다. 이로써 회원과 일반인들이 건

축사협회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PC통신을 통해 자료 및 문서의 전달이 이전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 이어 진행된 「건축설계사무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건축정보화를 위한 인터넷 기술동향(서울산업대 고일두 교수)"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정림건축 기술정보실 윤두영 실장)"가 발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축설계업계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공유를 통해서 각 업체의 중복투자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표준화를 통한 자료의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 건축사회, 수해지역 피해건축물 복구 위한 지원창구 개설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

서울시 건축사회가 수해지역 피해건축물 복구를 위한 지원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8월의 집중호우로 유실·파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시내 주택, 기타 건축물 등을 서울시 건축사회가 수해

만들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복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설계를 무료 혹은 실비만을 받고 대행한다.

서비스 대상 건축물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건축물중 건축법 규정에 의거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관할구청의 수해건축물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건축사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수해건축물 복구에 따른 설계비는 수해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무료, 허가대상 건축물은 실비만을 부담하며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작성, 관할구청 신고·접수는 모두 서울시 건축사회가 지정한 담당건축사가 대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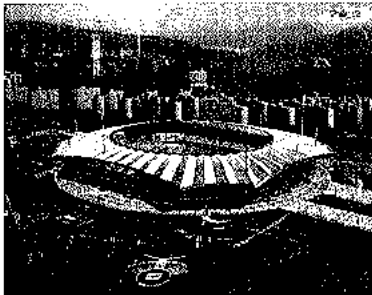
류춘수회원,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 당선

한국적인 이미지를 상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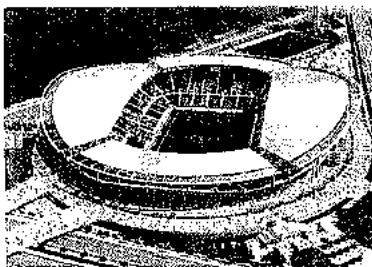
서울시와 조달청은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지난 9월 21일에 발표했다. 설계는 이공건축(대표 류춘수)·정림건축·비온드 스페이스건축, 시공은 삼성엔지니어링(주)·(주)한양·한국중공업(주)·동양고속건설(주)가 맡게 됐다.

이공건축 안은 경기장의 상징성을 방편연이나 처마, 전통적인 소반 등의 한국적인 이미지에서 유추, 조형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고 이에 설계총괄 책임건축가 류춘수씨는 무엇보다도 월드컵 경기의 승리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바람을 파란 하늘에 띄우는 방편연의 이미지에서 유추한 건축형태개념과 21세기를 향해 이 경기장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설계했다고 밝혔다.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의 규모는 연면적 4만평, 수용규모 6만4천석으로 철골구조, 스탠드 P.C. 트러스 등의 조립식

구조를 채택, 공기단축을 꾀하는 신기술, 신공법을 채택하여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완성할 계획이며 약 6개월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99년 4월 착공, 2001년 12월 완공예정이다. (105쪽 참조)



이공건축(류준수)안



범건축+POS-A-C+공간건축안

건축계소식 archi-net

'98 막설계 공모전 작품공모

건축물의 공용공간에 적용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이 막구조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개발 및 활용으로 한국 막구조건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98 막설계 공

모전을 주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건축물의 공용공간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제는 '건물 디자인에 있어서 구조재료로서의 막의 역할'이다.

막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외부 캐노피, 일시적인 용도의 전시장 덮개, 운동장 관람석의 지붕 등으로만 사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막의 사용범위가 점점 넓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이번이 처음인 이 공모전은 막이 구조재료로써 다른 구조재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응모자격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일반건축관련종사자(개인 또는 5인 이하 공동출품 가능)

2. 제출작품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투시도(모형사진 가능),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면 및 설명문은 페널(가로 90×세로 120cm) 1매에 자유로이 표현, A4용지 2매 내외의 국·영문 작품설명서 각 1부

3. 원서 교부 및 접수

1998. 10. 10(토)~11. 14(토)

4. 접수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22-5 연안빌딩2층

5. 작품접수일

1999년 2월 2일(화)

6. 심사발표

1999년 2월 4일(목)

7. 시상내역

최우수상 1점 / 상장 및 상금 250만원
우수상 1점 /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 3점 / 상장 및 상금 50만원
특선 5점, 입선 다수 / 상장

8. 심사위원

Dr. Wakefield(영국 TENSYS 대표, 공학박사, 막설계전문가)
기술자문위원: 강철희(건축가, (주)이·상건축 대표)

9. 문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공모전

진행사무처

전화 02-831-8616, 팩스 02-832-9872, E-mail iiaa@chollian.net

서울시, 현상설계 2단계로 나눠 실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

서울시는 설계경시기시 파생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현상설계를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1단계 심사에서 개략적인 도면심사, 또는 PQ심사를 통해 5개 내지 7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2단계 심사에서는 깊이있는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다. 1단계 개략도면의 경우 도면의 3~4매로 설계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스케치 혹은 아이소메트릭을 표현하되 색상이나 모형, 투시도 사진은 넣지 않고 10억 이상의 대형설계용역에서는 PQ심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2단계에서는 실제 설계에 비해 과장된 요소가 많은 투시도는 배제하고 모형만을 받기로 했다.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 행사일정 발표

각종 전시 및 건축기행, 세미나 등 개최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서는 내년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전시와 건축기행, 각종 세미나를 준비중에 있다.

특히 우리 건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능하게 할 전시로, '한국근대건축 100년전', '초대작가전', '한국건축의 신사고' 등이 준비중이며, 연중행사로서

□ '99 건축문화의 해 행사 내용

	제 목	주 제	내 용
전시	한국근대건축 100년전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 개화후 현재까지 건축 1세기의 정산 • 현대건축의 과정/한계와 진보의 과정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99년 11월~12월)
	한국 건축의 신사고	새시대의 비전을 위한 한국의 건축가 신사고	• 3~40대 건축가의 공간 설치디자인전 • 작가집 출판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99년 11월~12월)
	한국현대건축 초대작가전	건축은 누가 만드는가?	50대 중견건축가의 건축관 설계방법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99년 11월~12월)
	건축가 전	세계의 건축, 건축가	초대전시회, 개인전, 그룹전, 주제전 개최(99년 3월~12월)
	우리 지방 건축주제전	한국의 장소와 건축	지방도시가 갖는 역사성, 장소성, 비전 주제로 99년 3월부터 매월 1개 지역씩
	역사속의 건축	전통회화속의 건축	자연관과 건축, 풍경으로서의 건축, 전통 건축공간의 개념
	옛 지도속의 도시	옛 지도에 나타나는 장소와 건축	서울, 경주, 부여, 개성, 평양 등 조선조의 도시 도시사적 이해와 원형을 찾아 전시(99년 8월)
	주택건축사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우리 근대주택의 역사와 주거문화(99년 3월)
	에너지와 건축	건축에서 에너지공학과 생활문화	에너지 발달사/물의 역사/건축의 에너지 문제와 자연보존/태양과 건축/리사이클링/그린 에너지/미래 에너지(99년 6월)
	건축재료/공구	건축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재료의 심미적 세계/물리적 이해/응용사례(99년 8월)
	건축기술사	건축은 어떻게 만드는가?	건축기술, 건설발달사/도전의 역사/기술의 세계(99년 10월)
건축의 이해	일일건축학교	좋은 건축이란?	건축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건축지망생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 - 중고생 대상
	건축TV방송	건축이란 무엇인가?	건축과 건축가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건축가의 역할 인식
	이달의 건축가		국내 건축가와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건축가의 역할 인식
	건축 심포지엄 및 세미나		과거 현재 미래의 건축에 대한 분석과 국제적 위치 파악
건축기행	내고장 건축 문화 탐방	지역별로 월 2, 3회 실시	내고장 건축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환기
	위대한 건축 문화 유산	UIA북경대회 관련 건축기행	우수한 건축문화재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탐방
	살림집의 변화	우리 주거문화의 역사 조망	우리 주거문화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기행
	건축기술과 공학의 발달사	선사시대 건축기술의 발달과정	선사시대 건축기술의 발달과정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정리
	건축과 문화	다양한 문화와의 관계정리	민족, 문학, 미술, 영화와 건축의 관계정리
시민행사	건축만들기 대회	초·중·고등학생	고건축·현대건축 등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건축물 감상문 대회	주부	건축물과 환경에 대한 글쓰기
	건축사진대회	일반 및 학생	건축기행시 건축사진을 찍어 참가
마을 바꾸기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젝트	지역사회에 건축인들이 봉사	지역사회, 마을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 설계·시공해 주민에게 제공
	사람의 집짓기	무의탁인에게 집지어주기	저자세/관련단체의 협조아래 주택시공
	문화거리 조성	특색있는 거리 발전	문화의 거리로의 가능성 가진 거리 발굴
	도시정체성 찾기	정체성을 찾아 발전시킴	도시 이미지 제고
미래니엄 사업	미래-영 사업의 방향제시	우리 건축문화의 위상정립	국제설계경쟁·심포지엄 등으로 상징이 될만한 프로젝트 창조
	건축박물관 확보	건축의 발전기점 확보	건축문화의 보존·홍보
	남북 건축교류		상호 방문, 건축기행·공동세미나

'이 달의 건축사 선정', '내고장 건축문화탐방'을 계획중이다.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는 올해안에 웹상에 안내사이

트를 개설, 전세제인들에게 '99건축문화의 해'를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건축가협회, '98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오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98 대한민국건축대전'이 개최된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가 주최하고 우리협회 및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하는 '98대한민국건축대전'은 올해 제17회째로 초대작가전과 일반공모전으로 나뉘어 펼쳐지며, 10월 10일(토) 오후 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금) 시상식이 있으며, 행사기간중 '98건축가 축제'에는 협회상 수상작 전시회, 제3회 건축사진 전시회, 건설 및 자재업체 전시회 등이 펼쳐진다.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전화 02-744-8050

'98 건축가 미술전 개최

오는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대치동 PLUS 갤러리에서

'98 건축가 미술전이 건축가 미술동호회(이하 건미회) 주최로 오는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PLUS 갤러리에서 열린다.

건미회 회원뿐만 아니라 건축에 종사하는 미술동호인들과 각지방의 미술동호회원들의 작품도 전시될 이번 전시회에는 작품전시뿐만이 아니라 작품판매도 이루어진다.

작품 출품 희망자는 작품 슬라이드(1매), 작가 인물사진(1장), 작가 약력, 출판료(1인당 15만원)를 오는 10월 1일까지 (주)종원엔지니어링(02-546-1806)으로 제출해야 하며 작품은 11월 3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작품은 회화(서

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판화, 사진, 건축드로잉 등으로 출품작은 1인 2점(규격 자유)으로 제한된다.

안암건축포럼 창립총회

21세기 한국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설정책 개발에 기여코자

안암건축포럼(회장: 김창수)이 지난 9월 8일에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초청강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 초청인사 및 건축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고려대 김정배 총장이 창립기념 강연을 하였다.

안암건축포럼의 회원은 사회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전문인으로 앞으로 2개월마다 모임을 갖고 건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등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외부 초청강연 및 토론을 통해 "21세기 한국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설정책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산업계의 발전에 전문가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발기되었다.

안토니 카로 작품전, '건축적 조각'

10월 20일까지 국제화랑에서 전시

영국의 대표적 조각가 안토니 카로의 작품전이 오는 10월 20일까지 소격동 국제화랑에서 열린다.

70대 중반의 카로는 영국 생존작가로는 최초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으며 작품생활 초기부터 종래의 조각 개념을 혁신하여 철판·아아비 등 거대 규모의 산업재로들을 용접방법으로 연결, 좌대가 아닌 바닥에 직접 배치시킨 카로의 조각은 공간적 환경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일종의 건축적 구조물과도 같다.

89년 워커힐미술관, 98년 국제화랑 전시회에 이은 이번 전시회는 규모는 작지만 조각에 대한 카로의 건축적 개념을 볼 수 있는 브론즈 작품 등을 볼 수 있다.

문의: 전화 02-735-8449

제4회 대학생 목재 가구 디자인 공모전 입상작 전시

서울 국제가구 전시회 내
미국활엽수수출협회 전시관에서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가구학회 주최 및 미국활엽수수출협회(American Hardwood Export Council, AHEC) 후원으로 실시되었던 제4회 대학생 목재 가구 디자인 공모전의 입상작 전시가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국제가구 전시회('98 KOFURN)내 미국활엽수수출협회 전시관에서 열렸다.

총 50개 학교 222점의 가구 디자인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김종철(연세대 주거환경학과)씨의 '음양오행', 정동철(울산대 산업디자인학과)씨의 'more MORE', 오지형(영남대 대학원)·최은주(영남대 대학원)씨의 '6 to 9'의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고, 기타 특선 10점, 입선 40점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른 시상식은 9월 16일(수)로 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국내와 미국의 목재가구관련 학계 및 업계 인사의 참석하에 축하 리셉션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우수상 수상들은 미국활엽수수출협회(AHEC) 초청으로 10월중 미국 활엽수 업계 및 목재 가구 산업계를 시찰하게 된다.

아시아 플로어 '98 무역박람회 개최

10월 27일부터 3일간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플로어(Asiaflor) '98 무역박람회가 오는 10월 27일부터 3일간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세계 50여개국의 첨단 건축 바닥장식제품의 원제품과 원자재 등이 아시아플로어사 주최로 전시된다.

첨단섬유로 짜여진 카펫과 직물 바닥덮개, 특별 방직시스템디자인 등이 선보일 이번 박람회 기간중에는 아시아플로어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으로 바닥재와 카펫제품, 실내설계의 최신기술과 패션의 최근 변화추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본다.

문의: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전화 02-765-1181

제9회 국제디자인축전

건축, 도시계획은 디자인부문으로 응모

건축과 시각디자인, 공업디자인 등 각 분야를 총 망라하는 제9회 국제디자인축전이 일본 디자인기금 주최로 개최된다.

디자인부문과 미발표작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므로 건축과 도시계획분야는 디자인부문으로 응모하면 된다. 총상금 미화 7만1천달러가 수여되는 이번 디자인축전의 그랑프리 수상작에게는 미화 3만달러가 상금으로 수여된다. 심사는 예비심사 익년 1월 21일, 최종심사 익년 6월 16일로 나누어 실시된다.

<http://www.jidpo.or.jp/japandesign/jdf/index.html>

e-mail: jdf@mexp.meshnet.or.jp

건축캐드협회(ACADIA), 카드 이용한 설계경기 공모

정보화시대를 위한 도서관

ACADIA(Association for Computer Aided Design in Architecture: 건축캐드협회 - 미국) 주최로 캐드를 이용한 건축디자인을 시상하는 설계경기가 열린다. 디지털 설계도구와 건축에서의 인터넷 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설계경기는 실제로 존재하거나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도서관을 계획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작품은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상금은 1등 미화 3천달러, 2등 미화 1천5백달러, 3등 미화 8백달러 등이며 3DS MAX와 오토 캐드, form - Z 등의 설계용 소프트웨어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다.

<http://www.acadia.org/competitoon>
주소: Loukas Kalisperis, Department of Arcitectur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6 Engineering Unit C. University Park, PA 16802. U.S.A.

강원도, '98 우수건축물 공모전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

강원도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98 우수건축물 공모전을 개최한다. 96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준공된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 접수는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하면 된다.

서울건축학교, 98/99년 제1쿼터 공개강좌

금요강좌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1회 개최

서울건축학교에서는 오는 9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요강좌 및 건축가세미나를 개최한다.

'근대적 시각문화'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금요강좌에는 강준혁(스튜디오 메타), 한경구(강원대 인류학과), 김영나(서울대 미대), 김광림(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학과), 강대희(중앙대 영문학과), 남정호(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등이 강좌하며 10월과 11월에는 4회에 걸쳐 김 원(광장건축), 헬렌박, 윤승중(원도시건축), 임재용(O.C.A. 건축)씨가 건축가세미나에 참여한다.

문의: 서울건축학교 전화 02-763-0471, 팩스 02-763-0473, e-mail saschool@chollian.net

□ 금요강좌

9. 25. / 강준혁(스튜디오 메타) / 한국
기질인론
10. 16. / 한경구(강원대 인류학과) /

문화마다 달리본다- '보기'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10. 23. / 김영나(서울대 미대) / 전방
기의 한국미술
10. 30. / 김광림(한국예술종합학교 연
극연출과) / 삶과 문명의 현장
11. 6. / 강대희(중앙대 영문학과) / 자
본주의와 근대적 시각경험
11. 13. / 남정호(한국예술종합학교 무
용과) / 몸으로 말하기
11. 20.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
상원) / 영상시대와 근대적 시
각체계 비판

□ 건축가세미나

10. 13. / 김 원(광장건축) / 광주가를
릭대학에서 보는 환경건축의
시도
10. 20. / 헬렌박 / 건축과 초현실적 사건
10. 27. / 윤승중(원도시건축) / 도시와
의 만남
11. 3. / 임재용(OCA건축) / 흔적읽기
& 흔적만들기

□ 영화세미나

토요일 오후 2:00(9. 26., 10. 10.,
10. 24., 10. 31., 11. 7.)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개원기념 심포지엄 개최

오는 11월 10일 포스코센터 대강당에서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은 전문대학원 개
원기념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에 포스코센터 대강당에
서 개최한다.

'우리건축, IMF와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
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
문영(아태재단 이사장) 교수의 'IMF 시대
상황의 정신문화적 한계와 가능성'이란 기
조강연과 '경제이데올로기는 건축작업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이강현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초국적 금융자본 앞에 지역 또는 민족건축 세우기는 가능한가(정기용 기공건축 대표)'라는 주제 발표가 있다.

우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건축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충전과 심도있는 건축문화 창달하는 제도전의 마당 제시가 될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2학기 프로그램 일정 발표

초청세미나 및 건축기행 실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2학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4회의 초청세미나와 세차례의 건축기행이 준비된 2학기에는 미술원 학생외에 건축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참석 가능하다.

99년도 신입생도 참석하는 초청세미나는 미술원 건축과 세미나실(본관 202호)에서 열리고, 건축기행은 두차례의 서울 시내 종묘, 한차례의 예술의 전당 기행을 진행한다.

문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전화 02-958-2770

건국대 건축대학원, 98학년도 2학기 특강 일정

9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은 98학년도 2학기 특강 일정을 발표했다. 오는 9월 16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2학기 프로그램 일정

날 짜	강 사	내 용
9. 16(수) 15:00	이인범	건축기행 - 종묘와 공간사육
9. 23(수) 15:00		초청세미나 I - 미술과 공간
9. 29(화)~10. 1(목)		예술축제 - 건축작품전시회
10. 1(목) 10:00	안영배	설계스튜디오 2 중간평가
10. 12(월) 14:00		설계스튜디오 4 중간평가
10. 21(수) 15:00		초청세미나 II -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10. 23(금)~10. 24(토)		건축기행, 통도사와 법어사, 해운대 빌라
11. 11(수) 15:00	김홍준	초청세미나 III - 영화 속의 공간
11. 18(수) 15:00	이건용	건축기행 - 예술의 전당
12. 16(수) 15:00	조건영	초청세미나 IV - 나의 건축과 공간
12. 21(월) 10:00	김준성 안규철	설계스튜디오 2 최종평가
14:00	김 원 김준성	설계스튜디오 4 최종평가
12. 24(목)		과제전시회 Opening

□ 건국대 건축대학원 2학기 특강 일정

일 시	시 간	강 사	소 속	주 제
9. 16.	14:30	주장건	세종호텔	호텔과 건축교육
9. 23.	14:00	최동규	서인건축	Alvar Aalto의 건축
9. 30.	14:00	우경국	예곡건축	관계 · 흐름
9. 30.	18:00	박상우	헤펠레코리아	하드웨어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10. 7.	14:00	김 원	(주)광장건축	현대문명의 반성과 건축문화의 미래
10. 7.	18:00	임동침	작곡가 겸 연주가	"동창아! 동창아! 뭐하니?"
10. 14.	14:00	서혜림	힘마건축	서혜림 Works
10. 21.	14:00	강성원	미술평론가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
10. 22.	16:00	채인환	채인환 콘서트, 동국대 신학과 교수	화엄경의 사상
10. 28.	15:00	박광무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 인프라 스트럭처
10. 28.	18:00	김창남	문화평론가, 성공회 대학 교수	대중문화와 문화적 정체성
11. 4.	14:00	원장현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수석	신명의 소리 "대금"
11. 11.	18:00	안필연	설치미술가, 안필연 초청연구소	설치미술 - 될 수 있는 것으로 될 수 없는 것 설명하기
11. 18.	15:00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	현대문명의 흐름
11. 25.	14:30	이태섭	용인대 연극학과 교수	적합한 무대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상의 재고사항
12. 2.	14:30	김태오	간스튜디오	건축의 투시적 효과와 사진

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강의 장소는 건축대학원 로비로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문의: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학과

전화 02-450-3286~7

단국대 건축공학과, 연례 특강 및 세미나 개최

주제는 건축의 자기 표현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와 대학원이 '건축의 자기 표현'이라는 주제로 98년 가

을학기 연례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특강 및 세미나는 건축가들의 작품 세계를 그들 고유의 방법론을 통해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건축 설계론을 접하게 될 것으로 본다.

신에 건축가 임재웅(O.C.A.건축)씨의 '흔적읽기 & 흔적만들기'와 이로재건축 김효만씨의 '나의 작품 이야기'가 오는 10월 20일(화)과 10월 23일(금)에 각각 강연된다. 아울러 10월 22일(목)에는 단국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이경훈씨가 '건축 형태·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건축의 아이덴티티 형성 구조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전화 02-709-2536

순천대 건축공학과, 제12회 건축전

순천시 뉴코아 백화점 전시실에서



순천대학교 건축공학과가 9월 30일(수)부터 10월 3일(토)까지 순천시 뉴코아 백화점 6층 전시실에서 제12회 건축전을 가졌다.

9월 30일(수) 개막식을 시작으로 건축전 기간동안 작품전시가, 9월 22일(화)에는 건축공학과 설계실에서 1차 평가회, 9월 29일(화)에는 공과대학 합동강의실에서 2차 초청평가회가 있었으며, 9월 30일(수)과 10월 2일(금)에는 건축가 조성용씨와 풍수지리학자 최명우씨가 각각 '도시건축, 도시 공동주택', '풍수

지리와 건축'라는 주제로 공과대학 합동강의실에서 강연했다. 그리고 10월 3일(토)에는 공과대학 합동강의실 및 대운동장에서 순천대학교 건축공학과 총동문회가 있었다.

문의: 순천대학교 건축공학과
전화 0661-750-3520

홍익대학교, 제41회 홍익건축전

졸업작품, 공동작품, 동문작품, 과제 전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41회 홍익건축전을 개최한다.

홍익대 현대미술관 4층 전시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4학년 졸업작품, 3학년 공동작품(주제: 영종도 개발계획), 1, 2학년 과제, 동문작품이 전시되며 특히 졸업작품중 네작품에게는 동문회장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전시회 기간 중 거행되는 Home Coming Day에서는 제16회 졸업생들이 간단한 다과회와 학과 기금 전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문의: 홍익대학교 전화 02-320-1106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원서 교부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9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설계부문으로 2년과정(4년제 건축공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

자)과 3년과정(비전공자)으로 나누어 모집하고 작품집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교부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11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원서접수를 받아 11월 13일 오후 2:00에 시험 및 면접을 실시, 11월 17일(화)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입학원서, 졸업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대학성적증명서 1부, 추천서, 작품집, 주민등록등본(여학생)·주민등록초본(남학생), 사진4매(5×5.5)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전화 02-390-5245~6

건국대 건축대학원,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9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인원

건축설계학과·실내건축설계학과(정규과정, 기초과정), 각 〇〇명

2. 지원자격

가. 정규과정: 건축설계학과의 경우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 전공자
실내건축설계학과의 경우 실내디자인 또는 실내건축 전공자

나. 기초과정: 건축학, 건축공학, 실내디자인 또는 실내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 로써 1년간의 기초과정을 마친후에 정규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

다.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와 외국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

라.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구술 및 실기시험, 작품집 평가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과 장소

기간: 1998. 10. 19(월) ~ 11. 19(목)

장소: 건축대학원 교학과

5. 구술 및 실기시험 일시 및 장소

1998. 11. 21(토) 09:00 ~ 13:00, 건축대학원

6. 합격자발표

1998. 11. 28(토) 14:00 건축대학원 교학과

7. 구비서류

가.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약식) 1부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 증명서 1부

다. 작품집(portfolio) 1부

라. 명함판사진 4매와 증명사진 2매

문의: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학과

전화 02-450-3286~7

한국형 건축전용캐드 S/W uniARCH 출시

삼성 SDS와 김영수 캐드연구소가
순수국내기술로 개발



삼성 SDS(대표 남궁석)와 김영수 캐드연구소가 순수국내기술로 범용캐드와 건축전용캐드 uniARCH를 개발했다.

국내캐드 사용분야에 있어 그동안 미국산 오토캐드를 비롯한 외국제품에 점령된 상

태에서 완벽한 국내기술로 캐드분야의 핵심동체인 범용캐드와 분야별 전문캐드 소프트웨어를 자체개발한데 큰 의미가 있는 이번 uniARCH 개발은 기존의 캐드 시스템구입에 드는 부담도 외국캐드시스템의 1/4수준이면 완비할 수 있다.

사용자 입력 및 설정사항 저장기능, 실시간 처리 기능, 윈도우환경 100% 반영, 벽체·문·창호 등 사용자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리기 기능, 편리한 편집기능, 사용자 정의 심볼자료처리 기능, 다양한 한글폰트 내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uniARCH는 내달 14일에 무역센터에서 정식버전을 일반에 공개하고 시판할 예정이다.

문의: 삼성 SDS CAD/CAM사업부

전화 02-3429-2212~4

김영수 캐드연구소 전화 02-882-7977

CAD & 그래픽스, CAD/CAM 솔루션 무료 세미나

11월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CAD & 그래픽스가 창간 5주년을 기념하여 중소기업에 위한 CAD/CAM 솔루션 무료 세미나를 오는 11월 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1부 '중소기업의 CAD/CAM 선택스톰리'와 2부 '저가 CAD시스템의 선택과 활용'으로 나누어 개최될 이번 세미나는 저가 CAD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MCAD 업계 실무자는 모두 참석할 수 있다.

건축관련비디오 출시

'인간과 건축', '20세기의 위대한 건축'

함께하는 영상교육 영상사업부가 건축관련 비디오를 제작했다.

'인간과 건축'은 건축의 세계와 그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총 10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20세기의 위대한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기술적 도전과 기념비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5개의 테이프에 담고 있다.

문의: 영상사업부 전화 02-786-5692



건축신간안내

주택정보 1, 2, 3

20세기 건축의 경향들

건축은 중요한가?

도시 건축의 미래를 고민하는 프로·포럼
현시대의 싱기폴건축

◇주택정보 1, 2, 3



주거학연구회가 주택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과 교육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교수 또는 주택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14개의 주제하에 283개의 항목을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크게 3권으로 나누어진 이 책은 총 1,333페이지로 찾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 1권에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양식, 주택계획과 관리, 2권에는 주택 내에서의 가구와 수납, 설비와 가정기기, 주택의 구조와 재료, 3권에는 주거환경, 주택과 관련된 경제문제와 법규, 주택상담, 교육기관·주택관련 전시장 안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주거학연구회 엮음 / 교문사(02-737-6111~3) 펴냄 / 국배판 / 각 1만 2천원

◇20세기 건축의 경향들



금세기 건축에 관해 건축설계를 역사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관찰한 우도·쿨터만(Udo Kultermann)교수의 책이 출간됐다.

숭실대 건축학부 이선구 교수가 번역한 이 책에는 1900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건물유형 및 건축운동들이 객관적이며 신빙성있게 문서화되어 있으며 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구권 건축 등이 소상하게 다루어져 있다.

건축, 도시 및 건축공학의 주요시기를 균형있게 서술해 독자에게 국제건축의 현 상황과 경향에 관하여 깊은 이해를 갖게 하였으며 또 250여의 건축물 사진 제시 및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난해하지도 않다.

주요 주제는 ▶건축에 있어서의 순수주의적 경향: 건축과 자연과학/공학과의

상관관계 및 기계문명에 대한 입장(1900~1930), ▶유기적 건축과 인간과 자연에 봉사코자 하는 기술로서의 건축(1930~1950), ▶도시건축과 도시적 맥락과의 상관관계 속의 개별 건축물(1950~1970), ▶지역성과 전통의 재발견, 예컨대 비서구권 지역의 건축(1970~1990) 등이다.

우도 쿨터만 지음·이선구 옮김 / 도서출판 발언(02-929-3546) 출간 / 신국판 / 368쪽 / 1만 6천원

◇건축은 중요한가?

변화하는 시대에 건축의 통념에 도전하면서, 건축에 대한 깊은 의문과 새로운 탐구를 위한 초시간적, 시외적 단서(옛 단서, 새 단서)를 전개한 책이 발간됐다. 건축잡지 '월간 건축인 POAR'에 1년 동안 연재되었던 본문 내용과 '책 속의 책'으로 '도시건축의 옛 단서, 새 단서'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저자 김진애씨가 1997~1998년에 걸쳐 가장 큰 프로젝트로 삼은 일로 건축인은 "건축은 중요하다"라고 전제하지만 저자는 "정말, 건축은 중요한가?"라고 질문해 감춰져 있는 건축을 끄집어내고자 했다.

김진애 지음 / (주)서울포럼 출판(02-514-9838) / 신국판 / 216쪽 / 8천 4백원



◇도시 건축의 미래를 고민하는 프로·포럼(상·하)

지난 1년, 12회에 걸쳐 인터넷 도시건축 잡지 아크포럼(www.archforum.com) 주관하여 연재했던 아크포럼 '프로페셔널 포럼'의 내용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총 44인의 성찰적 프로들이 진지한 고민을 나눈 포럼의 기록이 상하로 나뉘어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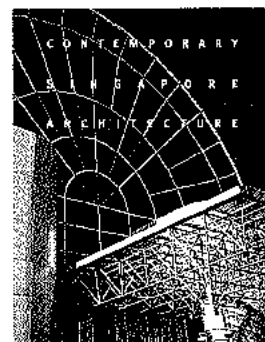
겨진 이 책은 세기말 세기초에 건축직능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이기고 앞으로 가는 좌표를 모색하고, 건축미래의 모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김진애 기획 / (주)서울포럼 출판(02-514-9838) / 신국판 / 상 227쪽, 하 232쪽 / 각 권 8천원



◇현시대의 싱가포르건축

싱가포르건축가협회에서 30년 이상의 유명한 건축작품을 수록한 책을 발간했다. 200개 이상의 싱가포르의 주거용, 상업용 건물의 건축적 의미에 초점을 둔 이 책은 역대 SIA 건축상과 URA 건축유산상을 수상한 작품들도 수록돼 있다. 또 연대기적으로 삽화를 담은 역사부분과 Alfred Wong, Ken Yeang, Bobby Wong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학자 Brenda Yeoh가 쓴 기사, 싱가포르건축가협회와 싱가포르국립대학에 의해 실시된 포럼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싱가포르건축가협회(전화 65-226-2668) 발행 / 국배판 / 306쪽 / 싱가포르달러 79.9달러(운송비용 포함) / 은행: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지정: Tanjong Pagar Branch, 계좌번호: 009-012927-8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청량리 제1지구 APT

국세청 청사

장애인생활관

밀양보건소

청량리 제1지구 A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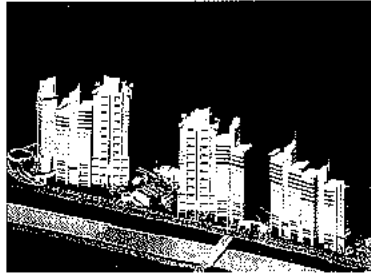
District #1 Apartments of
Chungryangri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청량리 제1지구 APT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5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주)DST종합건축사사무소(서정대+박금중+이주형)안, 우수작에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조환우)안과, (주)경성건축사사무소(이성현)안, 가작에 (주)태경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김명준+안부균)안과 (주)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조병기+곽동수+최병찬+정세진)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영풍·명(박명화)안을 각각 선정하여 지난 9월 2일에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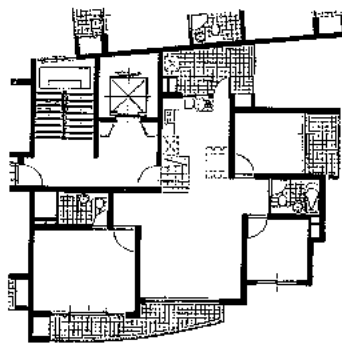
이호진(건국대), 양동양(고려대), 김진균(서울대), 박영기(연세대), 전명현(홍익대), 이리형(한양대), 안건웅(서울대), 원재무(한양대), 이세훈(대한건축사협회), 양 갑(서울시), 최상근(서울시 도시개발공사)

▶ 당선작 / DST종합건축사사무소 (서정대+박금중+이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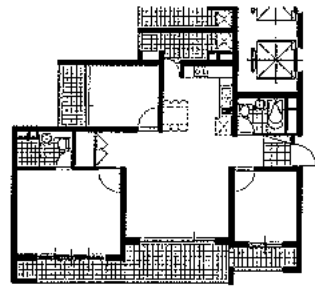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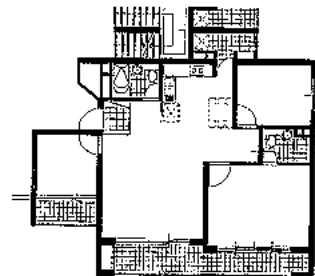
위치	동대문구 청량리동 822번지 일대, 성북구 하월곡2동 산6번지 일대
대지면적	11,272.30㎡
건축면적	2,721.82㎡
연면적	51,391.14㎡
건폐율	24.15%
용적률	337.62%
도로율	50.56
녹지율	27.45
전용면적	25.7평(352세대)
후생복지시설	756.46㎡
생활편의시설	2,544.98㎡
놀이터	750㎡
주차	지하 - 321대, 지상 - 13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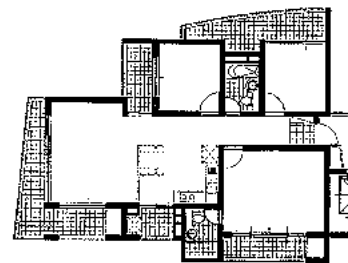
E-Type 평면도



D-Typ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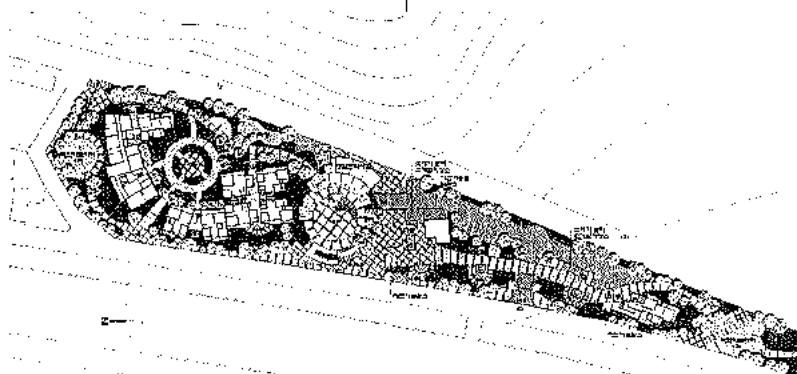
C-Type 평면도



A-Typ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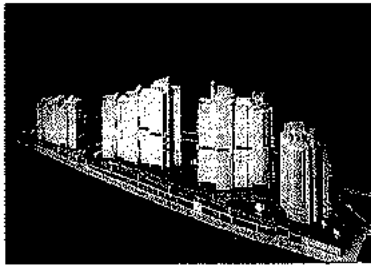


단지 입면도



지반층 평면도

▶ 우수작 I / 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조환우)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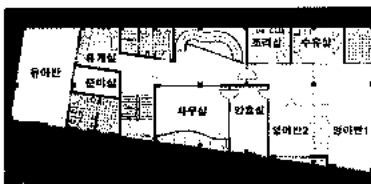
대지면적	11,272.30㎡
건축면적	2,597.35㎡
연면적	52,875.01㎡
건폐율	23.04%
용적률	320.54%
도로율	16.42%
녹지율	28.21%
전용면적	25.7평(352세대)
후생복지시설	794.95㎡
생활편익시설	664.73㎡
놀이터	765㎡
주차시설	지하 - 256대, 지상 - 168대



주거동 104동 평면도



주거동 101동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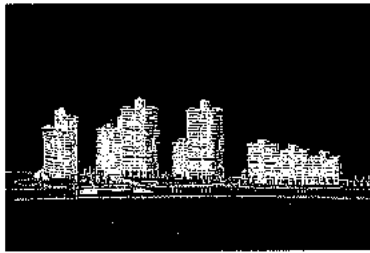


어린이집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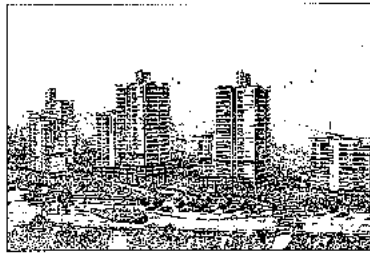


생활편익시설 1층 평면도

▶ 우수작 II / 경성건축사사무소
(이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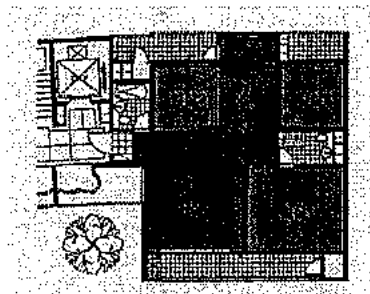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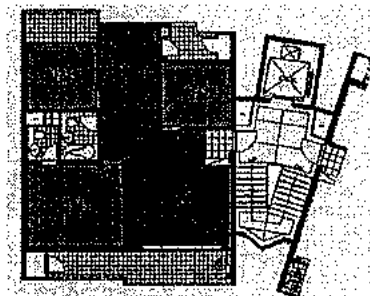


경관조성이미지

대지면적	11,272.30㎡
건축면적	3,098.89㎡
연면적	50,495.43㎡
지상층 연면적	36,843.43%
건폐율	27.49%
용적률	326.85%
녹지율	48%
주차대수	420대
건설호수	352세대



25평(중정식장원형)



25평(일반형)



단지 횡단면도

▶ 가작 I / 태경마루종합건축사사무소
(김명준+안부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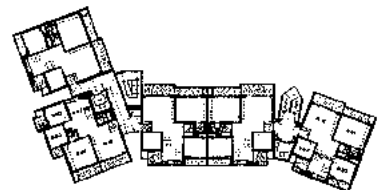


모형도

대지면적	11,272.30㎡
건축면적	2,595.376㎡
연면적	46,486.375㎡
건폐율	23.173%
용적률	324.893%
도로율	31.650%
녹지율	27.5%
건설호수	352세대
후생복지시설	925.402㎡
생활편익시설	667.321㎡
어린이놀이터	804.445㎡
주차대수	지하 290대, 지상 13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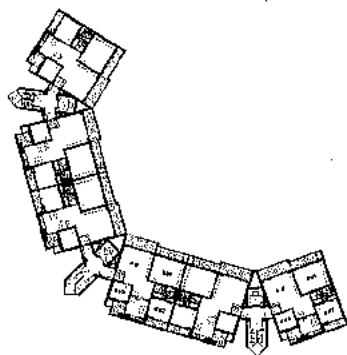
104동 평면도



103동 평면도



102동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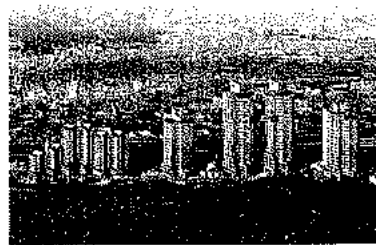


101동 평면도

▶ 가작Ⅱ / (주)강남종합건축사사무소(조병기+곽동수+최병찬+정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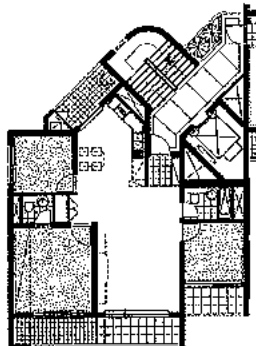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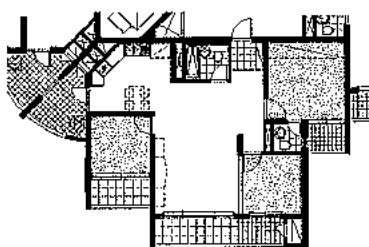


조감도

건축면적	3,403.62㎡
연면적	55,499.98㎡
건폐율	30.19%
용적률	329.59%
도로율	5.42%
녹지율	35.43%
세대수	25평형 35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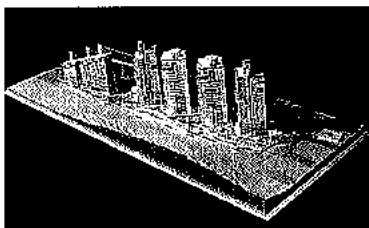


25평-C형(탄상형)



25평-A형(타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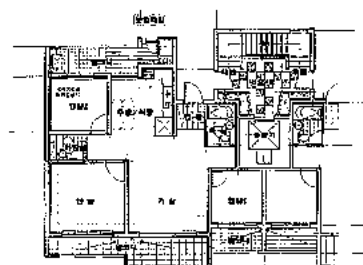
▶ 가작Ⅲ / 종합건축사사무소 영풍·명(박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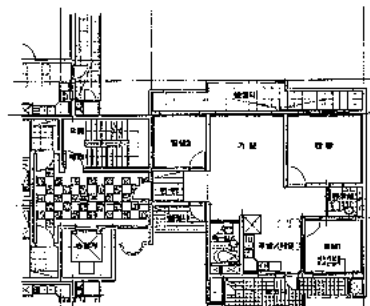
모형도

지역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대지면적	11,272.30㎡
건축면적	2,986.31㎡
연면적	56,582.28㎡
건폐율	26.49%
용적률	328.05%
도로율	31.60%
녹지율	27.08%
전용면적	25.70평
건설호수	관상형 - 73세대, 탑상형A-80세대, 탑상형B-35세대, 탑상형 C-164세대



평면도(탄상형)



평면도(타워형)



정단면도

국세청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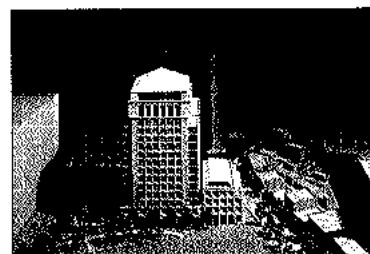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국세청은 21C첨단 국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공 행정기관 마련을 위해 국세청 신청사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2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8월 28일에 당선작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김창수)안, 우수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법건축(박영건)안과 원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충언+김광설)안을 각각 선정하여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강병근(건국대), 김상대(고려대), 김진균(서울대), 박영기(연세대), 박용환(한양대), 홍대형(서울시립대), 공무원 4명

▶ 당선작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김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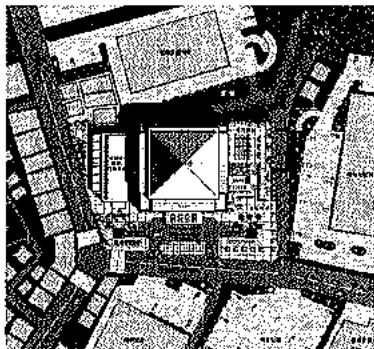


모형도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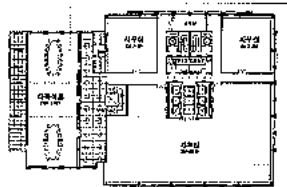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8-4번
지 일대
대지면적 5,440㎡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일부 학교 이적지 포함)
도로현황 북서측 10m도로, 남서측 10m도로, 남동측 4m도로
건축면적 2,400㎡
연면적 44,548㎡
건폐율 44.1%
용적률 496.4%
규모 지하4층, 지상16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외장마감 회강석(G. P. C.)
용도 공공업무시설
조경면적 1,224.1㎡
공개공지 1,269㎡
주차대수 220대(장애자 주차 6대 포함)
설계 현승훈, 박호영, 배수원, 박민철, 차재영, 유원석, 곽은석, 김유홍, 안성은, 김성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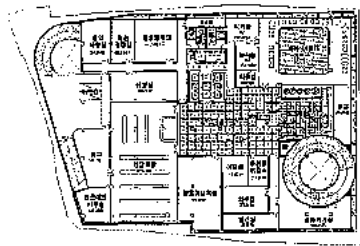
배치도



1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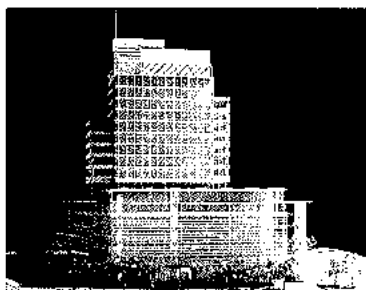


4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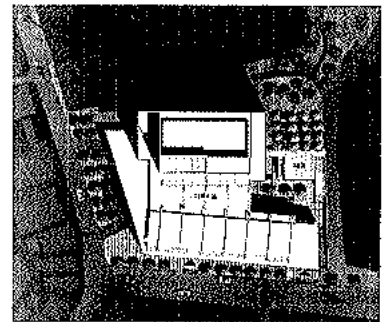
▶ 우수작 |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박영진)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8-4번
지 일대
대지면적 5,443.19㎡
건축면적 2,807.90㎡
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 주차장 제한지역, 학교 이적지

용도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46,644.0㎡
건폐율 51.59%
용적률 466.34%
조경면적 1,050.49㎡
공개공지 1,090.53㎡
규모 지하5층, 지상17층
구조 지하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상 - 철골조+트러스 구조
주차대수 230대(장애자 주차 16대 포함)
최고높이 69.90m
주요외장재 외벽 - t24복층유리/AL쉬트/석재패널,
바닥 - t28.3 절합복층유리
주요내장재 바닥 - 석재, 카펫타일, 비닐위트, 목재마루널
벽 - 목재패널, 페인트
천정 - 흡음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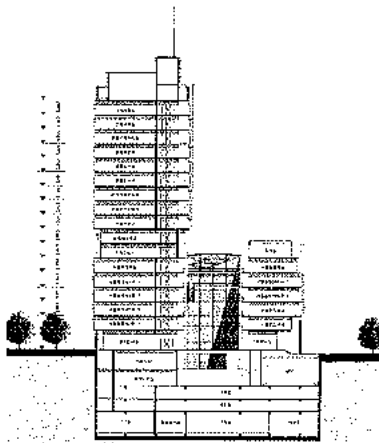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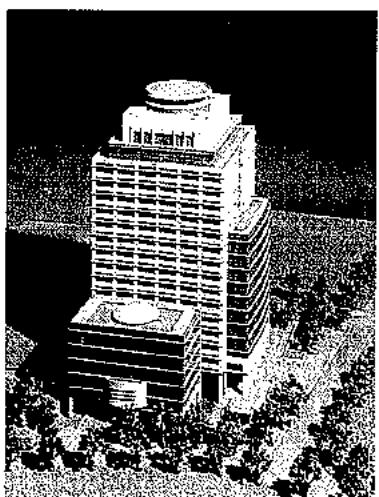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종단면도

▶ 우수작 II / (주)원일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이충언+김광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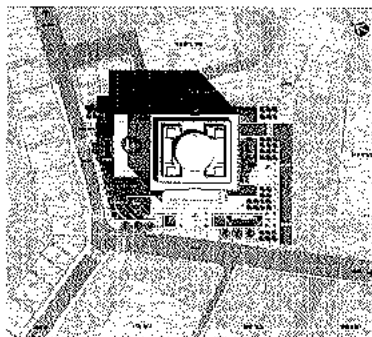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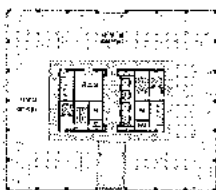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8-4번
지 일대
대지면적 5,441.80㎡
건축면적 2,334.66㎡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일부 학교 이적지
포함)
연면적 44,520.11㎡
건폐율 42.90%
용적률 549.60%
건축규모 지하4층, 지상17층, 옥탑1층
주요구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공지면적 1,144.50㎡
조경면적 1,103.41㎡
주차규모 228대(법정 192~229대)
승강기수 승용 5대, 화물용 1대(비상용 2대)
주요외장재 화강석버너구이, 알루미늄 커튼

월 및 착색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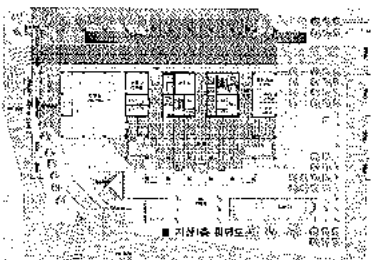
설계담당 김경표, 김문섭, 양성수, 강성찬,
이세우, 임달주, 김태훈, 조동진,
지현규, 박충호, 박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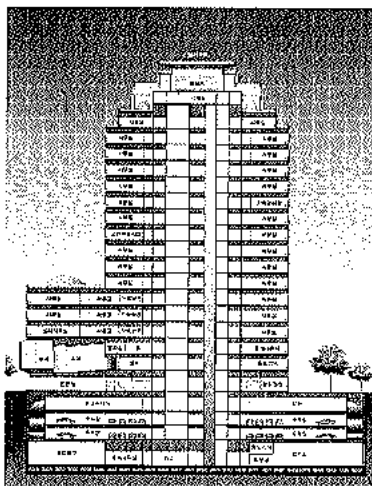
배치도



13~16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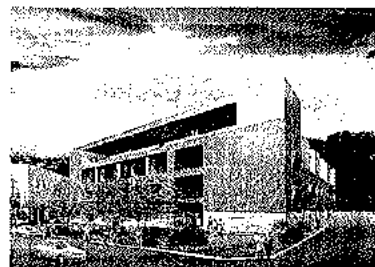
단면도

장애인생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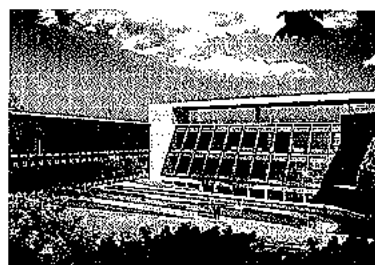
Center for the Handicapped

창원시는 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통합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장애인생활관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26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주)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허필도+조동구)+이손건축사사무소안, 우수작에 건축디자인그룹 이상(박병철)안, 가작에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최심영)안을 각각 선정하여 지난 8월 8일에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강석원(그룹가건축), 김인철(아르키움건축), 윤도근(홍익대), 조성기(부산대), 박춘근(동아대), 김중대(대구효성기톨릭대), 양금석(진주산업대), 공무원 4명, 시의원 1명

▶ 당선작 / (주)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허필도+조동구)+
이손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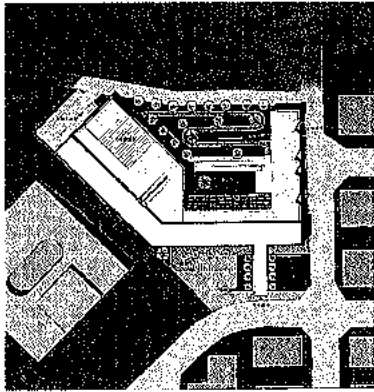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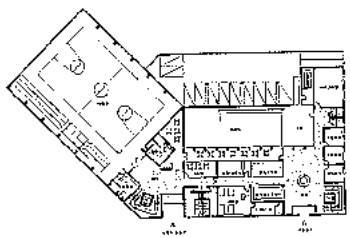
부분 투시도

대지위치 경남 창원시 봉곡동 180-6번지
외 11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로현황 남측도로 8m, 동측도로 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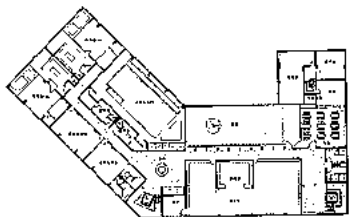
대지면적 3,752.0㎡
 건축면적 1,653㎡
 연면적 4,700.27㎡
 건폐율 44.06%
 용적률 84.89%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적벽돌, 갈바름강판
 조경 734.32㎡
 주차개요 22대(장애인 주차 3대 포함)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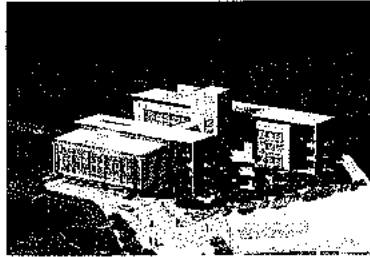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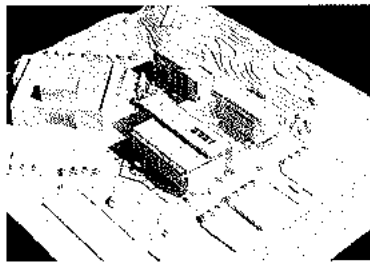


단면도

▶우수작 / 건축디자인그룹 이상 (박병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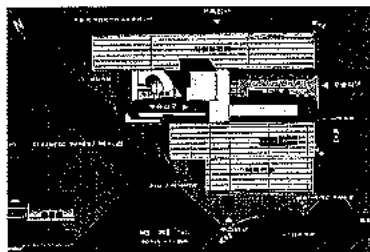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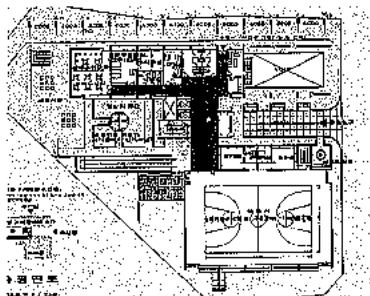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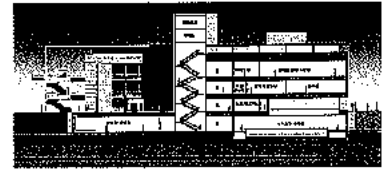
위치 창원시 봉곡동 1806-번지 외 10필지
 대지면적 3,752㎡
 건축면적 1,866.67㎡
 연면적 4,749.05㎡
 건폐율 49.75%
 용적률 81.5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요외장 노출콘크리트, 몰래게이트패널, 유리
 설계 이기훈, 강정호
 C.G 권도영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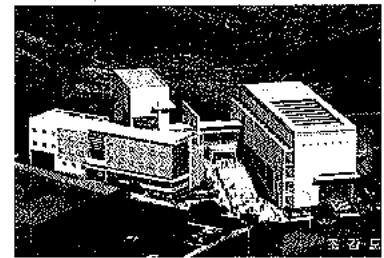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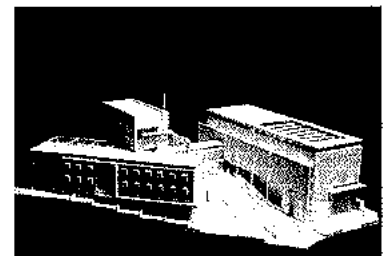


횡단면도

▶가작 / (주)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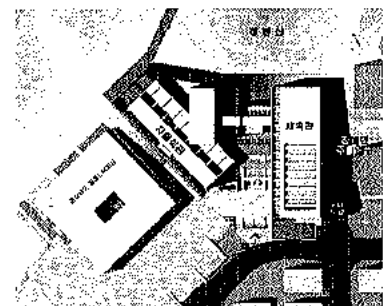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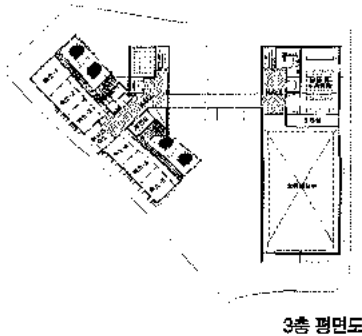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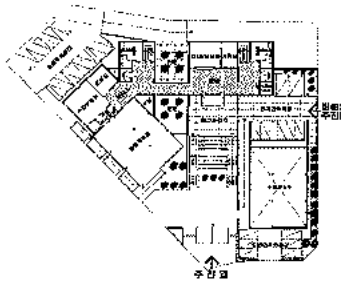
대지위치 창원시 봉곡동 180-6번지 외 11필지
 대지면적 3,752㎡
 건축면적 1,585.08㎡
 연면적 4,730.28㎡
 건폐율 42.24%
 용적률 86.83%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31대(장애자용 5대 포함)
 주요외장 고탄성 아크릴계 페인트 뿔칠+THK18 복층유리+THK18 목재후로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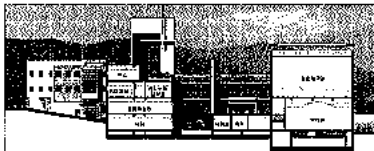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평면도

밀양보건소, 노인복지회관

Miryang City Health Center,
Welfare Center

밀양시는 시민을 위해 밀양보건소, 노인 복지회관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3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인(윤재화)안, 우수작에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그룹·원(박찬정)안을 선정하여 지난 8월 3일에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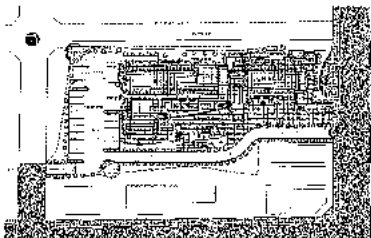
김용태(밀양대), 유명민(경남대), 우신구(인제대), 허필도(경남건축사회), 권순정(한국보건의료관리), 최기환(한국보건의료관리), 공무원 4명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인(윤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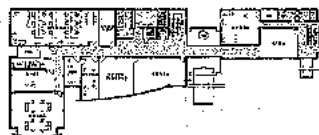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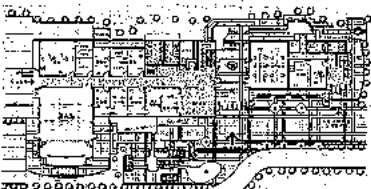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남 밀양시 삼문동 159-1
대지면적	3,180.00㎡
건축면적	814.89㎡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연면적	2,406.60㎡
건폐율	25.63%
용적률	55.77%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26대(장애자용 - 3대 포함)
외장마감	지붕 - 알루미늄 쉬트패널, 벽 - 화강석 및 제치장콘크리트
조경면적	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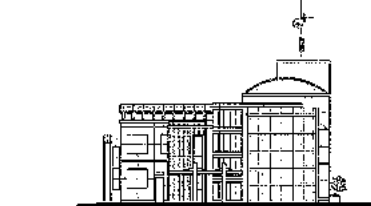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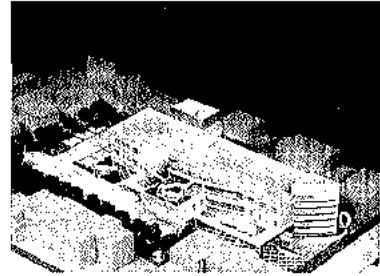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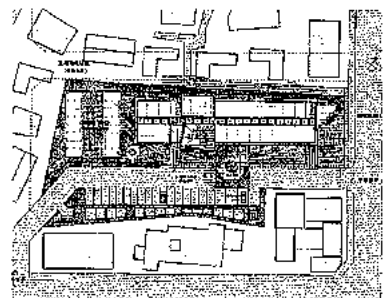
우측면도

▶우수작 /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그룹·원(박찬정)



모형도

대지위치	경남 밀양시 삼문동 159-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180㎡
도로현황	동측(전면) 10m, 남측(이편) 20m
연면적	2,437.52㎡
건축면적	799.9㎡
건폐율	25.15%
용적률	61.4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11.75m
외장재료	화강석버너구이, 적벽돌 파스텔 복층유리
조경면적	564㎡
주차개요	21대(장애자용 4대 포함)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8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8월분 7백9십7만5천3백71㎡ 보다 63.1%(5백3만3천9백24㎡) 감소한 2백9십4만1천4백47㎡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8월분 7천9백8십8만5천2백3㎡ 보다 53.6%(4천2백7십8만1천4백20㎡) 감소한 3천7백1십만3천7백83㎡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8월분 3백1십8만5천5백43㎡보다 7.7%(2십4만4천96㎡) 감소한 2백9십4만1천4백47㎡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7년도	1998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인 천	325,986	338,531	12,545	3.8%
광 주	46,394	142,623	96,229	207.4%
충 북	153,201	274,633	121,432	79.3%
전 남	48,621	64,997	16,376	33.7%
감소지역				
서 울	3,609,440	1,158,468	(2,450,972)	-67.9%
부 산	688,710	62,124	(626,586)	-91.0%
대 구	599,256	47,693	(551,563)	-92.0%
대 전	294,892	42,197	(252,695)	-85.7%
울 산	117,084	14,257	(102,807)	-87.8%
경 기	992,578	332,335	(660,243)	-66.5%
강 원	110,853	39,169	(71,684)	-64.7%
충 남	161,913	62,462	(99,451)	-61.4%
전 북	117,714	37,749	(79,965)	-67.9%
경 북	272,006	81,760	(190,246)	-69.9%
경 남	345,277	211,170	(134,107)	-38.8%
제 주	91,466	31,279	(60,187)	-65.8%
합 계	7,975,371	2,941,447	(5,033,924)	-63.1%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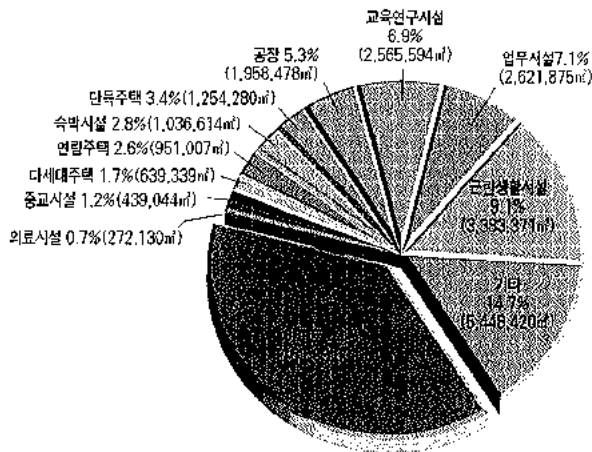
단 독 주 택	73,341 (2.4%)	75,128
다 세 대 주 택	24,581 (-29.9%)	17,226
연 립 주 택	23,156 (-22.2%)	18,009
아 파 트	1,340,736 (-16.0%)	1,126,303
근린생활시설	275,552 (-11.8%)	243,033
종 교 시 설	40,071 (2.6%)	41,132
의 료 시 설	12,373 (439.1%)	66,708
교육연구시설	361,277 (-48.4%)	186,535
업 무 시 설	59,478 (444.1%)	323,632
숙 박 시 설	17,437 (102.8%)	35,355
공 장	168,021 (33.6%)	224,475
기 타	789,520 (-26.0%)	583,911

7월
8월
연면적 합계/ 7월: 3,185,543㎡
8월: 2,941,447㎡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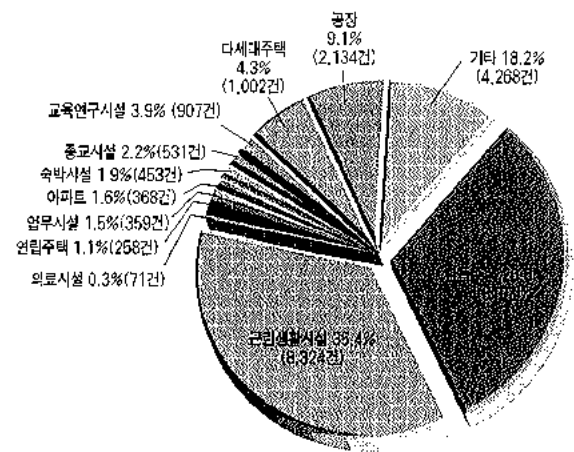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8월분)

구 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1,901	1,975	543,531	350	367	75,128	(1,551)	(1,608)	(468,403)	-86.2	
다 세 대 주 택	408	431	252,336	44	46	17,226	(364)	(385)	(235,110)	-93.2	
연 립 주 택	105	130	291,230	13	13	18,009	(92)	(117)	(273,221)	-93.8	
아 파 트	137	223	2,725,462	26	105	1,126,303	(111)	(118)	(1,599,159)	-58.7	
근린생활시설	2,167	2,227	1,097,525	801	826	243,033	(1,366)	(1,401)	(854,492)	-77.9	
종 교 시 설	100	112	106,398	53	64	41,132	(47)	(48)	(65,266)	-61.3	
의 료 시 설	23	23	249,250	6	6	66,708	(17)	(17)	(182,542)	-73.2	
교육연구시설	134	148	327,522	83	87	186,535	(51)	(61)	(140,987)	-43.0	
업 무 시 설	107	111	367,025	41	43	323,632	(66)	(68)	(43,393)	-11.8	
숙 박 시 설	211	223	216,149	31	32	35,355	(180)	(191)	(180,794)	-83.6	
공 장	499	673	675,843	208	262	224,475	(291)	(411)	(451,368)	-66.8	
기 타	959	1,085	1,123,100	427	488	583,911	(532)	(579)	(539,189)	-48.0	
합 계	6,751	7,361	7,975,371	2,083	2,339	2,941,447	(4,668)	(5,022)	(5,033,924)	-63.1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8년 8월분 누계)



연면적 (총 37,103,738㎡)



건수 (총 23,494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8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213	1,213	3,609,440	327	337	1,158,468	(886)	(876)	(2,450,972)	-67.9	
부산	421	620	688,710	67	123	62,124	(354)	(497)	(626,586)	-91.0	
대구	583	583	599,256	109	109	47,693	(474)	(474)	(551,563)	-92.0	
인천	349	356	325,986	76	76	338,531	(273)	(280)	12,545	3.8	
광주	108	115	46,394	68	91	142,623	(40)	(24)	96,229	207.4	
대전	174	174	294,892	48	48	42,197	(126)	(126)	(252,695)	-85.7	
울산	164	173	117,064	47	57	14,257	(117)	(116)	(102,807)	-87.8	
경기	1,350	1,537	992,578	410	504	332,335	(940)	(1,033)	(660,243)	-66.5	
강원	273	293	110,853	153	161	39,169	(120)	(132)	(71,684)	-64.7	
충북	407	448	153,201	135	175	274,633	(272)	(273)	121,432	79.3	
충남	297	257	161,913	134	108	62,462	(163)	(149)	(99,451)	-61.4	
전북	233	233	117,714	74	74	37,749	(159)	(159)	(79,965)	-67.9	
전남	136	142	48,621	113	127	64,997	(23)	(15)	16,376	33.7	
경북	354	411	272,006	122	124	81,760	(232)	(287)	(190,246)	-69.9	
경남	536	640	345,277	129	142	211,170	(407)	(498)	(134,107)	-38.8	
제주	153	166	91,466	71	83	31,279	(82)	(83)	(60,187)	-65.8	
합계	6,751	7,361	7,975,371	2,083	2,339	2,941,447	(4,668)	(5,022)	(5,033,924)	-63.1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8월 누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0,637	10,683	34,474,530	4,053	4,107	20,335,853	(6,584)	(6,576)	(14,138,677)	-41.0	
부산	3,686	5,704	9,641,282	1,232	2,195	2,039,049	(2,454)	(3,509)	(7,602,233)	-78.9	
대구	3,883	3,886	4,719,785	766	766	635,902	(3,117)	(3,120)	(4,083,883)	-86.5	
인천	2,311	2,355	3,914,395	995	1,005	1,660,199	(1,316)	(1,350)	(2,254,196)	-57.6	
광주	2,854	3,227	1,825,983	761	939	573,706	(2,093)	(2,288)	(1,252,277)	-68.6	
대전	1,136	2,166	1,390,790	625	625	560,420	(1,511)	(1,541)	(830,370)	-59.7	
울산	164	173	117,064	365	379	217,346	201	206	100,282	85.7	
경기	11,819	13,321	8,203,200	5,634	6,570	4,586,416	(6,185)	(6,751)	(3,616,784)	-44.1	
강원	3,648	3,973	1,540,517	1,509	1,679	835,200	(2,139)	(2,294)	(705,317)	-45.8	
충북	3,388	4,002	2,501,614	1,436	1,756	1,640,047	(1,950)	(2,246)	(861,567)	-34.4	
충남	2,608	2,092	1,555,423	1,295	1,094	699,148	(1,313)	(998)	(856,275)	-55.1	
전북	1,696	1,696	1,369,408	624	624	455,377	(1,072)	(1,072)	(914,031)	-66.7	
전남	2,496	2,681	1,371,415	835	925	460,818	(1,661)	(1,756)	(910,597)	-66.4	
경북	3,195	3,536	1,640,624	1,314	1,468	759,825	(1,881)	(2,068)	(890,799)	-53.7	
경남	6,084	7,053	5,074,183	1,554	1,915	1,424,098	(4,530)	(5,138)	(3,650,085)	-71.9	
제주	1,235	1,372	544,990	496	576	220,379	(739)	(796)	(324,611)	-59.6	
합계	61,838	67,920	79,885,203	23,494	26,623	37,103,783	(38,344)	(41,297)	(42,781,420)	-53.6	()=미아너스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게시판 bulletin board

우리협회는 지난 9월 6일에 치러졌던
건축사자격시험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예정자는
응시생 총 3천8백74명중 9백75명
(25.2%)으로 제출된 서류를 통해 해

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 및 신원조회
를 받게 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6일로
각 시·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998년 10월 9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구 분	건 축 사 자 격 시 험 및 특 별 전 형 시 험
1. 합격예정자 명 단	○ 별 첨 ※ 상기자는 합격예정자이며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 및 신원조회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2. 제 출 서 류 접 수	가. 제출서류 접수기간: 1998. 10. 19~10. 22(08:00~18:00) 나. 제출서류 접 수 처: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 ○ 서울건축사회: (02) 581-5715~8 ○ 대구건축사회: (053) 753-8980~5 ○ 광주건축사회: (062) 521-0025~6 ○ 울산건축사회: (052) 266-5651 ○ 강원건축사회: (0361) 54-2442 ○ 충남건축사회: (042) 256-4088 ○ 전남건축사회: (062) 365-9944 ○ 경남건축사회: (0551) 46-4530~3 ○ 부산건축사회: (051) 633-6677 ○ 인천건축사회: (032) 437-3381~4 ○ 대전건축사회: (042) 485-2813~7 ○ 경기건축사회: (0331) 47-6129~31 ○ 충북건축사회: (0431) 223-3084~6 ○ 전북건축사회: (0652) 251-6040~7 ○ 경북건축사회: (053) 744-7800~2 ○ 제주건축사회: (064) 52-3248
3. 제 출 서 류	(1) 응시표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군벌,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3) 호적초본 1부: 본적, 호주가 명시된 것. (4) 졸업증명서 1부: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발행일자가 명시된 것. (5) 경력증명서 1 부: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일의 전일('98.9.5)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 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업체장(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축사사무소 경력: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 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등의 경력: 대표자 명의의 경력 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 면허증 등록증 사본(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안함) · 공무원: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대학원 학위과정: 전공학과, 학위 및 학위수여일자가 명시된 학위 수여 증명서 · 시간강사 경력: 강의기간 및 과목별로 주당 시간이 명시된 경력 증명서 · 기타 소정의 경력: 해당 경력증명서 (6)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건축분야기술사 및 기사1급 자격증, 외국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7) 컬러사진(반명함판) 2 매: 사진 뒷면에 응시번호 및 성명 기재 (8) 우편봉투 1 매: 수취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 기재(우표 미부착) (9) 2급건축사면허증 및 수첩: 특별전형시험 합격자
4. 최종합격자 발 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1998. 12. 16.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면허증 및 면허수첩 교부일자: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고
5. 기 타 사 항	○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 배부한 응시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성적 열람은 98. 10. 9. ~ 10. 15. 까지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여 본 협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이후에는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단, 우편문의로는 열람기간내의 우편소인문에 한함) ○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실(581-5711~4)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 (504-9139)로 문의 바랍니다.